발 간 등 록 번 호
74-6440000-000371-10



2021 | 충남 사회조사를 활용한

도민의 삶과 정책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연구 보고서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청남도

이용자를 위하여

- 본 보고서의 연구주제는 지역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자료에 연구자가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에 인용된 충청남도 사회조사 통계표는 연구자의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처리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서 권역구분은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권(태안, 보령, 서천), 내륙권(공주, 계룡, 홍성, 예산, 청양), 금강권(금산, 논산, 부여)으로 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에서 지역특성 구분(도시, 농어촌)은 현장조사원이 조사구별로 분류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유의 바랍니다.
- 본 보고서에서 통계표의 개별 계층별 사례수가 적은 경우는 해석에 유의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도민의 삶과 정책」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연구자의 견해이며, 충청남도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CONTENTS

01. 노동

충남도민의 근로여건 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홍성효) ····· 1

02. 소득과 소비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홍성효) ····· 31

03. 코로나19와 도민의 삶

코로나19와 도민의 삶의 변화 그리고 정책제언(임준홍) ····· 55

노동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1. 충남도민의 근로여건 만족도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요 약

홍성효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shong11@kongju.ac.kr

- 근로여건 항목별 만족도의 광역시도 간 비교에서 충남은 대략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나 근로여건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포함하여 하는 일, 근로시간, 일·가정 양립, 직장 내 폭력방지 노력 등에서 상위 지역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임
- 충남사회조사에 의하면, 2017년 이래로 충남의 근로여건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시군 간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
- 충남도민의 근로여건 만족도는 근로자의 속성-이를테면, 거주지역, 연령대, 성별, 혼인상태, 학력-과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그리고 일자리의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항목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집단별 근로여건 항목별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 충남은 수도권 인접의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역노동시장으로서 수도권과의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낮으며, 충남의 경쟁력 개선을 위해 충남사회조사를 통한 근로여건 만족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반영한 정책방향의 설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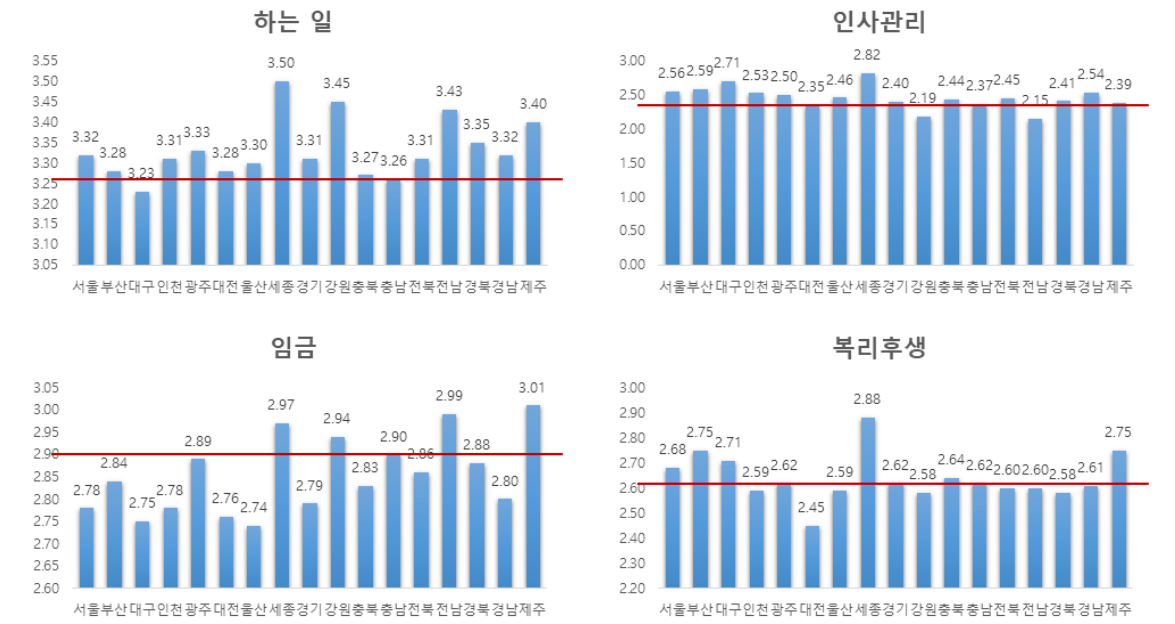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과거 노동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삶의 만족을 높이고 자신의 사회적 성취를 달성하는 한 방편에 해당하여, 노동이 주는 의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충남도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지역 내 일자리의 여건이나 만족도는 충남 도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그림 1-1> 근로여건 만족도의 광역시도 간 차이 : 하는 일, 인사관리, 임금, 복리후생

(단위 : 점)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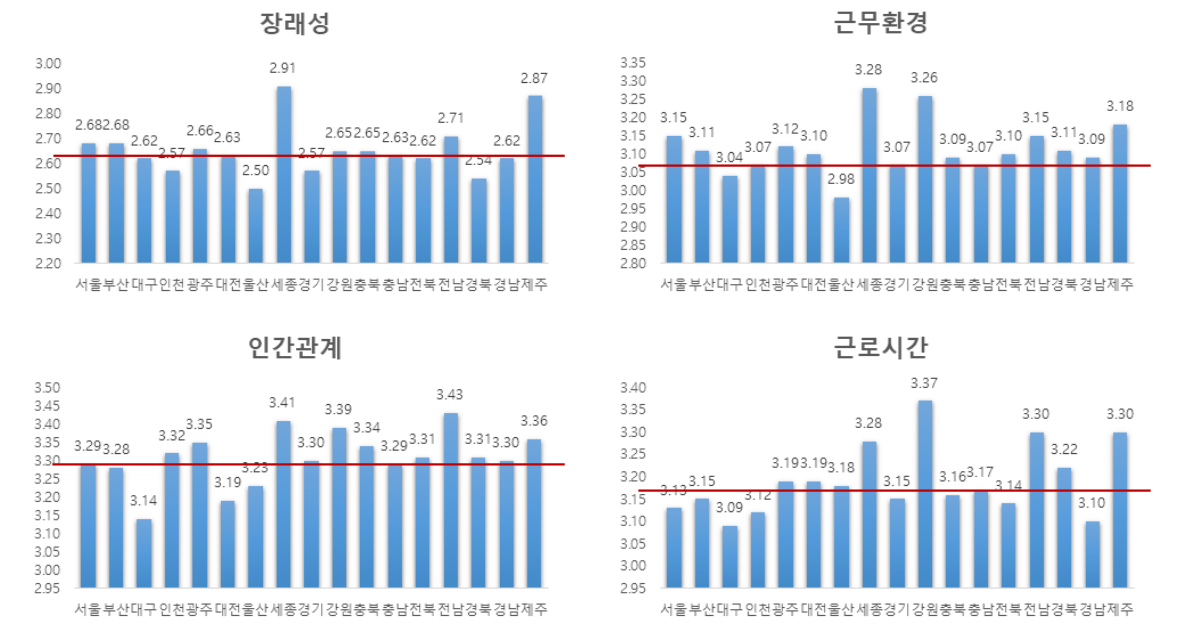
주 : 5점 척도로 만족도가 표시되며, 원자료에서는 1점이 매우 만족, 5점이 매우 불만족을 나타내나 이를 역으로 코딩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냄. F-검정결과 지역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사회조사」 2019년 자료에 의하면, 근로여건 만족도에서 광역시도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서 충남은 대구 다음으로 낮은 16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높은 지역들과의 격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인사관리(승진, 배치, 이동)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 간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충남은 14위로 낮은 편이다. 임금(일에 비해)에 대한 만족도는 제주, 전남, 세종, 강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인 8위에 해당한다.

<그림 1-2> 근로여건 만족도의 광역시도 간 차이 : 장래성, 근무환경, 인간관계, 근로시간

(단위 : 점)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9)

주: 5점 척도로 만족도가 표시되며, 원자료에서는 1점이 매우 만족, 5점이 매우 불만족을 나타내나 이를 역으로 코딩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냄. F-검정결과 지역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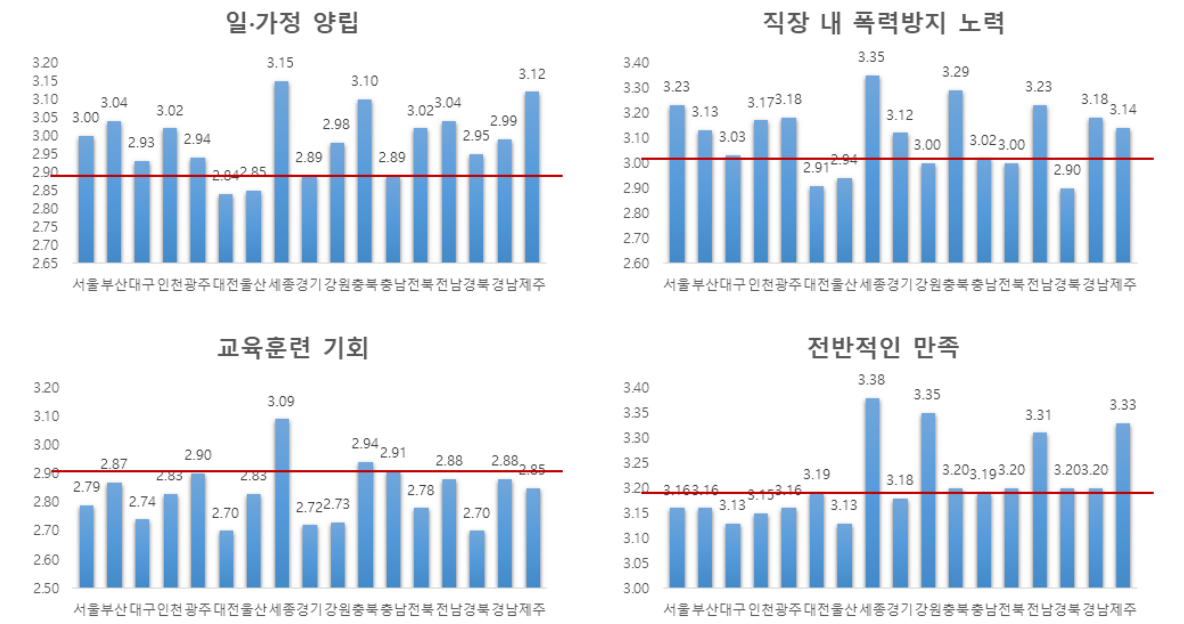
직장에서의 장래성은 광역시도들 중에서 9위에 해당하나 세종이나 제주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근무환경(안전, 위생 상태 등)에서는 인천, 경기와 함께 13위에 해당하며,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 역시 13위로 비교적 낮은 편에 해당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3.17점으로 9위에 해당한다.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에 대한 만족은 14위로 낮은 편이며, 직장 내 폭력(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 역시 12위로 낮게 나타난다. 한편, 직장 내 교육 및 훈련의 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2.91점으로 세종과 충북 다음으로 높은 3위에 해당한다. 근로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19점으로 10위에 해당하며, 세종, 강원, 제주, 전남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종합하면, 근로여건 만족도와 관련하여 충남은 교육 및 훈련의 기회와 임금 정도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전반적인 만족을 포함해 하는 일, 근로시간, 일·가정 양립, 직장 내 폭력방지 노력 등에서 높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3> 근로여건 만족도의 광역시도 간 차이 : 일·가정 양립, 직장 내 폭력방지 노력, 교육훈련 기회, 전반적인 만족

(단위 : 점)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9)

주 : 5점 척도로 만족도가 표시되며, 원자료에서는 1점이 매우 만족, 5점이 매우 불만족을 나타내나 이를 역으로 코딩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냄. F-검정결과 지역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2) 연구 목적

(1) 충남도민의 근로여건 만족도 분석

충남도의 충남사회조사 2017년, 2019년, 그리고 2021년 자료를 이용해, 일(직장)에 대한 전반, 하는 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임금/소득, 근로시간, 근무환경, 고용안정성, 일/직장의 장래성과 관련한 만족도의 충남 전체, 권역별, 그리고 시군별 시점 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충남도민의 근로여건 분야별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충남사회조사 2021년 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근로여건 만족도에서 충남도민 집단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근로여건 분야별 정책대상 집단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정책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충남도민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충남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충남도민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충남사회조사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충남도민 근로여건 만족도의 지역 간 차이

1) 일(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중은 충남 전체적으로 2017년 28.3%에서 2019년 33.8%, 그리고 2021년에 38.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서해안권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서해안권의 경우 2021년에 37.6%로 2019년의 38.4%에 비해 0.8%p 하락하였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서산시, 계룡시, 서천군, 예산군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1-1> 일(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중

(단위 : %)

지역		2017	2019	2021
충남 전체		28.3	33.8	38.3
권역별	북부권	28.3	35.2	38.9
	서해안권	30.5	38.4	37.6
	내륙권	29.0	30.1	38.3
	금강권	25.1	33.4	37.7
시군별	천안시	29.8	42.6	41.8
	공주시	22.0	25.7	35.6
	보령시	30.6	32.8	36.7
	아산시	31.7	37.9	43.9
	서산시	30.7	24.9	32.8
	논산시	26.8	31.7	32.2
	계룡시	43.9	42.6	52.1
	당진시	19.1	31.1	34.1
	금산군	27.7	36.5	45.4
	부여군	21.0	32.0	36.4
	서천군	41.6	51.9	40.5
	청양군	17.9	25.7	28.8
	홍성군	27.6	36.6	38.2
	예산군	35.1	22.2	39.7
	태안군	21.4	27.1	35.8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7, 2019, 2021)

주 : 북부권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를, 서해안권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을, 내륙권은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을, 그리고 금강권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을 포함함. 일(직장)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5점 척도(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을 나타냄.

2) 하는 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에 대한 만족

하는 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충남 전체적으로 2017년 35.8%에서 2021년 44.0%로 상승하였으며, 서해안권은 2019년 47.3%에서 2021년 43.7%로 하락하였고 내륙권은 2017년 36.3%에서 2019년 35.2%로 하락했다가 2021년에 44.2%로 상승하였다. 시군별로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보령시(42.4%에서 39.4%로), 서산시(39.8%에서 36.6%로), 서천군(52.9%에서 52.7%로)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의 경우 2017년, 2019년, 2021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대조를 이룬다.

<표 1-2> 하는 일(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

(단위 : %)

지역		2017	2019	2021
충남 전체		35.8	40.1	44.0
권역별	북부권	35.3	41.2	43.3
	서해안권	41.3	47.3	43.7
	내륙권	36.3	35.2	44.2
	금강권	31.4	39.7	45.5
시군별	천안시	37.6	48.9	47.8
	공주시	29.5	28.9	42.7
	보령시	42.4	38.6	39.4
	아산시	37.4	41.0	48.0
	서산시	39.8	35.0	36.6
	논산시	33.2	37.1	41.1
	계룡시	48.3	45.1	53.7
	당진시	24.2	36.5	37.1
	금산군	33.4	44.5	55.1
	부여군	27.7	37.9	41.2
	서천군	52.9	61.5	52.7
	청양군	30.7	32.8	39.0
	홍성군	34.1	40.6	39.5
	예산군	39.7	30.2	48.8
	태안군	31.0	40.4	39.4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7, 2019, 2021)

주 : 북부권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를, 서해안권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을, 내륙권은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을, 그리고 금강권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을 포함함. 일(직장)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5점 척도(1 매우 낮음,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을 나타냄.

3) 임금/소득에 대한 만족

임금/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충남 전체적으로 2017년에 25.2%에서 2019년 27.4%, 2021년에 30.1%로 상승하였다. 권역별로 서해안권은 2017년(29.3%) 대비 2019년(32.6%)에 상승하였으나 2021년의 수치(29.1%)는 2017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시군별로 보령시의 경우 만족하는 비중이 2017년 32.3%에서 2019년 30.0%, 그리고 2021년 28.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서산시 역시 2017년(25.8%) 대비 2021년(24.2%)에 하락하였다. 2021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도는 태안군으로 만족하는 비중이 단지 23.9%에 불과하며, 이는 계룡시의 40.9%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임금/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

(단위 : %)

지역		2017	2019	2021
충남 전체		25.2	27.4	30.1
권역별	북부권	24.7	29.1	31.0
	서해안권	29.3	32.6	29.1
	내륙권	25.4	23.9	30.3
	금강권	22.2	25.3	28.3
시군별	천안시	25.7	35.3	33.8
	공주시	22.1	20.8	31.8
	보령시	32.3	30.0	28.0
	아산시	28.1	30.8	37.4
	서산시	25.8	21.1	24.2
	논산시	22.8	26.1	26.3
	계룡시	39.8	36.9	40.9
	당진시	17.9	25.4	25.4
	금산군	26.0	24.6	31.1
	부여군	18.4	25.2	27.9
	서천군	35.6	41.2	35.6
	청양군	15.8	18.5	25.5
	홍성군	23.7	26.3	27.4
	예산군	26.8	19.7	29.1
	태안군	21.0	24.0	23.9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7, 2019, 2021)

주 : 북부권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를, 서해안권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을, 내륙권은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을, 그리고 금강권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을 포함함. 일(직장)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5점 척도(1 매우 낮음,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을 나타냄.

4)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

근로시간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충남 전체적으로 2017년에 27.9%에서 2019년 34.1%, 2021년에 37.7%로 상승하였다. 네 권역 모두에서 2017년 대비 2021년에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나 서해안권의 경우 2019년(39.0%)에 비해서는 2021년(36.9%)에 하락하였다. 시군별로 천안시는 2021년에 40.7%로 2019년의 42.1%에서 다소 하락하였으며,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역시 유사한 추세이나 서천군에서 (51.0%에서 43.6%로) 7.4%p에 해당하는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한편, 모든 시군에서 2017년 대비 2021년의 만족하는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여군에서 (22.2%에서 37.4%로) 15.2%p의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다.

<표 1-4> 근로시간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

(단위 : %)

지역		2017	2019	2021
충남 전체		27.9	34.1	37.7
권역별	북부권	26.9	35.2	38.2
	서해안권	31.0	39.0	36.9
	내륙권	29.8	31.0	38.0
	금강권	24.6	32.8	37.1
시군별	천안시	28.6	42.1	40.7
	공주시	22.2	26.5	36.1
	보령시	30.4	33.4	37.7
	아산시	28.6	36.4	42.9
	서산시	27.9	28.2	33.4
	논산시	23.2	30.3	30.9
	계룡시	42.2	39.5	48.0
	당진시	20.6	30.4	33.3
	금산군	29.2	36.7	44.0
	부여군	22.2	31.8	37.4
	서천군	42.3	51.0	43.6
	청양군	23.7	26.7	34.3
	홍성군	25.5	37.6	36.2
	예산군	36.3	26.3	38.3
	태안군	22.7	30.2	29.4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7, 2019, 2021)

주 : 북부권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를, 서해안권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을, 내륙권은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을, 그리고 금강권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을 포함함. 일(직장)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5점 척도(1 매우 낮음,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을 나타냄.

5)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충남 전체적으로 2017년에 30.0%에서 2019년 37.4%, 2021년에 38.7%로 상승하였다. 근로시간 만족에서의 시계열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서천군의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도내 시군들 가운데 2019년 대비 2021년에 10.7%p에 해당하는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낸다. 한편, 2017년과 비교해 2021년에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당진시로 18.3%에서 33.3%로 15.0%p 상승하였다. 이 기간 서천군은 단지 1.3%p의 상승폭을 보인다. 2021년 기준 만족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산시(30.3%)로 가장 높은 계룡시(51.1%)에 비해 20.8%p만큼 낮다.

<표 1-5> 근로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

(단위 : %)

지역		2017	2019	2021
충남 전체		30.0	37.4	38.7
권역별	북부권	28.0	37.3	38.6
	서해안권	31.1	41.7	37.8
	내륙권	33.5	35.3	39.5
	금강권	28.1	37.5	38.5
시군별	천안시	31.2	42.6	42.7
	공주시	27.2	30.2	37.3
	보령시	32.7	38.0	36.3
	아산시	32.4	38.8	44.5
	서산시	26.7	30.7	30.3
	논산시	29.2	34.3	33.4
	계룡시	45.1	44.2	51.1
	당진시	18.3	34.2	33.3
	금산군	32.5	43.3	45.7
	부여군	23.3	35.2	37.3
	서천군	40.6	52.6	41.9
	청양군	30.4	37.1	35.7
	홍성군	29.3	37.4	37.1
	예산군	36.1	28.9	40.0
	태안군	21.9	31.3	35.4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7, 2019, 2021)

주 : 북부권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를, 서해안권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을, 내륙권은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을, 그리고 금강권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을 포함함. 일(직장)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5점 척도(1 매우 낮음,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을 나타냄.

6) 고용 안정성에 대한 만족

고용 안정성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충남 전체적으로 2017년에 29.3%에서 2019년 36.8%, 2021년에 39.4%로 상승하였다. 시군들 가운데 천안시(3.4%p), 당진시(2.1%p), 서천군(12.8%p), 청양군(6.0%p)에서 2019년 대비 2021년에 만족하는 비중이 하락하였으며, 2021년 기준 서산시(34.7%)와 당진시(36.1%)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서천군과 예산군의 경우 2021년의 만족하는 비중은 2017년의 해당 수치에 비해서도 각각 4.1%p와 2.9%p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6> 고용 안정성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

(단위 : %)

지역		2017	2019	2021
충남 전체		29.3	36.8	39.4
권역별	북부권	27.8	38.5	39.1
	서해안권	30.4	39.4	38.5
	내륙권	32.8	35.4	40.6
	금강권	26.4	33.3	38.7
시군별	천안시	29.8	45.2	41.9
	공주시	24.1	26.0	36.9
	보령시	30.7	37.4	40.6
	아산시	31.3	39.1	41.6
	서산시	28.9	28.1	34.7
	논산시	27.7	34.5	37.8
	계룡시	44.0	44.3	49.3
	당진시	18.8	38.2	36.1
	금산군	30.1	34.5	40.6
	부여군	21.8	30.6	38.0
	서천군	41.8	50.5	37.7
	청양군	29.0	46.2	40.2
	홍성군	27.1	35.5	41.8
	예산군	40.6	26.0	37.7
	태안군	21.3	25.9	37.1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7, 2019, 2021)

주 : 북부권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를, 서해안권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을, 내륙권은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을, 그리고 금강권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을 포함함. 일(직장)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5점 척도(1 매우 낮음,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을 나타냄.

7) 일/직장의 장래성에 대한 만족

일/직장의 장래성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충남 전체적으로 2017년에 28.0%에서 2019년 31.4%, 2021년에 34.1%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서해안권은 2019년에 35.4%에서 2021년에 35.0%로 0.4%p만큼 하락하였다. 시군별로는 천안시(2.5%p), 보령시(0.3%p), 당진시(0.2%p), 서천군(3.6%p), 청양군(3.9%p)에서 최근에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 청양군에서 25.6%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1-7> 일/직장의 장래성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

(단위 : %)

지역		2017	2019	2021
충남 전체		28.0	31.4	34.1
권역별	북부권	28.7	34.2	35.0
	서해안권	30.5	35.4	35.0
	내륙권	27.7	27.9	33.1
	금강권	24.5	28.3	32.7
시군별	천안시	29.6	39.6	37.1
	공주시	20.6	22.6	32.0
	보령시	30.7	33.8	33.5
	아산시	33.2	36.9	39.0
	서산시	31.8	24.9	30.2
	논산시	26.0	28.8	30.4
	계룡시	40.5	39.9	41.7
	당진시	19.1	31.8	31.6
	금산군	25.1	29.7	38.5
	부여군	22.3	26.0	29.9
	서천군	37.0	41.7	38.1
	청양군	19.1	29.5	25.6
	홍성군	26.5	27.7	34.4
	예산군	33.2	21.9	33.5
	태안군	25.2	28.5	33.6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7, 2019, 2021)

주 : 북부권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를, 서해안권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을, 내륙권은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을, 그리고 금강권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을 포함함. 일(직장)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은 5점 척도(1 매우 낮음,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을 나타냄.

3. 근로여건 만족도의 충남도민 집단 간 차이

1) 분석모형

근로여건 만족도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한다.

$$y_j = \alpha + X_j\beta + \epsilon_j \quad (1)$$

여기서, X_j는 충남사회조사 2021년 자료에 포함된 응답자 j의 거주지(개별 시군, 읍면동 여부), 연령, 성별, 혼인상태, 학력, 산업, 직업, 주당 평균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전일제 여부 등을 포함하는 매트릭스(matrix)에 해당하며, ϵ_j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y_j는 5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 . , 5점 '매우 만족')에 의한 일(직장)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7개 세부 근로여건들(하는 일, 임금/소득, 근로시간, 근무환경, 의사소통/인간관계, 고용 안정성, 일/직장의 장래성)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식 (1)에 대한 추정은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한다.

2) 분석결과

분석결과에 의하면, 읍이나 면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동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와 7개 세부 항목 모두에서 만족도가 낮고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만족도가 통상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하는 일, 근로시간, 의사소통/인간관계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다. 근무환경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혼인상태에 따른 집단 간 근로여건 만족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체로 사별, 배우자 있음, 미혼이나 이혼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 근로여건 관련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서 더욱 그러하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이나 교육서비스에 속하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여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소득 측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에 종사하는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시간이나 근무환경 측면에서는 교육서비스에 속하는 경우가 높으며, 고용 안정성이나 일/직장의 장래성측면에서는 공공행정에서 근무하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운수업 및 창고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경우 근로여건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일용직 근로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가 관찰되며, 전반적인 만족도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전일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소득,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 일/직장의 장래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표 1-8>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에 대한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하는 일	임금/소득	근로시간	근무환경	의사소통 인간관계	고용 안정성	일/직장 장래성	전반적인 만족도
시군 (기준 : 천안시)								
공주시	0.030 (0.39)	0.119 (1.52)	0.129+ (1.66)	-0.001 (-0.01)	-0.006 (-0.08)	0.013 (0.16)	-0.070 (-0.89)	-0.025 (-0.31)
보령시	0.041 (0.52)	0.097 (1.22)	0.246** (3.07)	0.094 (1.23)	0.255** (3.11)	0.303** (3.88)	0.240** (3.10)	0.157* (2.01)
아산시	0.052 (0.81)	0.181** (2.80)	0.187** (2.75)	0.178** (2.74)	0.060 (0.91)	0.025 (0.40)	0.094 (1.45)	0.133* (2.01)
서산시	-0.339** (-4.80)	-0.251** (-3.70)	-0.092 (-1.25)	-0.238** (-3.33)	-0.348** (-4.75)	-0.165* (-2.37)	-0.152* (-2.15)	-0.274** (-3.63)
논산시	-0.075 (-0.95)	-0.044 (-0.58)	-0.052 (-0.64)	-0.129 (-1.60)	-0.233** (-2.87)	0.063 (0.79)	-0.039 (-0.49)	-0.131 (-1.58)
계룡시	-0.062 (-0.64)	0.064 (0.67)	0.042 (0.42)	-0.010 (-0.10)	-0.144 (-1.37)	-0.094 (-0.94)	-0.168+ (-1.80)	-0.056 (-0.58)
당진시	-0.316** (-4.75)	-0.258** (-3.86)	-0.104 (-1.52)	-0.270** (-3.90)	0.035 (0.52)	-0.173** (-2.58)	-0.217** (-3.16)	-0.233** (-3.32)
금산군	0.395** (4.06)	-0.149 (-1.59)	0.215* (2.26)	0.202* (2.14)	0.501** (5.77)	0.068 (0.73)	-0.009 (-0.09)	0.300** (3.20)
부여군	-0.092 (-1.11)	0.070 (0.88)	0.106 (1.26)	-0.030 (-0.37)	-0.081 (-0.99)	0.098 (1.23)	0.001 (0.02)	-0.048 (-0.58)
서천군	0.302** (3.73)	0.316** (3.68)	0.233** (2.80)	0.030 (0.35)	0.132 (1.59)	0.166* (2.13)	0.323** (3.77)	0.211* (2.51)
청양군	-0.077 (-0.98)	-0.052 (-0.63)	0.093 (1.16)	-0.159+ (-1.88)	0.171* (2.03)	0.280** (3.51)	-0.149+ (-1.90)	-0.116 (-1.47)
홍성군	-0.348** (-4.25)	-0.145+ (-1.85)	-0.108 (-1.31)	-0.190* (-2.32)	-0.069 (-0.85)	0.061 (0.77)	-0.039 (-0.51)	-0.131 (-1.58)
예산군	0.211** (2.70)	0.120 (1.52)	0.175* (2.13)	0.118 (1.45)	0.496** (6.03)	0.014 (0.17)	0.011 (0.13)	0.091 (1.10)
태안군	-0.082 (-1.00)	-0.104 (-1.22)	-0.038 (-0.47)	0.066 (0.84)	0.096 (1.17)	0.136 (1.61)	0.160+ (1.90)	0.117 (1.39)

	하는 일	임금/소득	근로시간	근무환경	의사소통 인간관계	고용 안정성	일/직장 장래성	전반적인 만족도
동읍면 (기준 : 동)								
읍	0.238**	0.188**	0.224**	0.218**	0.277**	0.147**	0.162**	0.233**
	(5.07)	(3.98)	(4.69)	(4.54)	(5.80)	(3.09)	(3.40)	(4.78)
면	0.067	0.106*	0.046	0.125**	0.142**	0.071	0.085+	0.154**
	(1.50)	(2.40)	(1.02)	(2.78)	(3.12)	(1.57)	(1.88)	(3.31)
연령대 (기준 : 15~19세)								
20~29세	-1.059**	-0.837**	-1.137**	-1.197**	-1.084**	-1.471**	-0.899**	-1.391**
	(-3.18)	(-2.60)	(-3.52)	(-3.22)	(-3.12)	(-4.43)	(-2.71)	(-4.49)
30~39세	-1.199**	-1.148**	-1.259**	-1.374**	-1.187**	-1.642**	-1.068**	-1.619**
	(-3.60)	(-3.58)	(-3.91)	(-3.71)	(-3.43)	(-4.94)	(-3.21)	(-5.23)
40~49세	-1.210**	-1.145**	-1.309**	-1.428**	-1.267**	-1.696**	-1.122**	-1.650**
	(-3.63)	(-3.57)	(-4.06)	(-3.85)	(-3.66)	(-5.10)	(-3.37)	(-5.31)
50~59세	-1.089**	-1.087**	-1.210**	-1.396**	-1.188**	-1.681**	-1.029**	-1.589**
	(-3.27)	(-3.38)	(-3.74)	(-3.76)	(-3.43)	(-5.04)	(-3.08)	(-5.11)
60세 이상	-0.937**	-1.111**	-1.108**	-1.173**	-0.968**	-1.548**	-0.989**	-1.479**
	(-2.80)	(-3.44)	(-3.42)	(-3.15)	(-2.78)	(-4.63)	(-2.95)	(-4.74)
남성	0.096*	0.059	0.076+	-0.011	0.077+	0.013	-0.008	0.049
	(2.43)	(1.51)	(1.93)	(-0.27)	(1.94)	(0.34)	(-0.20)	(1.22)
혼인상태 (기준 : 미혼)								
배우자 있음	0.118*	0.189**	0.120*	0.057	0.109+	0.138*	0.170**	0.164**
	(2.08)	(3.35)	(2.06)	(0.99)	(1.92)	(2.41)	(2.95)	(2.75)
사별	0.265**	0.362**	0.234**	0.119	0.091	0.189*	0.266**	0.281**
	(2.99)	(4.26)	(2.70)	(1.37)	(1.03)	(2.15)	(3.02)	(3.14)
이혼	-0.033	-0.020	0.064	-0.076	-0.033	-0.078	-0.068	-0.024
	(-0.39)	(-0.23)	(0.75)	(-0.88)	(-0.38)	(-0.90)	(-0.80)	(-0.26)
학력 (기준 : 초졸 이하)								
중졸 이하	0.013	-0.053	-0.054	-0.077	0.082	-0.047	-0.060	-0.104+
	(0.23)	(-0.95)	(-0.97)	(-1.37)	(1.42)	(-0.80)	(-1.03)	(-1.79)
고졸 이하	0.211**	0.123*	0.060	0.122*	0.227**	0.020	0.071	0.070
	(3.77)	(2.27)	(1.10)	(2.23)	(4.01)	(0.37)	(1.28)	(1.24)
대학 이상	0.363**	0.253**	0.187**	0.315**	0.325**	0.218**	0.237**	0.231**
	(5.70)	(4.04)	(2.93)	(4.98)	(4.97)	(3.43)	(3.68)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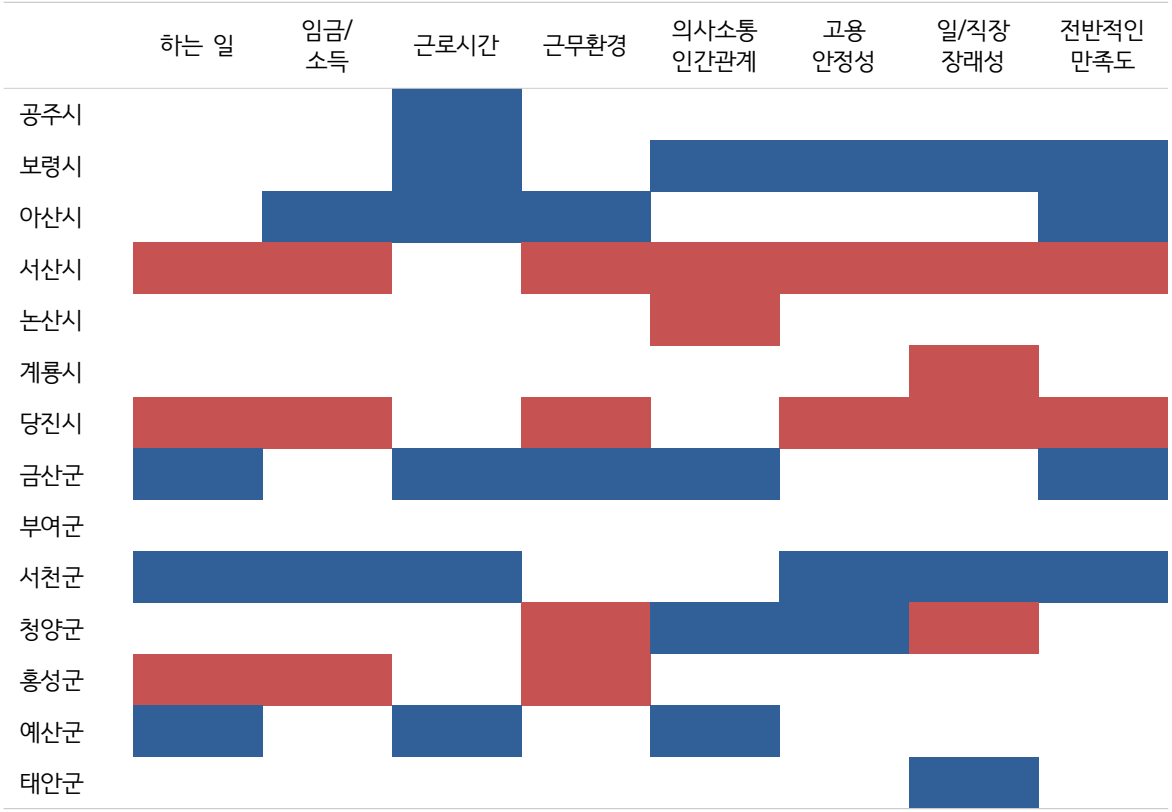
	하는 일	임금/소득	근로시간	근무환경	의사소통 인간관계	고용 안정성	일/직장 장래성	전반적인 만족도
산업 (기준 : 농림어업)								
광업	-1.570**	0.504	-0.045	0.306	0.512	0.896	1.283	0.628
	(-3.69)	(0.56)	(-0.10)	(0.68)	(0.71)	(0.71)	(1.05)	(0.92)
제조업	0.075	0.225	0.163	0.382*	0.231	0.046	0.141	0.077
	(0.51)	(1.42)	(1.03)	(2.37)	(1.40)	(0.27)	(0.78)	(0.50)
전기가스증기	0.356+	0.424*	0.480*	0.475*	0.470*	0.163	0.243	0.478*
	(1.66)	(1.98)	(2.20)	(2.00)	(2.14)	(0.68)	(1.01)	(2.20)
수도하수/폐기물	0.277	0.192	0.133	-0.049	0.236	-0.044	-0.087	0.062
	(1.18)	(0.73)	(0.53)	(-0.18)	(0.83)	(-0.15)	(-0.33)	(0.24)
건설업	-0.096	0.150	-0.045	0.060	0.073	-0.259	-0.051	-0.141
	(-0.63)	(0.92)	(-0.27)	(0.36)	(0.43)	(-1.45)	(-0.28)	(-0.88)
도소매업	0.038	0.030	0.012	0.359*	0.275	0.142	0.033	0.086
	(0.24)	(0.17)	(0.07)	(2.09)	(1.51)	(0.75)	(0.17)	(0.50)
운수 및 창고	-0.358*	-0.136	-0.561**	-0.128	-0.214	-0.313+	-0.228	-0.354*
	(-2.15)	(-0.78)	(-3.15)	(-0.71)	(-1.17)	(-1.69)	(-1.16)	(-2.04)
숙박 및 음식점	-0.175	-0.267	-0.351*	0.382*	0.142	-0.138	-0.345+	-0.185
	(-1.11)	(-1.58)	(-2.09)	(2.29)	(0.82)	(-0.76)	(-1.83)	(-1.14)
정보통신	0.278	0.278	0.476+	0.928**	0.470+	0.410	0.294	0.332
	(1.09)	(1.13)	(1.82)	(3.55)	(1.69)	(1.59)	(1.03)	(1.29)
금융 및 보험	0.330+	0.563**	0.480*	0.764**	0.410*	0.405*	0.487*	0.452*
	(1.74)	(2.93)	(2.46)	(3.96)	(1.97)	(1.96)	(2.29)	(2.32)
부동산	0.217	0.406+	0.302	0.639**	0.216	0.112	0.194	0.136
	(1.02)	(1.83)	(1.34)	(2.93)	(0.93)	(0.49)	(0.84)	(0.58)
전문과학기술	0.321+	0.344+	0.510**	0.742**	0.545**	0.261	0.512*	0.333+
	(1.75)	(1.74)	(2.58)	(3.68)	(2.71)	(1.28)	(2.35)	(1.73)
사업시설관리	-0.109	0.125	0.055	0.191	0.064	-0.207	-0.123	-0.024
	(-0.65)	(0.72)	(0.31)	(1.06)	(0.35)	(-1.08)	(-0.63)	(-0.14)
공공행정	0.526**	0.545**	0.464**	0.857**	0.660**	0.882**	0.785**	0.744**
	(3.44)	(3.30)	(2.83)	(5.15)	(3.89)	(4.92)	(4.21)	(4.68)
교육서비스	0.780**	0.560**	0.768**	1.183**	0.803**	0.821**	0.659**	0.868**
	(4.85)	(3.22)	(4.43)	(6.85)	(4.53)	(4.39)	(3.41)	(5.19)
보건 및 사회복지	0.322*	0.090	0.212	0.619**	0.395*	0.389*	0.445*	0.331*
	(2.08)	(0.54)	(1.27)	(3.71)	(2.29)	(2.17)	(2.37)	(2.05)
예술스포츠 및 여가	0.462*	0.131	0.279	0.877**	0.536**	0.088	0.262	0.400+
	(2.26)	(0.60)	(1.27)	(4.21)	(2.58)	(0.36)	(1.14)	(1.87)
협회단체 및 기타	0.568**	0.228	0.323+	0.793**	0.607**	0.294	0.398*	0.519**
	(3.54)	(1.33)	(1.89)	(4.56)	(3.42)	(1.59)	(2.05)	(3.10)
자가 소비생산활동	0.843	1.220	0.427	1.004	0.431	0.846	0.775	0.448
	(0.85)	(1.15)	(0.47)	(1.14)	(0.44)	(0.77)	(0.57)	(0.29)

	하는 일	임금/소득	근로시간	근무환경	의사소통 인간관계	고용 안정성	일/직장 장래성	전반적인 만족도
직업 (기준 : 관리자)								
전문직/관련직	-0.166	-0.265+	-0.342*	-0.283*	-0.035	-0.331*	-0.125	-0.222
	(-1.20)	(-1.92)	(-2.47)	(-2.05)	(-0.26)	(-2.39)	(-0.96)	(-1.62)
사무직	-0.287*	-0.317*	-0.267*	-0.202	-0.190	-0.210	-0.219+	-0.255+
	(-2.12)	(-2.36)	(-1.98)	(-1.50)	(-1.43)	(-1.55)	(-1.73)	(-1.91)
서비스직	-0.584**	-0.562**	-0.561**	-0.589**	-0.361**	-0.521**	-0.433**	-0.567**
	(-4.11)	(-3.95)	(-3.98)	(-4.21)	(-2.63)	(-3.67)	(-3.24)	(-4.03)
판매직	-0.624**	-0.573**	-0.504**	-0.370*	-0.346*	-0.706**	-0.689**	-0.639**
	(-3.99)	(-3.73)	(-3.22)	(-2.44)	(-2.23)	(-4.57)	(-4.59)	(-4.11)
농림어업숙력	-1.000**	-0.689**	-0.861**	-0.655**	-0.520*	-0.794**	-0.788**	-0.940**
	(-5.23)	(-3.46)	(-4.33)	(-3.29)	(-2.57)	(-3.77)	(-3.68)	(-4.84)
기능원/관련 기능직	-0.507**	-0.516**	-0.506**	-0.634**	-0.336*	-0.506**	-0.448**	-0.533**
	(-3.71)	(-3.77)	(-3.69)	(-4.53)	(-2.47)	(-3.63)	(-3.39)	(-3.88)
장치기계 조작/조립	-0.467**	-0.407**	-0.578**	-0.631**	-0.296*	-0.443**	-0.456**	-0.473**
	(-3.39)	(-2.95)	(-4.17)	(-4.50)	(-2.17)	(-3.21)	(-3.47)	(-3.44)`
단순노무직	-0.744**	-0.530**	-0.636**	-0.633**	-0.438**	-0.703**	-0.690**	-0.773**
	(-5.54)	(-3.97)	(-4.77)	(-4.74)	(-3.33)	(-5.19)	(-5.40)	(-5.78)
군인	0.168	-0.198	-0.215	-0.098	0.076	-0.079	0.113	0.015
	(0.67)	(-0.88)	(-0.88)	(-0.44)	(0.33)	(-0.33)	(0.52)	(0.07)
주당 평균 근로시간	-0.007**	-0.006**	-0.024**	-0.010**	-0.004**	-0.002+	-0.001	-0.007**
	(-5.71)	(-5.29)	(-17.03)	(-8.35)	(-3.48)	(-1.68)	(-1.08)	(-5.63)
종사상 지위 (기준 : 상용직)								
임시직	-0.089	-0.093	-0.229**	-0.131+	0.013	-0.833**	-0.587**	-0.368**
	(-1.32)	(-1.34)	(-3.33)	(-1.87)	(0.18)	(-10.78)	(-8.03)	(-5.15)
일용직	-0.528**	-0.368**	-0.593**	-0.596**	-0.390**	-0.994**	-0.797**	-0.882**
	(-6.08)	(-4.30)	(-7.03)	(-6.75)	(-4.35)	(-10.72)	(-8.91)	(-9.3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260*	0.229*	-0.018	0.205*	0.081	0.069	0.328**	0.220*
	(2.50)	(2.17)	(-0.16)	(1.98)	(0.76)	(0.63)	(3.08)	(2.0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14	-0.366**	-0.166*	0.006	-0.124	-0.105	-0.052	-0.155+
	(-0.17)	(-4.46)	(-2.00)	(0.07)	(-1.49)	(-1.22)	(-0.61)	(-1.81)
무급가족종사자	-0.245**	-0.390**	-0.298**	-0.138	-0.133	-0.148	-0.065	-0.277**
	(-2.63)	(-4.15)	(-3.14)	(-1.45)	(-1.37)	(-1.53)	(-0.68)	(-2.81)
전일제	0.032	0.130*	0.171**	0.072	0.050	0.224**	0.185**	0.098
	(0.50)	(1.99)	(2.61)	(1.08)	(0.75)	(3.19)	(2.69)	(1.44)
관측수	14,852	14,849	14,850	14,848	14,850	14,845	14,848	14,849
Pseudo R-squared	0.0397	0.0349	0.0461	0.0391	0.0291	0.0422	0.0400	0.0462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주 :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그림 1-4>는 <표 1-8>에서의 회귀분석결과 가운데 시군 간 차이를 정성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천안시를 기준으로, 부여군은 근로여건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보령시, 금산군, 서천군의 경우 근로여건 가운데 다수의 항목에서 천안시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한편, 서산시의 경우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항목의 근로여건에서 천안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그림 1-4> 응답자 속성이 통제된 근로여건 만족도의 지역 간 차이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주 : 파란색은 천안시에 비해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경우이며, 붉은색은 낮은 경우이고, 색상이 없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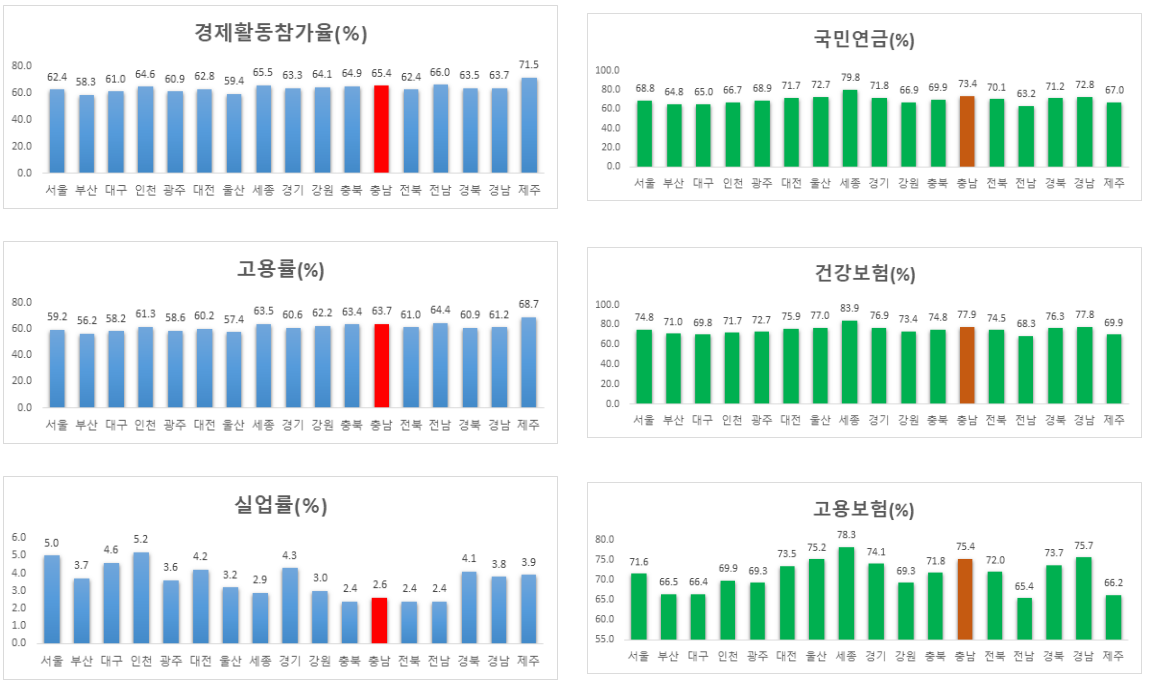
4. 지역노동시장 경쟁력

1) 고용지표

충남은 경제활동참가율에서 65.4%로 인근 대전(62.8%), 충북(64.9%), 전북(62.4%)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세종(65.5%)과는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다. 고용률은 63.7%로 세종(63.5%)이나 충북(63.4%)과 유사하나 대전(60.2%)과 전북(61.0%)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한다. 실업률은 2.6%로 2.4%의 충북이나 전북에 비해서는 높으나 대전(4.2%)과 세종(2.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관련하여, 충남은 국민연금 73.4%, 건강보험 77.9%, 고용보험 75.4%로 대전, 충북, 전북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나 세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고용지표를 통해 지역노동시장으로서 충남은 적어도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고용지표의 지역 간 차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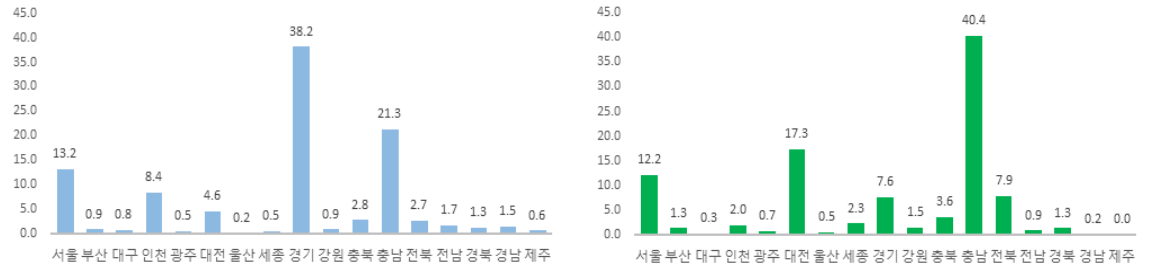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1년 상반기)

2) 대졸자의 취업에 따른 지역 간 이동[1)]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이동경로조사」에 의하면, 충남 소재 대학 진학자 가운데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가 경기인 경우의 비중은 38.2%로 가장 높으며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21.3%에 불과하여 충남 소재 대학들의 입학자원이 외지-특히, 수도권-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충남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40.4%만이 충남 소재 대학에 진학하며, 대전으로 17.3%, 서울로 12.2%, 전북으로 7.9%, 경기로 7.6%가 진학하여 지역 내 대학입학자원이 외지로 이탈하는 비중 역시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대학 진학에 따른 지역 간 이동의 비중

(단위 : %)



a) 충남 소재 대학 진학자의 출신고교 소재지 분포

b) 충남 소재 고교 졸업자의 진학대학 소재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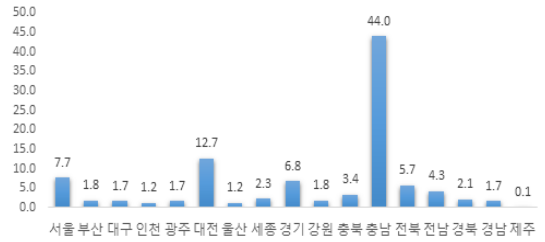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이동경로조사」, (2019)

충남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대졸자의 졸업대학 소재지별 비중에서 충남은 44.0%에 해당하고, 대전 12.7%, 서울 7.7%, 경기 6.8%, 전북 5.7%, 전남 4.3%, 충북 3.4% 등으로 나타나, 충남 소재 기업들의 대졸자 신입직원의 채용에 있어 절반 이상을 외지 대학 졸업생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충남의 비중은 37.2%로 하락하며, 대전 14.9%, 서울 13.9%, 경기 10.1%, 전북 5.1%, 인천 4.0% 등으로 나타나 수도권 소재 대학에 의한 인력공급에 보다 더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 충남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대졸자 가운데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충남 소재 대학을 졸업한 비중은 44.8%에 해당하고, 종사자수가 3백명을 넘는 충남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대졸자 가운데 충남 소재 대학 졸업자의 비중은 46.5%로 역시 절반을 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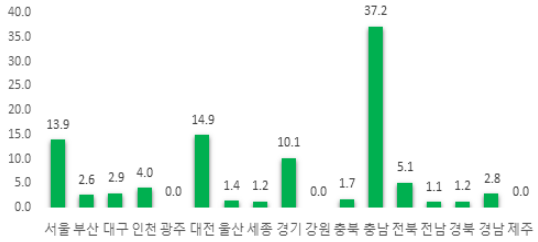
1) 본 절의 내용 일부는 홍성효 외(2020)의 분석결과를 포함한다.

<그림 1-7> 충남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대졸자의 졸업대학 소재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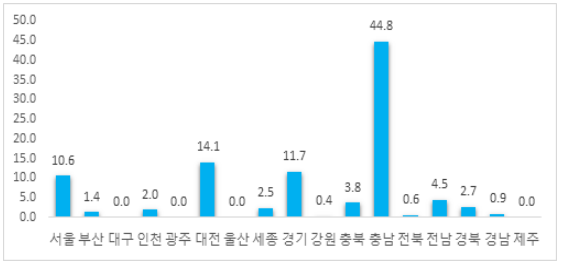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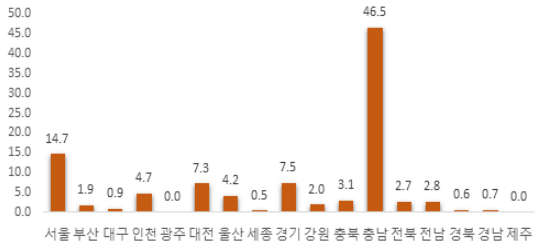
a) 전체



b) 제조업



c) 경영·사무·금융·보험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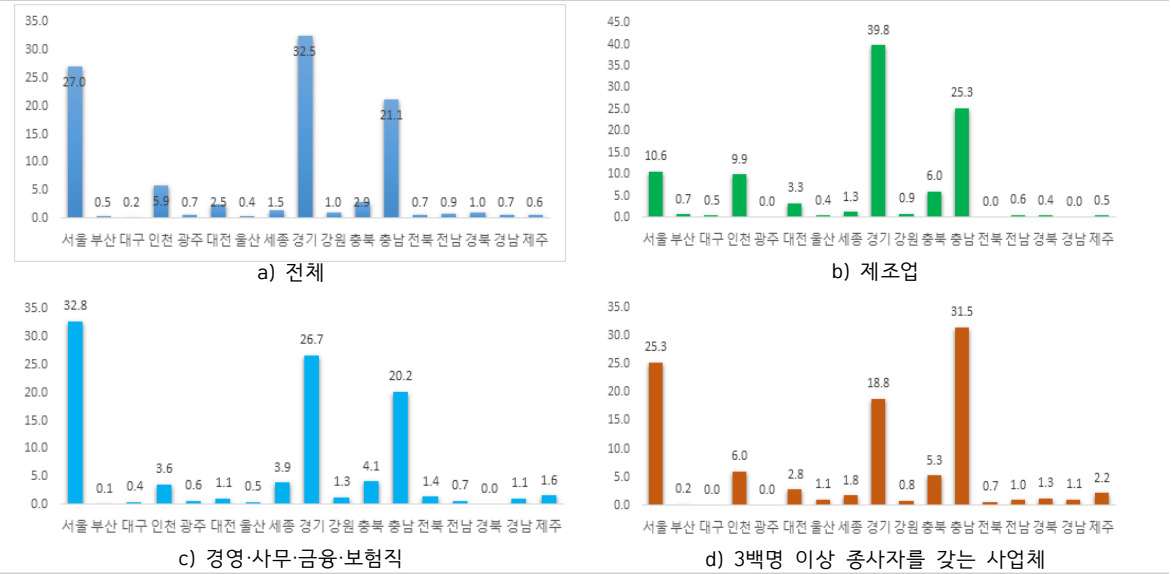
d) 3백명 이상 종사자를 갖는 사업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이동경로조사」, (2019)

충남 소재 대학 졸업자의 직장 소재지별 비중에서 충남은 21.1%에 불과하며, 경기 소재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32.5%로 가장 높고 서울 역시 27.0%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을 제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경기 소재 직장의 비중은 39.8%로 상승하나 서울의 비중이 10.6%로 하락하여 충남의 비중은 25.3%로 다소 상승한다. 직종을 경영·사무·금융·보험직으로 한정하는 경우 충남 소재 대학 졸업자 5명 가운데 1명만이 충남 소재 직장에 근무하여 지역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종사자수가 3백명 이상인 사업체에 있어서는 충남 소재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31.5%로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림 1-8> 충남 소재 대학 졸업자의 현 직장 소재지별 비중(%)

(단위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이동경로조사」, (2019)

대학 졸업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지리적 불일치는 비단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며, 이는 충청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수도권 인접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대학졸업자의 취업에 따른 지역 간 이동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특정 지역 소재 대학졸업자 가운데 해당 지역 소재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의 비중은 충청권이 42.5%로 이는 수도권 90.7%, 호남권 63.0%, 영남권 78.1%, 강원/제주권 45.9%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세 가지 가능성을 내포한다. 첫째, 지역 내 노동시장에서 지역 대학의 대졸 전문인력 공급역량에 있어 충청권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충청권 내 대졸 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 지역산업과 대학전공 간 불일치-즉, 지역 내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전공분야와 지역대학이 공급하는 전공분야 간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대학 졸업자의 취업을 통한 타 지역으로의 이탈의 높은 비중은 지역경제에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즉, 대학 졸업자가 대학 소재지 내에서 취업을 통해 정착함으로써 지역경제에서 생산과 함께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지역 내 정주시설에 대한 수요의 확보 및 이에 기초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유발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다.[2)]

2) 다만, 충청권 소재 대학 졸업자 가운데 48.9%가 수도권 소재 직장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대학 졸업자의 출신지역-즉, 출생지 혹은 출신고교 소재지-으로의 회귀에 기인할 수 있다.

<표 1-9> 대학졸업자의 취업에 따른 지역 간 이동(행%)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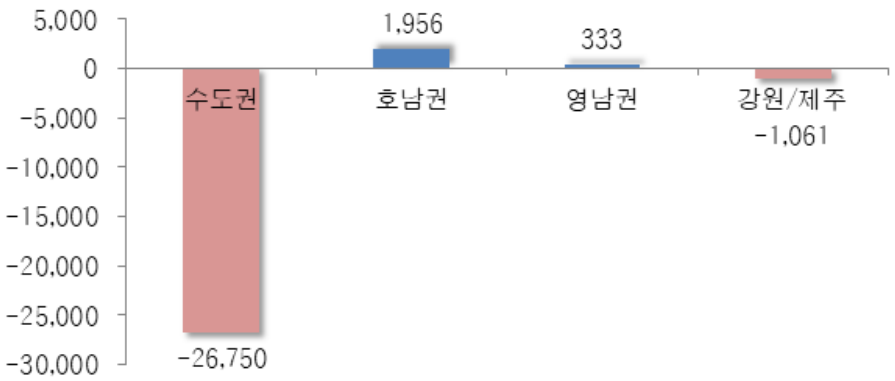
		현 직장 소재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
대학 소재지	수도권	90.7	3.4	1.6	2.8	1.5
	충청권	48.9	42.5	1.8	4.3	2.6
	호남권	23.7	7.3	63.0	4.9	1.1
	영남권	16.2	3.2	1.2	78.1	1.2
	강원·제주	49.1	2.9	0.5	1.6	45.9

자료 : 홍성효 외(2020)

취업에 따른 특정 지역으로부터 충청권으로의 순유입-즉, 충청권으로의 유입에서 충청권으로부터의 유출을 뺀 수치-의 현황을 살펴보면, 호남권(1,956명)과 영남권(333명)의 경우 유출에 비해 유입이 많으나 수도권의 경우 유입에 비해 유출이 26,750명만큼 더 많아 대졸 전문인력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즉,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9> 취업에 따른 해당 권역으로부터 충청권으로의 순유입

(단위 : 명)



자료 : 홍성효 외(2020)

충청권 지역노동시장에서 대졸자의 수요와 공급 간 상대적으로 큰 불일치가 지역대학의 역량부족-즉, 대졸자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지역노동시장의 낮은 경쟁력-즉, 낮은 임금수준-에 기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출신대학 소재지 간 비교하거나 지역노동시장 간 비교할 필요가 있다.[3] 전자와 관련하여, 출신대학 소재지별 임금격차가 출신대학의 인적자원양성과 관련한 역량에서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설문조사에 포함된 대졸 취업자 개인의 속성-성별, 연령, 경력, 전공평점, 계열, 직업 등-에서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기업의 속성-규모, 산업-에서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 이후에 출신대학 소재지 간 평균 임금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과 직장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의 추정을 통해 출신대학 소재지 간 평균 임금의 차이를 분석한다.

$$y_j = \alpha + X_j\beta + F_j\gamma + \sum_k^5 \zeta_k area_{jk} + \epsilon_j \qquad (2)$$

여기서, y_j는 월평균 임금(log 만원/월), X_j는 대졸 취업자 개인의 속성, F_j는 대졸 취업자가 근무하는 현 작장의 속성, $area_{jk}$는 대졸 취업자의 출신대학 소재지 k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에 해당하고, ϵ_j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식 (2)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1-10>에 제시된다. 처음 두 열은 임금을 종속변수로 OLS(통상의 최소자승추정법)에 의해 추정된 결과이다. 출신대학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에 비해,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임금수준을 나타내며, 이는 인적자원의 양성에 있어 충청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함축한다. 마지막 열은 1~5점의 Likert척도에 의한 직장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으며,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를 제시한다. 비록 임금은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취업자들에 비해 비수도권의 경우에 낮으나 직장 만족도에서는 출신대학 소재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비수도권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등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3) 노동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임금은 노동생산성을 반영할 것이다.

<표 1-10> 임금과 직장 만족도의 출신대학 소재지 간 차이

		임금(log 만원/월)		직장 만족도 (정규직, 1-5점 척도)
		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출신대학 소재지 (기준 : 수도권)	충청권	-0.043** (-3.44)	-0.060** (-6.43)	0.054 (0.73)
	호남권	-0.061** (-4.13)	-0.076** (-7.12)	0.015 (0.17)
	영남권	-0.046** (-4.59)	-0.063** (-8.93)	-0.030 (-0.46)
	강원/제주	-0.062** (-2.82)	-0.094** (-7.10)	0.085 (0.73)
관측수		10,119	7,898	7,905
Adj. R^2/Pseudo R^2		0.3035	0.4406	0.0304

자료 : 홍성효 외(2020)
주 : 성, 연령, 졸업 평점(GPA), 계열, 대학유형, 졸업 이후 경과년수, 현 직장 경력, 기업규모(종사자수 기준), 정규직 여부(모형 1), 산업, 직업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었음.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임

지역노동시장으로서 충남의 경쟁력-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2017년 자료를 이용해 임금방정식을 추정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된다. 근로자 개인의 속성이 통제된 지역별 평균 임금에서 충남은 전체 근로자에 대해 수도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34세 이하 대학 졸업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마지막 열의 19~33세에 해당하는 고교 졸업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대졸 학력의 신입 근로자에 대한 지역노동시장으로서 충남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함축한다. 결론적으로,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지역대학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지역노동시장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림 1-10> 임금의 지역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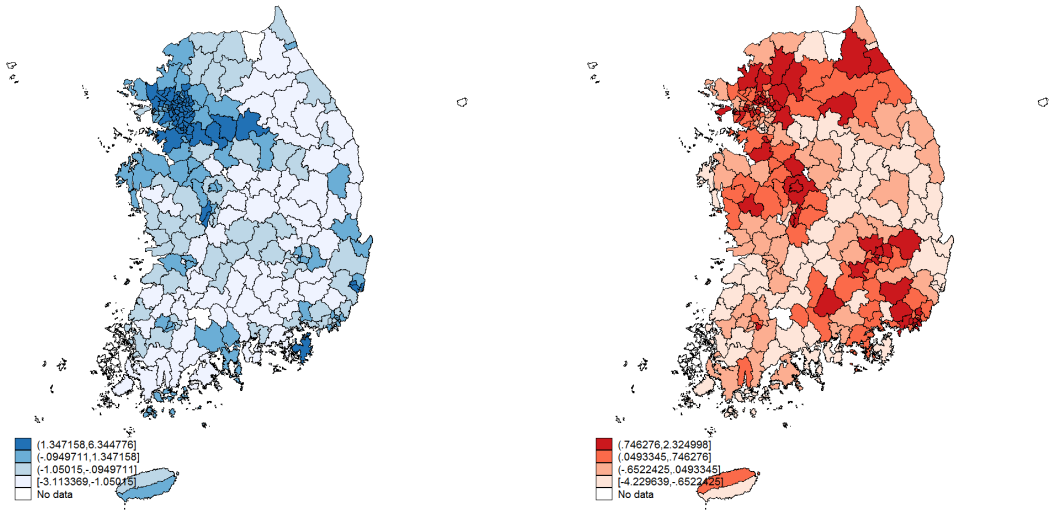
		전체	34세 이하, 대학 졸업자	19~33세, 고교 졸업자
직장 소재지 (기준 : 수도권)	대전/세종/충북	-0.054**	-0.066**	-0.011
		(-10.00)	(-6.97)	(-0.56)
	호남권	-0.077**	-0.120**	-0.004
		(-16.68)	(-13.55)	(-0.22)
	영남권	-0.034**	-0.077**	0.045**
		(-9.94)	(-12.62)	(3.71)
	강원/제주	-0.081**	-0.108**	-0.061**
		(-13.59)	(-8.83)	(-2.82)
	충남	-0.004	-0.045**	0.100**
		(-0.75)	(-3.94)	(5.27)
관측수		92,143	15,990	3,865
Adj. R^2		0.4837	0.3329	0.2916

자료 : 홍성효 외(2020)
주 : 성, 연령과 이의 자승, 학력, 대학 계열, 고교유형, 산업, 직업, 시도 더미가 설명변수로 포함되었음.

3) 기업경영환경과 정주환경

지역 내 일자리 혹은 지역노동시장의 경쟁력은 단순히 근로여건의 만족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지역의 기업경영환경과 정주환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남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지표 혹은 지수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Gabriel and Rosenthal(2004)은 미국을 대상으로 기업경영환경과 정주환경 각각에 대한 지수를 추정한다. 이들은 먼저 근로자의 특성이 통제된 지역별 평균 임금을 추정하고, 토지의 특성이 통제된 지역별 평균 지대를 추정한다. 기업경영환경이 좋은 지역에 대해 기업들은 추가적 생산비용-즉, 보다 높은 임금과 지대-을 지불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평균 임금과 평균 지대의 합으로 해당 지역의 기업경영환경지수가 측정된다. 반면, 정주환경이 좋은 지역에 대해 근로자들은 임금을 희생하거나 주거비 웃돈(premium)을 지불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평균 지대에서 평균 임금을 뺀 수치가 해당 지역의 정주환경지수로 정의된다.

<그림 1-11> 기업경영환경과 정주환경에 대한 추정결과



a) 기업경영환경 b) 정주환경

자료 : Im and Hong(2019)

Im and Hong(2019)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고용통계 2008년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50만 필지 2008년 자료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통해 특성이 통제된 시군구별 평균 임금과 평균 지가를 추정한 후에 이 둘을 이용해 시군구별 기업경영환경지수와 정주환경지수를 산출한다. 이들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경영환경지수는 주로 수도권에서 높으나 정주환경지수는 대도시를 포함하여 일부 군지역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4] 충남의 일부 군지역이 기업경영환경에서 하위 20위에 포함되어 충남의 시군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4) 이들의 추가적인 분석에서, 대졸자 혹은 젊은 세대의 비중과 인구밀도는 기업경영환경과 정주환경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반면에 고령자의 비중은 그 반대로 나타난다. 또한, 신생기업이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경우 기업경영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보다 많이 입지하는 반면에 정주환경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본사의 경우 입지로서 기업경영환경과 정주환경 모두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제조업체는 기업경영환경이 오히려 낮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결론 및 정책 제언

1) 분석결과 요약

충남의 근로여건 만족도는 2017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의 경우 시점 간 등락의 변화를 보이며, 지역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근로여건 항목별로 집단 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거주지역, 연령대, 성별, 혼인상태, 학력, 직업분류, 종사상 지위, 전일제 여부 등 개인의 속성이나 직업의 구분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이나 교육서비스에 속하는 경우 대부분의 근로여건에서 만족도가 높지만, 임금/소득측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에 종사하는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시간이나 근무환경측면에서는 교육서비스에 속하는 경우가 높으며, 고용 안정성이나 일/직장의 장래성측면에서는 공공행정에서 근무하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운수업 및 창고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다.

지역노동시장으로서 충남은 일반적인 고용지표에서 인근 지역들에 비해 다소 우수하나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대졸자 대상 분석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충남은 수도권에 비해 경쟁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내 일자리의 경쟁력은 해당 일자리의 근로여건 혹은 이의 만족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일-여가의 균형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근로자의 정주환경 역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노동의 수요측면인 기업의 경영환경 역시 중요시 되고 있다. 비록 과거의 분석결과이기는 하나 충남은 기업경영환경과 정주환경 모두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지역노동 관련 정책이 지역 내 일자리의 양과 질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경영환경과 정주환경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정책 제언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19와 같이 대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지역 내 일자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소득의 증대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추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근로여건의 개선을 통한 인력의 지역 내 유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충남의 근로여건에 대한 대외적 경쟁력과 도내 지역 간 격차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금

이나 일자리 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 이외에 근로여건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 지표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남사회조사에 의한 횡단면적 그리고 시계열적 결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충청남도(2017-2021). 충남 사회조사

한국고용정보원(2018, 2019). 대졸자이동경로조사

홍성효·권형둔·김미혜·이정미·정세은(2020).「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국가교육회의 정책연구보고서

Gabriel, S., and Rosenthal, S., (2004). "Quality of the business environment versus the quality of life: Do firms and households like the same cit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1), pp. 438-444

Im, J., and Hong, S., (2019). "Local amenities and geographic disparity in population and industry distribution in Korea," *International Symposia in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26, pp. 53-68

소득과 소비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2.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요 약

홍 성 효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shong11@kongju.ac.kr

- 충남은 2000년대 초반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이후에는 상당히 둔화된 실정이며, 이는 지역 내 생산을 통한 지역소득이 지역에 재투자 혹은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된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음
- 충남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광역시도 가운데 11위로 높지 않으며, 도내 시군 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충남사회조사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민 가운데 28.5%가 지난 1년동안 역외 소비의 경험이 있으며 거주하는 시군의 인근 대도시에서 이러한 역외 소비가 주로 이뤄짐
-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외 소비와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매년 측정하여 모니터링하며 이를 관련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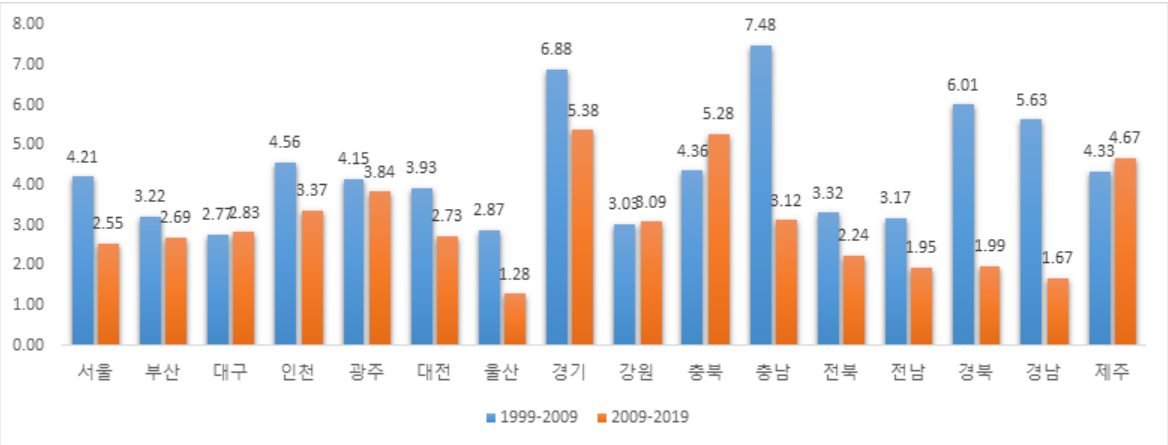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충남은 수도권 인접의 지리적 이점(advantage) 등으로 과거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였다. 일례로, 1999~2009년의 기간에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7.48%로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영향으로 2009-2019년의 기간에는 3.12%의 연평균 성장률로 경제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

<그림 2-1> 지역내총생산의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각 연도
주 : 실질 가격 기준

이러한 경제적 성장의 둔화와 더불어 삶에 대한 만족 또한 최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관적 만족에 있어 충남은 2019년 기준 전국의 광역시도들 가운데 13위로 낮은 수준이며, 인근 세종(1위), 대전(3위), 충북(11위), 전북(12위) 등과 비교해도 낮은 편에 해당한다.[1)]

1) 물론, 지역 간 주관적 만족감의 수치적 차이는 크지 않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2018년의 주관적 만족감 역시 충남은 3.301로 16위에 불과하여 충남도민의 낮은 주관적 만족감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표 2-1> 삶에 대한 만족의 지역 간 비교 : 주관적 만족과 생활여건

(단위 : 점)

구분	주관적 만족감		생활여건 전반		생활여건 의료		생활여건 사회보장		생활여건 문화여가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서울	3.330	9	3.395	14	3.661	9	3.646	13	3.450	9
부산	3.214	17	3.492	7	3.615	16	3.634	15	3.405	14
대구	3.246	16	3.523	4	3.714	3	3.750	3	3.543	4
인천	3.416	2	3.439	10	3.683	5	3.669	10	3.457	8
광주	3.373	5	3.612	3	3.676	6	3.741	4	3.561	3
대전	3.382	3	3.393	15	3.644	13	3.647	12	3.420	13
울산	3.345	7	3.298	17	3.570	17	3.564	17	3.361	17
세종	3.623	1	3.496	5	3.694	4	3.727	6	3.522	5
경기	3.333	8	3.396	13	3.635	14	3.618	16	3.402	15
강원	3.313	14	3.493	6	3.669	7	3.678	8	3.511	6
충북	3.325	11	3.472	9	3.656	11	3.697	7	3.449	10
충남	3.319	13	3.428	11	3.649	12	3.641	14	3.439	11
전북	3.324	12	3.640	2	3.772	2	3.824	2	3.606	2
전남	3.347	6	3.683	1	3.813	1	3.854	1	3.639	1
경북	3.279	15	3.427	12	3.622	15	3.656	11	3.421	12
경남	3.326	10	3.351	16	3.660	10	3.676	9	3.401	16
제주	3.382	4	3.486	8	3.661	8	3.731	5	3.508	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9)

주관적 만족감과 함께 생활여건 만족감 역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생활여건에서 충남의 만족감은 3.428로 광역시도들 가운데 11위에 그치며, 이를 세분화하면 의료부문에서 12위, 사회보장부문에서 14위, 문화여가부문에서 11위로 나타난다.

OECD의 Better Life Index는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소득과 부, 일자리, 주택여건과 주택의 질, 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숙련, 사회적 연결, 시민참여,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행복 등을 삶을 구성하는 영역들로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은 개인적 관계에서 5위, 신뢰에서 11위, 소득에서 5위, 소비생활에서 11위, 전반적인 일자리에서 10위, 건강에서 7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서 6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서 4위, 환경에서 7위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이들 가운데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5위인 반면에 소비생활 만족도가 11위에 불과한 것은 충남도내 소비를 위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소비자로서 충남도민의 소비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 자체도 문제이나 이러한 낮은 만족도가 자칫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를 증가시켜 도내 소비가 감소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표 2-2> 삶에 대한 만족의 지역 간 비교 : 소득과 소비생활

(단위 : 점)

구분	개인적 관계 만족		신뢰		소득		소비생활 만족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서울	3.580	14	3.463	15	2.575	15	2.743	16	3.158	14
부산	3.474	16	3.479	10	2.556	17	2.686	17	3.162	12
대구	3.489	15	3.487	9	2.587	14	2.765	12	3.126	17
인천	3.645	8	3.449	17	2.622	9	2.803	5	3.147	15
광주	3.583	13	3.488	8	2.624	8	2.753	14	3.160	13
대전	3.474	17	3.469	14	2.608	10	2.773	10	3.186	9
울산	3.662	6	3.508	7	2.569	16	2.774	7	3.133	16
세종	3.697	3	3.511	6	2.751	1	2.977	1	3.380	1
경기	3.604	10	3.456	16	2.604	11	2.746	15	3.179	11
강원	3.708	1	3.568	3	2.674	3	2.820	2	3.354	2
충북	3.644	9	3.533	5	2.603	12	2.774	8	3.200	7
충남	3.693	5	3.478	11	2.647	5	2.771	11	3.186	10
전북	3.597	12	3.537	4	2.640	6	2.812	3	3.196	8
전남	3.697	4	3.622	1	2.698	2	2.806	4	3.310	4
경북	3.707	2	3.476	12	2.600	13	2.760	13	3.203	6
경남	3.649	7	3.471	13	2.634	7	2.774	9	3.205	5
제주	3.604	11	3.614	2	2.654	4	2.800	6	3.331	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9)

박경(2011)은 분배 지역소득 통계를 활용해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의 괴리 및 소득의 지역 간 유출을 산출한다.[2]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대비 총소득의 비율에서 충남은 62.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이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경기도에서 100%를 넘는 것과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3] 또한,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율에 있어 전국적으로 지역내총생산 증가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충남의 경우 지역내총생산 대비 민간소비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2) 서선애·김은지(2020) 역시 소득 역외 유출 규모를 산출하며, 2019년 자료에서도 충남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들은 온라인쇼핑이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야기하는 원인이 됨을 제시한다. 정재준(2018)은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내총생산의 역외 유출을 산출하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80%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음을 제시한다.

3) 이에 대한 원인의 하나로 충남의 분공장(branch plant) 경제구조가 지적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충남이 기업유치와 외생적 성장전략 기조에서 탈피하여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된다. 분공장은 연구개발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며(Morgan, 1991; Rees, 1979; Vernon, 1966), 일자리의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며(Sonn and Lee, 2012),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Munday, 2000; MacKinnon and Phelps, 2001). 또한, 지역산업과의 연계(Turok, 1993) 혹은 파급효과(Harris and Robinson, 2004)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성효·임준홍(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법인의 분공장은 1,859개소에 이르며 수도권에 소재한 분공장의 본사는 주로 수도권 내 타 광역시도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충청권에 소재한 분공장의 본사는 주로 수도권에 입지하여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 비율에서 충남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임을 함축한다. 다만, 분공장 경제구조가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일례로, 임금, 부가가치, 생산이 분공장에서 오히려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하락함을 제시한다. 2000년대 초반 충남 지역경제 규모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의 심화와 이에 따른 민간소비의 상대적 감소는 충남의 경제성장에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규모의 확대가 지역 내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선순환적인 지역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실증적으로, 이종하·이상호(2021)는 역외로의 소득유출이 생산과 분배소득 간 갭을 가장 많이 설명하며 이는 서비스업 비중이 강화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3> 삶에 대한 만족의 지역 간 비교 : 의료서비스, 사회안전, 가족관계

(단위 : 점)

구분	건강 평가		의료서비스 만족		전반적인 사회 안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		환경 만족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서울	3.441	4	3.624	8	2.944	5	3.721	15	3.126	14
부산	3.428	6	3.650	7	3.001	1	3.642	16	3.267	10
대구	3.443	3	3.615	9	2.662	17	3.538	17	3.014	16
인천	3.366	12	3.540	14	2.783	15	3.739	14	3.003	17
광주	3.453	2	3.658	5	2.730	16	3.749	13	3.116	15
대전	3.436	5	3.591	10	2.870	10	3.821	6	3.199	12
울산	3.414	9	3.516	16	2.922	7	3.761	11	3.171	13
세종	3.544	1	3.509	17	2.968	2	3.910	1	3.408	5
경기	3.416	8	3.545	13	2.820	13	3.751	12	3.233	11
강원	3.355	14	3.680	4	2.903	8	3.894	3	3.669	1
충북	3.398	10	3.693	3	2.850	12	3.844	5	3.319	8
충남	3.416	7	3.742	1	2.929	6	3.863	4	3.362	7
전북	3.340	15	3.572	11	2.965	3	3.805	7	3.316	9
전남	3.309	17	3.706	2	2.964	4	3.895	2	3.582	2
경북	3.366	13	3.654	6	2.798	14	3.773	9	3.381	6
경남	3.370	11	3.566	12	2.857	11	3.772	10	3.474	4
제주	3.321	16	3.520	15	2.880	9	3.799	8	3.516	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8)

이와 관련하여, 김종일(2008)은 생산과 소비에서의 도시와 비도시 간 비교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비도시 지역으로 통근하는 경우가 보다 많아지면서 역외 소비지출이 증가함을 제시한다.[4] 이는 생산측면에서 분공장 경제를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비생활 여건을 포함하여 근로자 혹은 그 가족들의 정주여건 역시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함을 함축한다.

4) 충남의 금산군과 대전시 간 관계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해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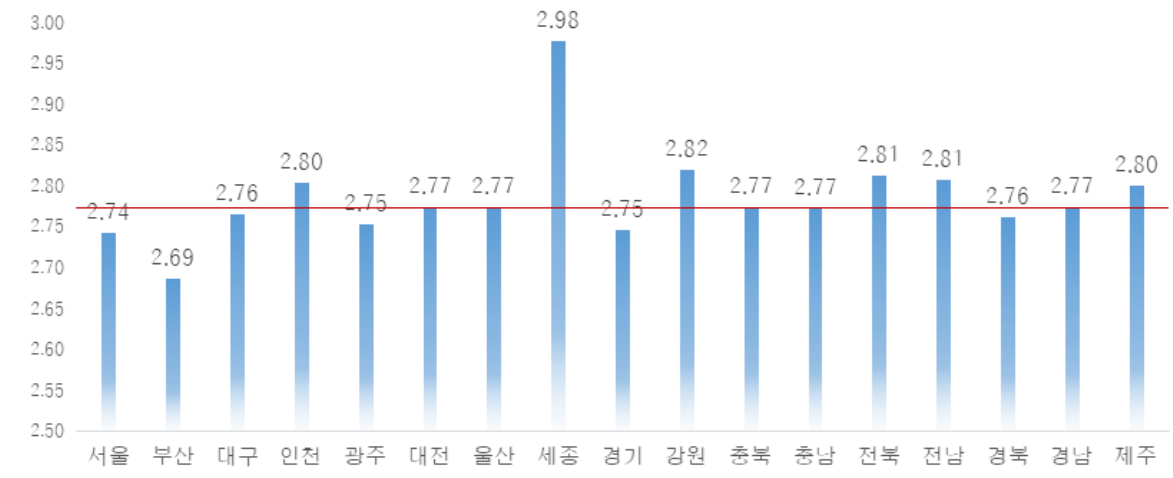
2. 충남도민의 소비생활 만족도

1) 광역시도 간 비교

통계청의 사회조사 2019년 자료를 이용한 광역시도별 소비생활 만족도에 의하면, 충남은 5점 만점에서 평균 2.77점으로 세종(2.98점), 강원(2.82점), 전북과 전남(2.81점), 인천과 제주(2.80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2-2>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점)



자료 : 통계청,「사회조사」, (2019)
주 : 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

2) 도내 지역 간 비교

충남도의 충남사회조사에 의하면, 5점 척도의 소비생활 만족도에서 4점 이상의 '만족'을 나타내는 비중은 충남 전체적으로 2019년에 19.5%에서 2021년에 21.2%로 상승하였다. 권역별로는 서해안권에서만 22.8%에서 19.5%로 감소하였을 뿐 나머지 권역들에서는 모두 상승하였다. 한편, 정주여건 가운데 하나인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만족을 나타내는 비중이 충남 전체적으로 2017년 25.8%에서 2019년 27.8%, 그리고 2021년 33.6%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개별 권역에 있어서도 서해안권을 제외하면, 충남 전체와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 서해안권의 경우 2017년에 28.3%에서 2019년에 26.7%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 30.8%로 상승하였다.

<표 2-4> 표 2 소비생활 만족도와 쇼핑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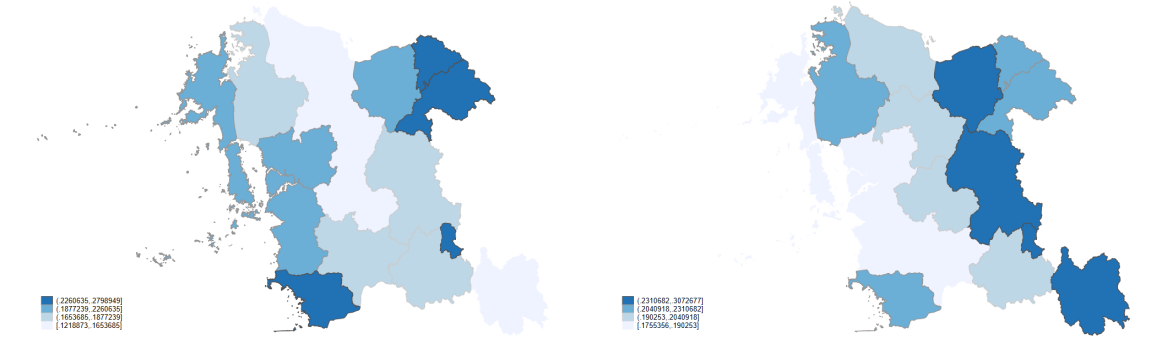
(단위 : %)

지역	소비생활 만족도		쇼핑시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이용에 대한 만족도		
	2019	2021	2017	2019	2021
충남 전체	19.5	21.2	25.8	27.8	33.6
북부권	19.7	21.6	28.6	30.4	34.9
서해안권	22.8	19.5	28.3	26.7	30.8
내륙권	18.2	22.0	19.3	23.4	30.9
금강권	17.8	20.7	27.5	31.1	38.1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7, 2019, 2021
주 : 북부권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를, 서해안권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을, 내륙권은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을, 그리고 금강권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을 포함함. 소비생활 만족도는 5점 척도(1 매우 낮음, . . .,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을 나타냄. 쇼핑시설 만족도의 경우 2017년과 2019년은 0~10점의 11점 척도에서 7점 이상의 비중이고, 2021년은 5점 척도 (1 매우 낮음, . . .,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을 나타냄

시군별 소비생활 만족도의 경우 2019년에 천안시, 서천군, 계룡시에서 상대적으로 만족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에 당진시, 예산군, 청양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2021년의 경우 아산시, 공주시, 금산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보령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3> 충남 시군별 소비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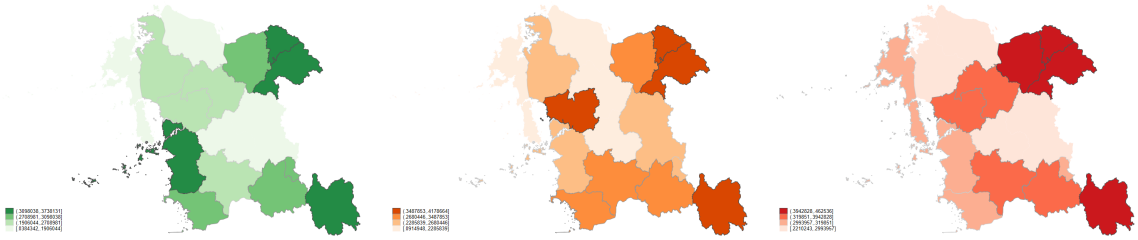


a. 2019년　　b. 2021년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9, 2021
주 : 5점 척도(1 매우 낮음, . . .,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

시군별 쇼핑시설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의 2017-2021년에 걸친 변화를 살펴보면, 천안시와 금산군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태안군은 최근에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만족하는 비중은 당진시, 공주시, 청양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계룡시 등의 순으로 낮았고, 금산군,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논산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2-4> 충남 시군별 쇼핑시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이용에 대한 만족도



a. 2017년　　b. 2019년　　c.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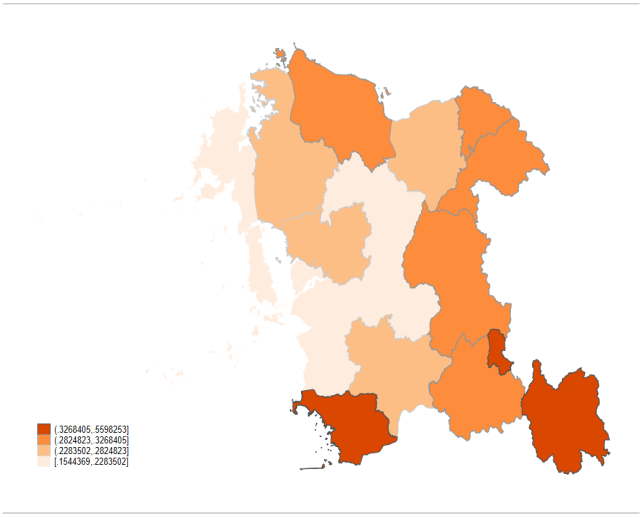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17, 2019, 2021
주 : 2017년과 2019년은 0~10점의 11점 척도에서 7점 이상의 비중이고, 2021년은 5점 척도
(1 매우 낮음, . . ., 5 매우 높음)에서 4점 혹은 5점으로 응답한 경우의 비중

결국, 충남도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며(11위) 이는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를 증가시켜 지역경제의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도내 시군 간에도 소비생활 만족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군별로 역외 소비의 정도가 상이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3.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현황

충남도민 전체적으로 28.5%가 역외 소비의 경험이 있으며, 권역별로는 북부권 28.6%, 서해안권 25.0%, 내륙권 28.3%, 금강권 32.1%로 나타난다. 시군별로는 계룡시에서 56.0%로 가장 높고, 금산군 40.6%, 서천군 34.5%, 천안시 32.7%, 논산시 31.9%, 공주시 31.5%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앞에서, 소비생활 만족도와 쇼핑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이들 지역에서 대체로 높았음을 상기할 때,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하면 도내 지역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지역 내 소비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에 기인하지 않고 역외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기인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충남도의 지역 내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함의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림 2-5> 역외 소비 경험의 비중(%)



시군	비중(%)
천안시	32.7
공주시	31.5
보령시	22.1
아산시	26.7
서산시	23.6
논산시	31.9
계룡시	56.0
당진시	29.8
금산군	40.6
부여군	23.9
서천군	34.5
청양군	15.4
홍성군	24.1
예산군	18.6
태안군	17.6

역외 소비 지역별 주요 소비 품목을 살펴보면, 충남도민이 수도권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은 의류 및 잡화(34.9%), 식료품(17.8%), 문화/여가서비스(12.7%), 외식서비스(12.6%) 등에 해당하고, 대전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의류 및 잡화(29.8%)와 식료품(26.9%)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의료·보건서비스(15.4%) 역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세종, 충북, 그리고 전북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은 공통적으로 식료품이 가장 높으며, 특히 세종의 경우 55.8%로 매우 높다.

<표 2-5> 표 3 역외 소비 지역별 주요 소비 품목의 비중

(단위 : %)

주요 소비 품목	수도권	대전	세종	충북	전북
식료품	17.8	26.9	55.8	34.0	38.7
의류 및 잡화(정장, 신발, 가방 등)	34.9	29.8	18.0	8.5	25.0
가정용품(가구, 침구, 주방용품 등)	3.4	3.9	2.6	0.7	3.2
미용용품(화장품, 헤어/네일/피부용품 등)	0.9	1.0	0.4	0.7	0.8
위생용품(손소독제, 마스크 등)	0.6	0.2	0.0	0.0	0.0
가전제품(가전, 컴퓨터 등)	2.1	2.6	0.9	0.0	1.4
건강용품(영양제, 건강기기 등)	1.5	0.7	0.2	0.7	0.2
외식서비스(한식, 양식, 카페 등)	12.6	10.1	11.1	20.6	13.2
문화/여가서비스	12.7	7.2	6.0	29.1	6.7
교육서비스	0.7	0.7	0.2	0.7	0.8
의료·보건서비스	11.1	15.4	3.6	4.3	9.5
이미용 및 뷰티서비스(미용실, 피부관리 등)	0.3	0.6	0.2	0.7	0.2
자동차서비스	1.0	0.8	1.1	0.0	0.6
기타	0.7	0.1	0.0	0.0	0.0

역외 소비 지역별 역외 소비의 주된 이유는 수도권, 대전, 세종, 전북의 경우 공통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서'로 나타나는 반면에 충북의 경우에는 '주요 활동지(근무지, 학교 등)가 다른 곳에 있어서'로 나타나 지역별로 다소 상이함을 볼 수 있다.

<표 2-6> 역외 소비 지역별 주된 이유의 비중

(단위 : %)

주된 이유	수도권	대전	세종	충북	전북
주요 활동지(근무지, 학교 등)가 다른 곳에 있어서	12.3	8.6	8.8	24.1	7.7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서	39.1	46.4	48.7	17.0	40.6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보다 좋아서	13.2	14.7	10.9	6.4	5.0
가격이 충청남도 지역보다 저렴해서	9.5	6.6	6.6	9.9	7.3
거주지 인근에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어서	17.3	20.7	19.9	14.2	26.3
기타	8.6	3.1	5.1	28.4	13.1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9.5%가 역외 소비의 경험이 있으며, 이들이 주로 소비하는 지역은 대전(39.4%), 서울(26.4%), 경기(10.2%), 전북(10.1%) 등으로 분포하고, 주요 소비 품목은 의료·보건서비스(33.2%), 식료품(27.0%), 의류 및 잡화(18.0%) 등에 해당하여,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는 다르며 이로 인해 회귀분석을 통해 어느 집단에서 역외 소비의 비중이 높고, 어느 지역에서 역외 소비가 빈번한지를 파악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더불어 역외 소비를 통한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4. 충남도민의 역외 소비 결정요인

1) 분석모형

충남도민 가운데 어느 집단에서 역외 소비가 빈번하고 어느 지역에서 주로 소비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j = \alpha + X_j\beta + \epsilon_j$$

여기서, X_j는 충남사회조사 2021년 자료에 포함된 응답자 j의 거주지(개별 시군, 읍면동 여부), 연령, 성별, 혼인상태, 학력, 가구소득, 소비지출액, 1인 가구 여부, 도내 거주기간, 지역 내 쇼핑시설에 대한 불만족 여부 등을 포함하는 매트릭스(matrix)에 해당하며, ϵ_j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y_j는 이항로짓모형에서 역외 소비 여부를 나타내거나 다항로짓모형에서 소비 지역을 나타낸다.

2) 분석결과

(1) 역외 소비 여부

역외 소비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젊거나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이거나 학력수준이 높거나 가구소득이 많거나 소비지출액이 크거나 1인 가구이거나 도내 거주기간이 짧거나 지역 내 쇼핑시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역외 소비의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15개 시군들 가운데 금산군, 서천군, 계룡시, 논산시, 공주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천안시 거주 도민에 비해 역외 소비의 확률이 보다 높고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에 거주하는 도민은 상대적으로 그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는 대전시에 인접하고, 서천군은 군산시에 인접하며, 공주시는 세종시와 대전시에 인접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병원 등과 같이 고정비용의 존재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큰 인구규모를 요구하는 이러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대도시에 해당하는 이들 역외 지역들에서만 공급되기 때문에 도시들 간 위계가 나타난다. 중심지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보다 작은 도시들 혹은 동일한 규모의 도시가 아닌 보다 큰 도시들로 통행하는 쇼핑 경로가 보다 일반적이다.

<표 2-7> 역외 소비 경험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추정결과

	추정계수	강건한(robust) t-값	한계효과
시군 (기준 : 천안시)			
공주시	0.4945**	(6.41)	0.074
보령시	0.0191	(0.22)	0.003
아산시	-0.4021**	(-5.81)	-0.061
서산시	-0.3289**	(-4.42)	-0.050
논산시	0.6891**	(8.73)	0.104
계룡시	0.8395**	(9.32)	0.126
당진시	-0.1481*	(-1.96)	-0.022
금산군	1.4535**	(16.60)	0.219
부여군	0.3771**	(4.14)	0.057
서천군	1.1833**	(14.16)	0.178
청양군	-0.1661	(-1.59)	-0.025
홍성군	-0.1274	(-1.49)	-0.019
예산군	-0.1525+	(-1.65)	-0.023
태안군	-0.0762	(-0.74)	-0.011
동읍면 (기준 : 동)			
읍	-0.0877+	(-1.74)	-0.013
면	-0.0604	(-1.28)	-0.009
연령대 (기준 : 15~19세)			
20~29세	2.4073**	(16.87)	0.362
30~39세	2.1757**	(14.75)	0.328
40~49세	1.9406**	(13.24)	0.292
50~59세	1.5602**	(10.49)	0.235
60세 이상	1.2228**	(8.02)	0.184
남성	-0.2053**	(-6.03)	-0.031
혼인상태 (기준 : 미혼)			
배우자 있음	0.3362**	(5.08)	0.051
사별	-0.4713**	(-4.46)	-0.071
이혼	-0.0381	(-0.41)	-0.006

	추정계수	강건한(robust) t-값	한계효과
학력 기준 : 초졸 이하)			
중졸 이하	0.3785**	(4.69)	0.057
고졸 이하	0.9282**	(13.10)	0.140
대학 이상	1.4716**	(19.64)	0.222
가구소득 (기준 :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0777	(0.64)	0.012
100~200만원 미만	0.2294+	(1.78)	0.035
200~300만원 미만	0.4270**	(3.25)	0.064
300~400만원 미만	0.4611**	(3.44)	0.069
400~500만원 미만	0.6508**	(4.70)	0.098
500~600만원 미만	0.6086**	(4.25)	0.092
600~700만원 미만	0.6210**	(4.11)	0.093
700~800만원 미만	0.9996**	(6.31)	0.150
800만원 이상	1.0363**	(6.85)	0.156
소비지출액 (기준 :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1160	(1.09)	0.017
100~200만원 미만	0.3018**	(2.63)	0.045
200~300만원 미만	0.4043**	(3.37)	0.061
300~400만원 미만	0.4960**	(4.00)	0.075
400~500만원 미만	0.5793**	(4.38)	0.087
500~600만원 미만	0.7166**	(4.84)	0.108
600~700만원 미만	0.5241**	(3.15)	0.079
700~800만원 미만	0.6943**	(3.19)	0.105
800만원 이상	0.7008**	(3.88)	0.105
1인 가구	0.4419**	(7.86)	0.067
도내 거주기간 (기준 : 1년 미만)			
1~2년 이하	-0.3230*	(-2.24)	-0.049
2~5년 이하	-0.4051**	(-3.62)	-0.061
5~10년 이하	-0.6010**	(-5.67)	-0.090
10~20년 이하	-0.6973**	(-6.76)	-0.105
20년 초과	-0.9352**	(-9.54)	-0.141
쇼핑시설에 불만족	0.5932**	(16.29)	0.089
상수항	-4.0042**	(-19.54)	
관측수	24,963		
Pseudo R-squared	0.230		
Log-L	-11474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주 :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2) 소비 지역

소비 지역 선택에 대한 다중로짓모형은 회귀식 (1)에서 종속변수인 y_j가 0에서 8까지의 값을 가지며, 이는 주요 소비 지역을 나타낸다. 0은 도내 소비를 나타내고 1~8까지는 역외 소비 지역들인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그리고 그 외 지역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태안군에 거주하는 경우 도내 소비에 비해 서울에서의 소비의 가능성이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당진시나 서산시에 거주하는 경우 도내에서의 소비에 비해 인천에서 소비할 확률이 도내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대적 확률은 소비 지역이 경기인 경우 천안시, 대전인 경우 금산군,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공주시, 세종인 경우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충북인 경우 천안시, 그리고 전북인 경우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도내 개별 시군에 대해 소비여건과 관련한 해당 외지-이를테면, 공주시와 세종시-와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표 2-8> 역외 소비시 지역(도내 소비 대비)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그 외
시군 (기준 : 천안시)								
공주시	-1.23**	-0.41	-1.77**	2.26**	3.69**	-1.25*	-0.91+	-0.91**
	(-6.63)	(-0.89)	(-7.47)	(13.82)	(15.70)	(-2.33)	(-1.69)	(-2.95)
보령시	-0.06	0.25	-0.92**	1.42**	0.44	-0.94*	1.36**	-0.36
	(-0.49)	(0.67)	(-5.37)	(7.82)	(1.20)	(-2.12)	(5.65)	(-1.45)
아산시	-0.37**	0.29	-0.57**	-0.08	-0.44	-0.84**	-0.50+	-0.30+
	(-3.66)	(1.05)	(-5.56)	(-0.43)	(-1.36)	(-2.99)	(-1.75)	(-1.92)
서산시	0.10	1.05**	-1.16**	0.10	-0.78+	-1.40**	-0.56+	-0.75**
	(1.05)	(4.13)	(-8.57)	(0.49)	(-1.88)	(-3.66)	(-1.71)	(-3.51)
논산시	-0.57**	-0.92	-1.60**	3.17**	1.51**	-1.76*	1.32**	-0.33
	(-3.50)	(-1.51)	(-6.53)	(20.21)	(5.13)	(-2.44)	(5.20)	(-1.19)
계룡시	-0.68**	-0.91	-1.32**	3.45**	0.89*	-0.42	0.04	0.41+
	(-3.76)	(-1.45)	(-6.33)	(21.20)	(2.55)	(-1.06)	(0.11)	(1.84)
당진시	0.07	1.25**	-0.57**	-0.35	-0.42	-0.46	-0.50	-0.25
	(0.72)	(5.10)	(-4.89)	(-1.49)	(-1.11)	(-1.57)	(-1.50)	(-1.38)
금산군	-1.16**	-1.55	-1.42**	4.27**	0.07	-0.26	0.28	0.02
	(-4.12)	(-1.50)	(-5.14)	(25.72)	(0.11)	(-0.46)	(0.57)	(0.07)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그 외
부여군	-0.64**	-1.33+	-1.69**	2.71**	1.68**	-0.75	1.53**	0.12
	(-3.47)	(-1.79)	(-6.73)	(15.72)	(5.50)	(-1.34)	(5.49)	(0.41)
서천군	-0.88**	-1.60	-2.17**	0.79**	0.08	-1.58	4.88**	-0.71
	(-3.65)	(-1.56)	(-5.53)	(2.77)	(0.13)	(-1.51)	(21.46)	(-1.35)
청양군	-0.41*	0.10	-1.38**	1.53**	1.81**	-1.29+	-0.08	-0.66
	(-2.28)	(0.23)	(-6.07)	(7.58)	(6.09)	(-1.74)	(-0.17)	(-1.64)
홍성군	0.09	0.24	-1.08**	1.36**	0.39	-1.64**	-0.49	-0.34
	(0.74)	(0.76)	(-7.12)	(7.62)	(1.17)	(-2.66)	(-1.24)	(-1.45)
예산군	0.05	0.87**	-0.88**	0.97**	-0.70	-0.68	-0.10	-0.53+
	(0.40)	(2.92)	(-5.53)	(4.67)	(-1.23)	(-1.45)	(-0.24)	(-1.77)
태안군	0.35*	0.96**	-0.88**	0.18	-1.64	-2.11*	-0.08	-0.22
	(2.49)	(3.16)	(-4.94)	(0.60)	(-1.59)	(-2.03)	(-0.18)	(-0.73)
동읍면 (기준 : 동)								
읍	-0.22**	0.27	0.23**	-0.23*	-0.13	-0.52*	-0.21	-0.36*
	(-2.71)	(1.52)	(2.61)	(-2.55)	(-0.71)	(-2.11)	(-1.11)	(-2.53)
면	-0.16*	0.06	0.38**	-0.14+	-0.01	-0.18	-0.22	-0.79**
	(-2.12)	(0.35)	(4.18)	(-1.74)	(-0.10)	(-0.71)	(-1.17)	(-5.12)
연령대 (기준 : 15~19세)								
20~29세	2.05**	2.44**	2.51**	2.25**	3.84**	2.98**	3.26**	2.60**
	(9.14)	(3.22)	(6.55)	(9.79)	(3.81)	(2.82)	(5.39)	(4.26)
30~39세	1.61**	1.90*	2.55**	2.23**	3.74**	2.64*	2.54**	2.62**
	(6.84)	(2.48)	(6.56)	(9.35)	(3.68)	(2.44)	(4.07)	(4.26)
40~49세	1.34**	1.91*	2.17**	1.91**	3.34**	1.94+	2.96**	2.48**
	(5.66)	(2.49)	(5.59)	(8.11)	(3.27)	(1.81)	(4.78)	(4.03)
50~59세	1.27**	1.50+	1.73**	1.44**	2.36*	1.75	2.25**	2.12**
	(5.28)	(1.93)	(4.41)	(6.01)	(2.30)	(1.62)	(3.59)	(3.41)
60세 이상	1.32**	1.49+	1.27**	1.10**	1.87+	1.22	1.08+	1.45*
	(5.36)	(1.91)	(3.16)	(4.55)	(1.82)	(1.10)	(1.69)	(2.24)
남성	-0.36**	-0.02	-0.08	-0.29**	-0.12	-0.09	-0.06	0.01
	(-6.29)	(-0.17)	(-1.23)	(-5.20)	(-1.13)	(-0.50)	(-0.59)	(0.08)
혼인상태 (기준 : 미혼)								
배우자 있음	-0.04	0.59*	0.32**	0.39**	1.04**	0.71*	0.96**	0.44*
	(-0.36)	(2.44)	(2.67)	(3.50)	(4.49)	(2.19)	(4.46)	(2.52)
사별	-0.51**	-0.50	-0.61*	-0.38*	0.49	-0.13	-0.21	-1.53*
	(-2.82)	(-1.01)	(-2.35)	(-2.20)	(1.28)	(-0.15)	(-0.60)	(-2.47)
이혼	-0.16	0.27	0.09	-0.16	0.30	0.44	0.37	-0.16
	(-1.09)	(0.77)	(0.51)	(-0.98)	(0.87)	(0.93)	(1.30)	(-0.59)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그 외
학력 (기준 : 초졸 이하)								
중졸 이하	0.46**	0.25	0.39*	0.30*	0.60*	0.78	0.44*	-0.79
	(2.77)	(0.68)	(1.96)	(2.28)	(1.97)	(1.05)	(2.03)	(-1.47)
고졸 이하	1.07**	0.90**	0.81**	0.82**	0.83**	1.41*	0.84**	0.92**
	(7.38)	(2.99)	(4.55)	(7.39)	(3.04)	(2.09)	(4.31)	(2.62)
대학 이상	1.86**	0.86**	1.18**	1.48**	1.36**	1.76**	1.33**	1.30**
	(12.47)	(2.68)	(6.43)	(12.52)	(4.82)	(2.59)	(6.22)	(3.63)
가구소득 (기준 :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11	0.03	0.10	0.28	0.18	0.32	0.07	0.20
	(-0.50)	(0.05)	(0.39)	(1.32)	(0.35)	(0.38)	(0.18)	(0.47)
100~200만원 미만	0.35	0.15	0.00	0.44*	0.49	0.92	-0.37	0.29
	(1.59)	(0.30)	(0.00)	(1.96)	(1.01)	(1.19)	(-0.83)	(0.71)
200~300만원 미만	0.40+	0.33	0.22	0.65**	0.98*	1.29+	-0.08	0.27
	(1.79)	(0.68)	(0.79)	(2.81)	(1.99)	(1.66)	(-0.18)	(0.65)
300~400만원 미만	0.45*	0.42	0.15	0.74**	0.72	0.54	-0.07	0.73+
	(2.02)	(0.87)	(0.54)	(3.16)	(1.46)	(0.68)	(-0.14)	(1.74)
400~500만원 미만	0.63**	0.83+	0.51+	0.71**	0.83+	1.27	0.39	0.86+
	(2.71)	(1.68)	(1.76)	(2.91)	(1.65)	(1.57)	(0.85)	(1.95)
500~600만원 미만	0.53*	0.89+	0.40	0.86**	0.41	0.54	0.10	1.14**
	(2.21)	(1.75)	(1.35)	(3.47)	(0.79)	(0.64)	(0.20)	(2.61)
600~700만원 미만	0.53*	0.55	0.30	0.83**	1.09*	1.21	0.35	1.18**
	(2.12)	(0.98)	(0.96)	(3.17)	(2.05)	(1.44)	(0.69)	(2.58)
700~800만원 미만	1.03**	0.99+	0.78*	1.14**	1.26*	2.18**	0.41	1.25**
	(4.03)	(1.74)	(2.48)	(4.11)	(2.33)	(2.64)	(0.79)	(2.64)
800만원 이상	1.21**	0.43	0.56+	1.22**	1.40**	1.97*	0.40	1.49**
	(4.97)	(0.77)	(1.75)	(4.65)	(2.63)	(2.35)	(0.80)	(3.30)
소비지출액 (기준 :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18	-0.24	-0.11	0.12	0.18	-0.43	0.46	0.03
	(0.91)	(-0.54)	(-0.44)	(0.66)	(0.42)	(-0.73)	(1.35)	(0.09)
100~200만원 미만	0.24	0.12	0.10	0.22	0.30	-0.52	1.29**	0.13
	(1.19)	(0.26)	(0.39)	(1.10)	(0.70)	(-0.91)	(3.39)	(0.36)
200~300만원 미만	0.35+	0.16	0.22	0.36+	0.57	-0.17	1.19**	0.07
	(1.68)	(0.35)	(0.83)	(1.66)	(1.29)	(-0.29)	(3.01)	(0.20)
300~400만원 미만	0.39+	0.29	0.22	0.47*	0.88+	0.22	1.29**	0.14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그 외
	(1.82)	(0.61)	(0.83)	(2.14)	(1.96)	(0.36)	(3.26)	(0.36)
400~500만원 미만	0.71**	-0.43	0.44	0.48*	0.99*	-0.75	1.51**	0.07
	(3.16)	(-0.82)	(1.58)	(2.07)	(2.10)	(-1.10)	(3.58)	(0.19)
500~600만원 미만	0.78**	0.21	0.64*	0.73**	0.38	-0.45	1.42**	0.06
	(3.22)	(0.38)	(2.12)	(2.86)	(0.74)	(-0.60)	(2.81)	(0.13)
600~700만원 미만	0.36	0.17	0.26	0.77**	0.82	-1.03	1.63**	-0.15
	(1.33)	(0.26)	(0.77)	(2.68)	(1.44)	(-1.23)	(3.10)	(-0.30)
700~800만원 미만	0.78*	-13.7**	0.96*	0.50	0.38	0.15	1.00	0.06
	(2.32)	(-26.31)	(2.53)	(1.52)	(0.54)	(0.18)	(1.47)	(0.10)
800만원 이상	0.87**	0.87	0.53	0.52+	0.09	-0.36	1.91**	-0.30
	(3.17)	(1.55)	(1.45)	(1.74)	(0.14)	(-0.42)	(3.89)	(-0.55)
1인 가구	0.46**	0.52**	0.24*	0.29**	0.48**	0.34	0.64**	0.91**
	(5.06)	(2.71)	(2.15)	(3.04)	(2.67)	(1.15)	(3.64)	(5.89)
도내 거주기간 (기준 : 1년 미만)								
1~2년 이하	-0.09	0.20	-0.40+	-0.30	-0.10	0.12	-0.40	-1.25**
	(-0.48)	(0.57)	(-1.72)	(-1.24)	(-0.22)	(0.22)	(-0.88)	(-3.56)
2~5년 이하	-0.13	-0.47	-0.45*	-0.29	-0.50	-0.15	-0.35	-0.85**
	(-0.83)	(-1.55)	(-2.51)	(-1.49)	(-1.33)	(-0.32)	(-1.04)	(-3.73)
5~10년 이하	-0.55**	-0.86**	-0.60**	-0.21	-0.44	-0.77	-0.88**	-0.93**
	(-3.57)	(-2.98)	(-3.55)	(-1.10)	(-1.26)	(-1.63)	(-2.66)	(-4.48)
10~20년 이하	-0.66**	-0.94**	-0.90**	-0.32+	-0.40	-0.17	-0.56+	-1.02**
	(-4.40)	(-3.30)	(-5.39)	(-1.74)	(-1.19)	(-0.40)	(-1.80)	(-5.00)
20년 초과	-0.83**	-1.39**	-1.15**	-0.45**	-0.55+	-1.08*	-0.74*	-1.70**
	(-5.93)	(-5.20)	(-7.26)	(-2.61)	(-1.71)	(-2.46)	(-2.56)	(-8.83)
쇼핑시설에 불만족	0.53**	0.77**	0.67**	0.72**	0.56**	0.22	0.40**	0.51**
	(8.93)	(6.13)	(9.41)	(12.24)	(5.00)	(1.12)	(3.62)	(4.73)
상수항	-4.71**	-7.17**	-4.66**	-7.23**	-10.2**	-7.76**	-8.87**	-6.02**
	(-14.56)	(-7.52)	(-9.42)	(-19.82)	(-8.78)	(-5.62)	(-11.18)	(-8.06)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White-Huber의 강건한(robust) t-값을 나타냄. **, *, 그리고 +는 각각 1%, 5%, 그리고 10%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3) 성향점수매칭

비록 다항로짓모형이 개별 응답자의 속성에서의 차이를 통제하지만, 역외 소비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그러하지 않은 지역 간 성향점수매칭에 의해 지역 간 거주민들을 유사한 속성의 응답자들로 매칭한 후에 지역 간 역외 소비의 가능성을 비교하는 경우 그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서울에서 소비하는 확률은 태안군에 거주하는 경우(8.5%)가 공주시나 금산군에 거주하는 경우(매칭 전 1.6%와 매칭 후 1.1%)에 비해 7.4%p(매칭 후 기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2-9> 서울에서의 소비 확률에 대한 시군 간 차이

매칭 여부	태안군	공주시/금산군	차이	표준오차	t-값
부	0.085	0.016	0.069	0.006	11.03
여	0.085	0.011	0.074	0.011	6.87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대전에서 소비하는 확률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경우(36.7%)가 아산시나 당진시에 거주하는 경우(매칭 전 1.9%와 매칭 후 0.7%)에 비해 36.0%p(매칭 후 기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0> 대전에서의 소비 확률에 대한 시군 간 차이

매칭 여부	금산군	아산시/당진시	차이	표준오차	t-값
부	0.367	0.019	0.348	0.008	42.49
여	0.367	0.007	0.360	0.016	23.16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세종에서 소비하는 확률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경우(15.5%)가 서산시나 태안군에 거주하는 경우(매칭 전 0.3%와 매칭 후 0.3%)에 비해 15.3%p(매칭 후 기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1> 세종에서의 소비 확률에 대한 시군 간 차이

매칭 여부	공주시	서산시/태안군	차이	표준오차	t-값
부	0.155	0.003	0.153	0.007	23.29
여	0.155	0.003	0.153	0.009	16.58

자료 : 충남도청,「충남사회조사」, (2021)

전북에서 소비하는 확률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경우(30.7%)가 공주시와 서산시에 거주하는 경우(매칭 전 0.5%와 매칭 후 0.1%)에 비해 30.6%p(매칭 후 기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2> 전북에서의 소비 확률에 대한 시군 간 차이

매칭 여부	서천군	공주시/서산시	차이	표준오차	t-값
부	0.307	0.005	0.302	0.008	38.66
여	0.307	0.001	0.306	0.013	24.05

자료 : 충남도청,「충남사회조사」, (2021)



5. 결론 및 정책 제언

1) 분석결과 요약

충남도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중간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 반면, 최근에 충남도민의 소비생활과 쇼핑시설에 대한 이용에 있어 만족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충남도민 4명 가운데 적어도 1명 이상은 지난 1년간 역외 소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군별로 역외 소비 경험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생활 만족도와 쇼핑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하면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소비생활의 만족이 해당 지역 내 소비시설이나 서비스가 아닌 인근 역외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관련 민간 소비시설과 서비스의 유치를 위해 충남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함축한다.

역외 소비의 비중, 소비 지역, 소비 품목은 도내 시군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충남도민 개인의 속성에 따라서도 역외 소비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도내 시군들 가운데 대도시와 인접한 경우일수록 역외 소비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2) 정책 제언

충남도는 수도권 인접의 이점(advantage)으로 인해 지난 수십년에 걸쳐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분공장(branch plant)의 높은 비중과 직주분리 등으로 지역소득의 상당부분이 역외-특히, 수도권-로 유출되어 내실 있는 성장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충남도 정책이 상생산업단지 조성이며, 일정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외생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생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비측면에서도 역외 소비를 최소화하는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은 역외 소비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행정은 통계적 자료에 기초한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충남사회조사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사항목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2021년의 조사는 과거 2017년 조사와 달리 온라인 소비를 제외한 오프라인 소비에 한정하여 역외 소비를

조사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강화하였다. 향후, 역외 소비관련 세부 문항-이를테면, 역외 소비 금액-을 일부 추가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역외 소비 완화방안의 제시 및 관련 정책의 추진에 따른 성과평가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역외 소비지수와 같은 관리지표를 만들고 이를 매년 실시되는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시군 간 차이나 시계열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년도 관련 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김종일(2008). 「지역경제력 격차에 관한 연구」. 고영선 편,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KDI.

박경(2011).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의 역외 유출 현상", 공간과사회 21(4), pp. 83-113.

서선애·김은지(2020). "온라인쇼핑이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21(6), pp. 3-18

이종하·이상호(2021). "지역의 생산-분배 소득 갭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정책논집 23(3), pp. 125-156

정재준(2018).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비교를 통한 소득의 역외 유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4), pp. 321-334.

충청남도(2017-2021). 충남 사회조사

홍성효·임준홍(2014). "분공장과 지역경제: 고용, 연구개발활동, 생산을 중심으로", 지역정책 1(2), pp. 131-150

Christaller, Walter, Central Places in Southern Germany, trans. C. W. Baskin. Englewood, NJ: Prentice Hall, 1966.

Glaeser, Edward L., Jed Kolko, and Albert Saiz (2001), "Consumer Cit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 pp. 27-50.

Harris, R., and Robinson, C., 2004. "Industrial policy in Great Britain and its effect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plants, 1990-1998,"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1, pp. 528-543

Losch, August, The Economics of Loca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54.

MacKinnon, D., and Phelps, N., 2001. "Regional governanc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dynamics of institutional change in Wales and north east England," Geoforum 32, pp. 255-269

Morgan, K., 1991.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in electronics: What are the prospects for Britain?,"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pp. 1459-1482

Munday, M., 2000.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Wales: Lifeline or leash?" in J. Bryan & C. Jones (eds.), Wales in the 21st century 39, pp. 214-223. London: MacMillan

Rappaport, Jordan (2008), "Consumption Amenities and City Population Density."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8, pp. 533-52.

Rees, J., 1979. "Technological change and regional shifts in American manufacturing," Professional Geographer 31, pp. 45-54

Sonn, J., and Lee, D., 2012. "Revisiting the branch plant syndrome: Review of literatur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advanced econom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16(3), pp. 243-259

Turok, I., 1993. "Inward investment and local linkages: How deeply embedded is 'Silicon Glen'?," Regional Studies 27, pp. 401-417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 pp. 190-207

<부록 1> 표본의 분포

구분		비중(%)
시군	천안시	12.1
	공주시	6.8
	보령시	5.9
	아산시	10.0
	서산시	8.0
	논산시	6.5
	계룡시	4.3
	당진시	7.4
	금산군	5.5
	부여군	5.6
	서천군	5.5
	청양군	4.7
	홍성군	6.8
	예산군	6.1
	태안군	4.8
동읍면	동	31.0
	읍	28.9
	면	40.1
연령대	15~19세	3.1
	20~29세	7.0
	30~39세	10.2
	40~49세	15.1
	50~59세	18.3
	60세 이상	46.5
성별	남성	47.7
혼인상태	미혼	15.8
	배우자 있음	66.1
	사별	12.9
	이혼	5.3
학력	초졸 이하	26.2
	중졸 이하	11.4
	고졸 이하	31.5
	대학 이상	30.9

구분		비중(%)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7.2
	50~100만원 미만	14.0
	100~200만원 미만	17.2
	200~300만원 미만	17.2
	300~400만원 미만	15.4
	400~500만원 미만	10.3
	500~600만원 미만	7.0
	600~700만원 미만	4.1
	700~800만원 미만	3.0
	800만원 이상	4.9
소비지출액	50만원 미만	9.7
	50~100만원 미만	19.1
	100~200만원 미만	24.4
	200~300만원 미만	19.4
	300~400만원 미만	14.2
	400~500만원 미만	6.7
	500~600만원 미만	2.8
	600~700만원 미만	1.7
	700~800만원 미만	0.7
	800만원 이상	1.3
가구유형	1인 가구	22.0
도내 거주기간	1년 미만	2.7
	1~2년 이하	2.1
	2~5년 이하	5.8
	5~10년 이하	8.9
	10~20년 이하	14.6
	20년 초과	65.9
쇼핑시설에 대한 만족도	쇼핑시설 불만족 여부	27.1

코로나19와 도민의 삶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3. 코로나19와 도민의 삶의 변화 그리고 정책제언

요 약

임 준 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him0212@cni.re.kr

-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상을 살고 있으며, 이러한 팬데믹(pandemic)은 향후에도 발생할 것임.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양극화(격차)가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분석이 시작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천안, 아산 등)였으며, 농촌보다 도시지역임
  - 코로나19에 민감한 계층은 사회 취약계층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피해가 컸음. 같은 자영업자라도 고용원 고용 유무에 따라 달랐고, 청년은 지역사회 활력 유지·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변화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낮추고, 도민의 정서적 감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
- "도시발전은 전염병의 역사이다"라는 말과 같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경험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경우 우리는 지금과 다른 선도적 혁신사회로 발전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위험사회에 직면할 것임
  - 충청남도는 사회변화 속도에 적극 대응하면서 집단간·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과 팬데믹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질적 개선 정책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임
  - 특히, 민선8기에는 민선7기에 충청남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양극화 정책을 보다 다양화·체계화·지역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임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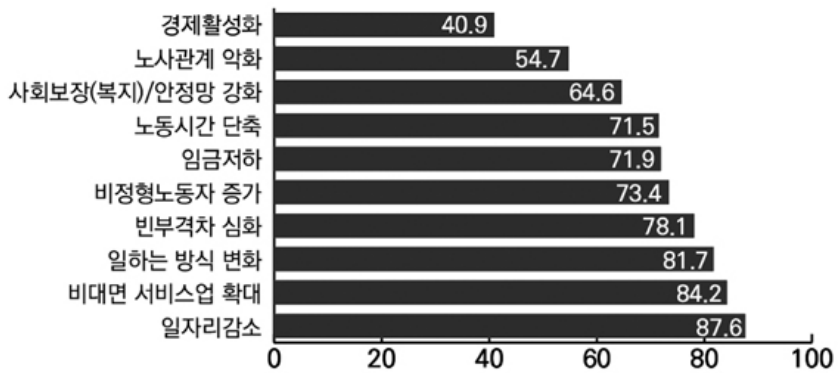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로 사회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계층간·지역간 양극화(격차)는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21년 발표한 국가 사회조사에서는 방역, 사회적관계망, 소비생활, 재택근무, 원격수업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 등을 분석하였다.[1] 분석결과, 향후에 변화가 가속될 분야는 배달·배송을 통한 소비 증가(22.8%)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집에서의 여가·취미문화 발달(16.6%), 온라인 학습/재택근무의 확산(14.7~1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회관계망 변화 조사에서는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관계망에서 코로나19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와 사회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노총 조사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비대면 서비스업 확대, 빈부격차 심화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코로나19와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우리사회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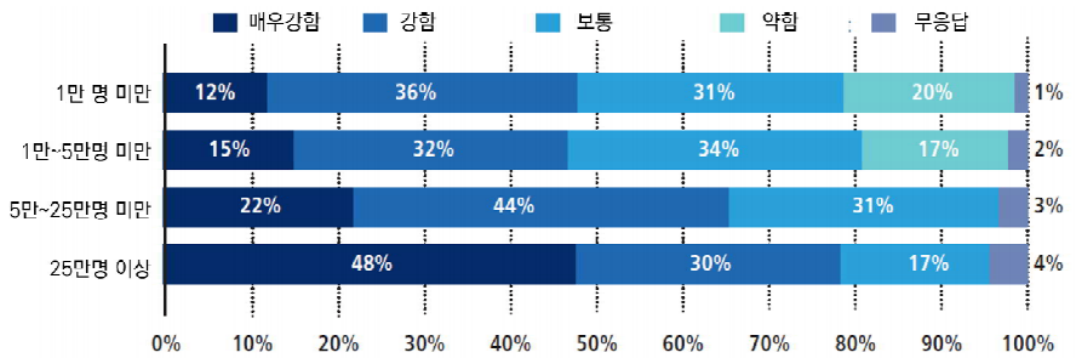
자료 : 매일노동뉴스(2021.12.11.), 언론기사

1) 통계청, 2021,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보도자료 참조 재정리.

한편, 코로나19는 도시인구 규모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 OECD(2020) 조사에 따르면 5만명 정도의 도시에서는 15%가, 5~25만 명 이상 도시에서는 22%가, 25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48%가 코로나19에 매우 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강하다고 응답한 사람까지 포함해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 인구규모가 큰 도시가 밀집되어 있을수록 코로나19에 더 큰 위험하다는 이야기와 상반된 결과이기도 하다. 본 조사에서는 도시의 인구과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우리에게 어떤 도시가 팬데믹에 강한 도시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림 3-2> 인구규모별 코로나19 위기의 영향력

(단위 : %)



자료 : OECD, 2020, 유현아(2021) 참조

코로나19가 주는 가장 큰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변화의 속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간·지역간 격차심화이다. 이에, 정부와 지역사회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는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팬데믹[2] 시대라는 말처럼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 및 도시발전 정책에 있어, 이러한 변화를 진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필요성도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지만 2021년 충남사회지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의 생활변화를 분석하고, 코로나19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심한 사람과 지역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들 계층과 지역이 향후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준비·추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배려하여야 하는 정책대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본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도시적 관점에서 정책 기본 방향을 제안한다.

2. 코로나19와 도민 생활의 변화 : 집단 간 차이

1)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불안 등의 집단간 차이

코로나19로 인한 3개 부문의 6가지 항목에 대해 도민의 생활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많은 도민들은 소득감소와 일자리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고, 여가활동 및 모임 감소와 온라인쇼핑과 배달음식 소비를 경험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의 설문항목별 빈도분석에서는 조사응답자의 38.0%가 일자리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6.6%뿐이고, 여가와 모임이 증가한 사람은 3.7%, 2.4%로 낮은 반면, 쇼핑과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한 사람은 33.9%와 36.9%이다. 즉, 일자리 불안감 증가와 소득감소, 여가활동과 모임의 감소, 온라인쇼핑과 배달음식 주문의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

2) 팬데믹(pandemic, 범유행(汎流行), 세계적 대유행(世界的 大流行))이란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을 했다.

<표 3-1>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생활의 변화

(단위 : 5점만점, %)

구분	일자리와 소득		여가와 모임		쇼핑과 배달음식 소비	
	일자리 불안감	소득 증가	여가활동 증가	모임참여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배달음식 주문증가
평균(5점만점)	3.39	2.57	2.07	1.72	3.31	3.39
표준편차	0.97	0.87	0.91	0.87	0.89	0.89
증가를 선택한 응답자 비중(%)	38.0	6.6	3.7	2.4	33.9	36.9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1) 지역별 차이

코로나19로 인한 6개 조사항목에 대한 지역 및 집단 간 차이는 <표 3-2>와 같다. 일자리 불안감과 소득 감소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일자리가 집중된 천안과 아산에서 오히려 강하며 소득감소도 유사하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강하다. 주택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자기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전세나 월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현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감소도 비슷하다.

여가와 모임활동의 변화 역시 인구규모가 큰 도시 일수록, 도시성격이 강한 지역일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났으며, 생활하는 주택유형이나 주택의 소유(점유)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온라인쇼핑과 배달음식 주문의 변화 역시, 항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가와 모임 참여 변화와 유사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행태변화는 도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거주하는 주택특성과 거주기간 등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가운데, 농촌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큰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표 3-2>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불안감 등의 지역별 차이

(단위 : 5점만점)

구분	세부항목	일자리 불안감		소득 증가		여가활동 증가		모임참여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배달음식 주문증가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시군	천안시	3.63	26.526 (.000)	2.59	24.569 (.000)	1.94	46.642 (.000)	1.61	40.602 (.000)	3.56	68.363 (.000)	3.77	144.764 (.000)
	공주시	3.26		2.46		2.11		1.82		3.17		3.17	
	보령시	3.33		2.64		2.34		1.95		3.23		3.31	
	아산시	3.55		2.56		1.93		1.62		3.49		3.65	
	서산시	3.28		2.41		1.92		1.52		3.47		3.61	
	논산시	3.47		2.57		2.11		1.75		3.30		3.34	
	계룡시	3.34		2.71		2.10		1.76		3.43		3.63	
	당진시	3.43		2.53		1.98		1.62		3.31		3.50	
	금산군	3.53		2.43		1.95		1.61		3.32		3.28	
	부여군	3.32		2.61		2.29		1.90		3.21		3.20	
	서천군	3.34		2.71		2.36		1.96		2.98		3.03	
	청양군	3.22		2.62		2.12		1.67		3.23		3.17	
	홍성군	3.28		2.73		2.16		1.81		3.34		3.40	
	예산군	3.33		2.65		2.09		1.67		3.08		3.06	
	태안군	3.16		2.27		1.94		1.71		3.03		3.05	
거주 지역	동부	3.48	43.431 (.000)	2.53	12.739 (.000)	1.99	42.750 (.000)	1.66	33.293 (.000)	3.48	280.317 (.000)	3.69	833.803 (.000)
	읍부	3.39		2.61		2.09		1.71		3.32		3.40	
	면부	3.32		2.57		2.11		1.76		3.17		3.16	
지역 특성	도시	3.45	41.726 (.000)	2.56	13.677 (.000)	2.01	48.713 (.000)	1.68	26.664 (.000)	3.46	314.264 (.000)	3.65	1032.562 (.000)
	농촌	3.33		2.58		2.12		1.74		3.18		3.16	
	어촌	3.56		2.28		2.24		1.94		3.08		3.02	
거주 주택 유형	단독주택	3.32	31.351 (.000)	2.55	15.932 (.000)	2.15	95.567 (.000)	1.79	83.139 (.000)	3.14	364.878 (.000)	3.13	894.463 (.000)
	아파트	3.46		2.60		1.95		1.61		3.52		3.71	
	연립/다세대 주택	3.44		2.55		2.13		1.77		3.28		3.42	
	기타	3.51		2.36		2.04		1.77		3.45		3.58	
주택 점유 형태	자기집	3.34	69.420 (.000)	2.57	1.618 (.198)	2.08	16.584 (.000)	1.72	8.098 (.000)	3.26	128.831 (.000)	3.32	272.060 (.000)
	전세	3.50		2.56		1.95		1.64		3.57		3.73	
	월세/기타	3.56		2.54		2.05		1.74		3.42		3.57	
거주 기간	5년 미만	3.50	13.501 (.000)	2.64	3.270 (.006)	1.97	27.747 (.000)	1.66	11.019 (.000)	3.59	128.268 (.000)	3.68	182.039 (.000)
	5~10년 미만	3.48		2.57		1.95		1.65		3.51		3.61	
	10~15년 미만	3.44		2.56		1.95		1.63		3.47		3.60	
	15~20년 미만	3.47		2.58		2.03		1.70		3.47		3.66	
	20년 이상	3.35		2.56		2.11		1.74		3.22		3.28	
	무응답	2.73		2.33		1.87		1.40		2.64		3.29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주 : ( )는 유의수준임(이하 동일)

(2) 개인 및 가족속성별 차이

코로나19로 인한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개인 및 가족속성별 차이는 <표 3-3>과 같다. 일자리 불안감은 20대 이하의 젊은 층, 고졸과 대졸자 그리고 전문/관리와 서비스/판매업,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컸다.

소득증가는 대부분 2점(5점만점)대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남성, 50대, 중졸과 고졸 학력자, 서비스/판매업 종사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이혼자, 부채가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가활동과 모임 증가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1~2점대(5점 만점)로 다른 조사항목보다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50대와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업 종사자, 상용근로자에서 감소현상이 뚜렷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쇼핑과 배달음식 주문은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30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 사무직종사자, 상용근로자, 소득과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미혼자, 부채가 있는 사람에서 많이 증가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속성과 가족구성의 형태 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폭에 차이를 나타내는 가운데, 전반적인 특성은 연령과 직업, 부채여부 등에서 보다 뚜렷한 차이가 있다. 세부적인 차이는 <표 3-3>과 같으며, 세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표 3-3>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불안감 등의 개인 및 가족속성별 차이

(단위 : 5점만점)

구분	세부항목	일자리 불안감		소득 증가		여가활동 증가		모임참여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배달음식 주문증가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성별	남	3.38	1.396 (.237)	2.54	18.617 (.000)	2.05	7.945 (.005)	1.67	49.948 (.000)	3.28	32.057 (.000)	3.39	.281 (.596)
	여	3.40		2.59		2.08		1.75		3.34		3.39	
연령	15~19세	3.61	64.961 (.000)	2.80	46.101 (.000)	2.13	138.632 (.000)	1.88	139.249 (.000)	3.50	787.883 (.000)	3.74	1356.905 (.000)
	20대	3.68		2.77		2.02		1.71		3.80		4.00	
	30대	3.50		2.68		1.83		1.56		3.83		4.04	
	40대	3.47		2.57		1.90		1.53		3.63		3.80	
	50대	3.40		2.43		1.98		1.59		3.34		3.38	
	60세 이상	3.26		2.56		2.22		1.85		2.99		3.00	

(단위 : 5점만점)

구분	세부항목	일자리 불안감		소득 증가		여가활동 증가		모임참여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배달음식 주문증가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학력	초졸 이하	3.23	47.054 (.000)	2.64	59.330 (.000)	2.33	227.288 (.000)	2.01	280.742 (.000)	2.96	771.268 (.000)	2.97	1147.906 (.000)
	중졸 이하	3.31		2.46		2.13		1.74		3.01		3.03	
	고졸 이하	3.41		2.46		2.00		1.63		3.34		3.44	
	대학 이상	3.50		2.66		1.90		1.55		3.68		3.83	
	무응답	3.22		2.51		*1.89*		1.59		3.38		3.51	
직업	전문/관리	3.47	39.809 (.000)	2.67	79.367 (.000)	1.89	68.441 (.000)	1.50	123.656 (.000)	3.71	197.178 (.000)	3.83	339.491 (.000)
	사무	3.39		2.82		1.89		1.52		3.69		3.90	
	서비스/판매	3.50		2.29		1.92		1.56		3.36		3.44	
	농어업	3.15		2.57		2.16		1.72		3.05		3.02	
	기능/노무 등	3.42		2.53		2.00		1.62		3.36		3.50	
	직업 없음	3.43		2.62		2.17		1.88		3.22		3.28	
	무응답	3.17		2.50		2.11		1.44		3.22		3.67	
근로 형태	상용근로자	3.40	15.682 (.000)	2.76	141.127 (.000)	1.92	18.661 (.000)	1.53	18.575 (.000)	3.60	146.181 (.000)	3.76	275.673 (.000)
	임시근로자	3.49		2.55		2.09		1.72		3.32		3.41	
	일용근로자	3.51		2.31		2.09		1.70		3.16		3.27	
	고용원이있는 자영업자	3.40		2.21		1.97		1.55		3.37		3.50	
	고용원이없는 자영업자	3.30		2.31		2.05		1.64		3.15		3.17	
	무급가족 종사자	3.25		2.45		2.11		1.67		3.11		3.06	
	무응답	3.00		2.32		2.11		1.89		3.12		3.23	
소득 (만원)	50미만	3.40	1.805 (.054)	2.62	14.861 (.000)	2.33	47.421 (.000)	2.07	93.467 (.000)	2.97	107.225 (.000)	3.01	174.262 (.000)
	50~100미만	3.31		2.61		2.30		2.03		2.98		3.01	
	100~200미만	3.39		2.42		2.14		1.75		3.11		3.16	
	200~300미만	3.40		2.49		2.00		1.63		3.30		3.41	
	300~400미만	3.42		2.52		1.97		1.59		3.41		3.56	
	400~500미만	3.38		2.57		1.97		1.55		3.49		3.65	
	500~600미만	3.40		2.68		1.89		1.47		3.54		3.78	
	600~700미만	3.35		2.73		1.86		1.48		3.60		3.76	
	700~800미만	3.37		2.75		1.96		1.46		3.62		3.84	
	800이상	3.30		2.72		1.91		1.46		3.61		3.68	
	무응답	3.75		2.50		1.86		1.50		3.50		3.86	

(단위 : 5점만점)

구분	세부항목	일자리 불안감		소득 증가		여가활동 증가		모임참여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배달음식 주문증가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소비 지출액	50미만	3.32	1.961 (.033)	2.67	6.664 (.000)	2.40	56.061 (.000)	2.12	93.685 (.000)	2.98	91.256 (.000)	3.02	147.391 (.000)
	50~100미만	3.33		2.56		2.24		1.90		3.03		3.07	
	100~200미만	3.40		2.48		2.04		1.65		3.26		3.33	
	200~300미만	3.41		2.55		1.95		1.59		3.38		3.52	
	300~400미만	3.42		2.52		1.92		1.53		3.51		3.67	
	400~500미만	3.41		2.61		1.93		1.48		3.56		3.78	
	500~600미만	3.40		2.69		1.96		1.46		3.59		3.75	
	600~700미만	3.31		2.70		1.90		1.47		3.63		3.71	
	700~800미만	3.32		2.63		1.75		1.42		3.51		3.70	
	800이상	3.30		2.49		1.83		1.45		3.54		3.75	
	무응답	3.57		2.45		2.04		1.61		3.57		3.96	
혼인 상태 상세	미혼	3.57	42.643 (.000)	2.65	32.687 (.000)	2.02	87.789 (.000)	1.72	156.827 (.000)	3.59	238.551 (.000)	3.76	351.454 (.000)
	배우자 있음	3.36		2.54		2.03		1.64		3.32		3.39	
	사별	3.25		2.68		2.34		2.06		2.96		2.99	
	이혼	3.52		2.38		2.08		1.75		3.18		3.28	
	무응답	3.40		2.80		2.00		1.75		3.25		3.00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본인)	3.38	10.496 (.000)	2.55	5.346 (.000)	2.09	12.071 (.000)	1.73	18.564 (.000)	3.25	47.954 (.000)	3.35	53.865 (.000)
	배우자	3.36		2.56		2.02		1.65		3.36		3.40	
	미혼 자녀	3.61		2.71		2.04		1.74		3.62		3.74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3.39		2.54		1.90		1.61		3.42		3.40	
	손자녀 및 그 배우자	3.33		2.76		2.20		2.07		3.30		3.57	
	부모 (배우자 쪽 포함)	3.20		2.68		2.37		2.10		3.00		3.05	
	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3.50		2.14		2.33		2.17		2.83		3.08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	3.42		2.70		1.99		1.78		3.36		3.47	
	기타 친인척	4.31		2.75		2.06		1.82		3.59		3.65	
	기타 동거인	3.70		2.69		2.05		*1.55*		*3.90*		4.29	

(단위 : 5점만점)

구분	세부항목	일자리 불안감		소득 증가		여가활동 증가		모임참여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배달음식 주문증가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가구원수	1인 가구	3.40	16.349 (.000)	2.58	7.266 (.000)	2.17	49.694 (.000)	1.87	75.209 (.000)	3.19	269.066 (.000)	3.27	555.328 (.000)
	2인 가구	3.33		2.53		2.10		1.72		3.17		3.18	
	3인 가구	3.42		2.57		1.97		1.63		3.46		3.58	
	4인 가구	3.49		2.62		1.95		1.59		3.65		3.85	
	5인 이상	3.44		2.61		2.02		1.66		3.58		3.74	
이주민 유무	있다	3.38	2.561 (.077)	2.43	4.671 (.009)	1.99	1.833 (.160)	1.64	1.426 (.240)	3.36	3.303 (.037)	3.40	.481 (.618)
	없다	3.38		2.55		2.09		1.73		3.25		3.35	
	무응답	3.86		2.95		2.15		1.69		3.50		3.35	
부채 유무	있다	3.45	16.819 (.000)	2.44	64.661 (.000)	1.96	89.075 (.000)	1.56	151.957 (.000)	3.42	152.975 (.000)	3.58	282.495 (.000)
	없다	3.34		2.62		2.16		1.82		3.16		3.23	
	무응답	3.20		2.47		1.88		1.53		3.24		3.82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3)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집단 분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변화 즉, 6개 설문항목 조사를 통해 도민의 생활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k-평균(k-means algorithm)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분석에서는 2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고, 군집"1"이 군집"2"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집단이다.

지역에 따른 집단구분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와 계획도시인 계룡시가 같은 1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동지역, 도시지역, 아파트, 전세와 월세,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거주자가 동일 집단에 포함되었다. 즉, 도시거주자 중 임대거주를 하고 있고 거주기간이 짧은 도시생활자가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집단이다.

개인 및 가족속성에 대한 집단구분에서는 50대 이하, 고졸이상 학력자, 전문관리, 사무, 서비스판매자, 기능노무근로자, 상근근로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00만원 이상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지출이 많은 사람, 미혼자, 부채가 있는 사람이 같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 3-4>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2개 집단으로 구분)

구분		군집분석결과		구분		군집분석결과	
		해당군집	군집거리			해당군집	군집거리
시군	천안시	1	0.2011	성별	남	2	0.2926
	공주시	2	0.1241		여	2	0.2985
	보령시	2	0.2972	연령	15~19세	1	0.4236
	아산시	1	0.1061		20대	1	0.5383
	서산시	1	0.2790		30대	1	0.5183
	논산시	2	0.2672		40대	1	0.2018
	계룡시	1	0.2852		50대	1	0.3771
	당진시	1	0.2759		60세 이상	2	0.2717
	금산군	2	0.4135	학력	초졸 이하	2	0.4229
	부여군	2	0.1937		중졸 이하	2	0.2437
	서천군	2	0.3952		고졸 이하	1	0.3243
	청양군	2	0.2095		대학 이상	1	0.2634
	홍성군	2	0.3384		무응답	1	0.3389
	예산군	2	0.2422	직업	전문/관리	1	0.2951
	태안군	2	0.4393		사무	1	0.3969
거주지역	동부	1	0.0952		서비스/판매	1	0.4099
	읍부	2	0.3034		농어업	2	0.2918
	면부	2	0.0841		기능/노무 등	1	0.2382
지역특성	도시	1	0.1124		직업 없음	2	0.1912
	농촌	2	0.0983		무응답	1	0.4707
	어촌	2	0.4279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	0.2358
거주주택유형	단독주택	2	0.0755		임시근로자	2	0.3352
	아파트	1	0.0427		일용근로자	2	0.3279
	연립/다세대 주택	2	0.2852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1	0.4403
	기타	1	0.3182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2	0.2997
주택점유형태	자기집	2	0.2092		무급가족종사자	2	0.2388
	전세	1	0.1087		무응답	2	0.4115
	월세/기타	1	0.2368	소득(만원)	50만원 미만	2	0.4170
거주기간	5년 미만	1	0.1198		50~100만원 미만	2	0.3751
	5~10년 미만	1	0.0845		100~200만원 미만	2	0.1509
	10~15년 미만	1	0.0972		200~300만원 미만	1	0.3516
	15~20년 미만	1	0.1299		300~400만원 미만	1	0.1682
	20년 이상	2	0.1376		400~500만원 미만	1	0.1005
	무응답	2	0.9570		500~600만원 미만	1	0.2172
					600~700만원 미만	1	0.2695
					700~800만원 미만	1	0.3061
					800만원 이상	1	0.2714
					무응답	1	0.3829
				소비지출액	50만원 미만	2	0.4889
					50~100만원 미만	2	0.2163
					100~200만원 미만	2	0.2733
					200~300만원 미만	1	0.2130
					300~400만원 미만	1	0.1115
					400~500만원 미만	1	0.1836
					500~600만원 미만	1	0.2145
					600~700만원 미만	1	0.2665
					700~800만원 미만	1	0.3203
					800만원 이상	1	0.2902
					무응답	1	0.3460



구분	군집분석결과		구분		군집분석결과	
	해당군집	군집거리			해당군집	군집거리
			혼인 상태 상세	미혼	1	0.2213
				배우자 있음	2	0.3328
				사별	2	0.4515
				이혼	2	0.2791
				무응답	2	0.3873
			가구주 와의 관계	가구주(본인)	2	0.2169
				배우자	1	0.3351
				미혼 자녀	1	0.2845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1	0.3082
				손자녀 및 그 배우자	2	0.5281
				부모	2	0.4600
				조부모	2	0.6758
				형제자매	1	0.3357
				기타 친인척	1	0.8988
				기타 동거인	1	0.7812
			가구원 수	1인 가구	2	0.1346
				2인 가구	2	0.1089
				3인 가구	1	0.1148
				4인 가구	1	0.2357
				5인 이상 가구	1	0.1290
			이주민 유무	있다	1	0.3597
				없다	2	0.2139
				무응답	1	0.6651
			부채 유무	있다	1	0.2029
				없다	2	0.0891
				무응답	1	0.4373

(4) 자영업자의 소득과 부채

최근 많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를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의 소득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인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변화의 매우감소와 약간감소를 합쳐서 직업별로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63.8%)가 소득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53.8%)도 많아 자영업자의 소득감소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매우감소를 우려하는 경우만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우려가 가장 컸다.

<표 3-5> 직업별·근로형태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우려

(단위 : %)

구분	세부항목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사람 비중(%)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매우 감소	약간 감소
시군	천안시	7.4	18.8	22.8	27.8	22.5	44.9	29.6	37.0	28.5	38.3	16.2	29.7
	공주시	9.9	22.2	17.2	28.7	20.8	39.6	38.3	30.0	29.7	27.1	19.7	23.7
	보령시	8.6	19.7	12.9	32.7	15.6	40.0	17.8	44.4	15.6	27.6	13.6	25.8
	아산시	6.8	22.8	11.8	38.2	28.2	28.2	28.6	35.7	32.3	31.9	39.1	21.7
	서산시	10.9	25.1	20.0	38.9	15.1	60.4	20.9	55.8	25.3	36.0	19.7	40.9
	논산시	7.2	14.1	15.2	25.0	26.5	39.7	22.0	36.0	21.4	36.7	13.5	29.7
	계룡시	7.4	13.8	11.0	17.0	16.0	44.0	25.0	12.5	32.8	29.9	40.0	30.0
	당진시	7.9	20.0	6.5	30.4	23.1	38.5	21.9	34.4	23.8	41.4	32.0	26.7
	금산군	13.6	21.5	22.8	22.8	27.8	25.3	34.3	45.7	30.7	37.8	25.9	24.7
	부여군	10.1	18.1	8.4	30.1	20.5	41.0	26.1	41.3	15.7	36.5	13.5	36.5
	서천군	1.9	8.7	3.6	18.0	9.5	33.3	21.2	36.4	9.2	28.8	6.7	28.1
	청양군	2.0	15.6	4.7	18.6	20.0	43.3	9.1	54.5	11.0	36.5	7.3	30.5
	홍성군	6.1	15.5	17.1	21.4	20.0	24.4	11.4	42.9	9.9	24.9	5.0	17.5
	예산군	5.4	14.5	12.3	21.1	20.0	37.8	18.4	31.6	15.0	30.3	12.7	25.5
	태안군	11.8	15.4	23.5	17.3	20.7	27.6	37.1	34.3	39.4	19.9	38.1	13.3
	F-value	212.738 (.000)		134.137 (.000)		67.000 (0149)		66.930 (.150)		424.438 (.000)		208.511 (.000)	
전체		7.8	18.9	14.5	26.4	21.8	37.3	25.4	38.4	21.6	32.2	17.1	26.5
		26.7		40.9		59.1		63.8		53.8		43.6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부채현황을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58.4%로 다른 근로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다음은 상용근로자가 48.7%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즉, 계룡시와 충남 수위도시인 천안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다.

<표 3-6> 지역별·근로형태별에 따른 부채

(단위 : %)

구분	세부항목	부채가 있는 사람 비중(%)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시군	천안시	54.9	42.7	46.9	71.8	53.7	0.0
	공주시	45.5	29.1	32.3	42.0	27.3	33.3
	보령시	44.5	25.8	41.2	65.0	33.8	42.9
	아산시	51.1	24.2	31.0	66.0	46.4	0.0
	서산시	39.7	23.5	36.6	47.2	40.6	0.0
	논산시	44.8	23.4	25.5	58.7	39.1	66.7
	계룡시	55.8	32.8	33.3	78.6	53.1	100.0
	당진시	49.4	37.5	29.3	59.3	40.2	-
	금산군	46.1	35.7	34.4	63.3	40.5	40.0
	부여군	46.7	20.8	22.6	57.8	34.9	1
	서천군	38.5	11.4	43.8	55.2	35.0	1
	청양군	32.7	8.0	41.7	52.9	32.7	1
	홍성군	55.2	36.4	53.6	64.5	34.4	33.3
	예산군	44.3	24.2	24.1	64.5	39.0	100.0
	태안군	46.2	11.7	41.9	33.3	40.6	31.3
	Chi-square	76.286** (.000)	53.307** (.003)	29.690* (.0378)	28.519* (.012)	156.438** (.000)	11.909 (.291)
전체		48.7	26.0	35.4	58.4	38.3	44.8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주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전체응답자가 26명으로 통계적 의미가 약함. ( )는 유의수준임(이하 동일)

부채 발생 원인에 있어서도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조달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7> 근로형태별 부채발생 원인

(단위 : %)

구분	주택 임차및 구입	교육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재테크 투자	사업 (영농) 자금	기타	Chi-square
상용근로자	68.8	4.9	1.9	9.4	5.6	5.7	3.5	
임시근로자	49.3	4.1	3.2	18.7	3.2	13.2	7.8	
일용근로자	35.5	3.0	7.5	23.0	3.5	17.5	9.5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26.3	0.3	0.3	4.3	1.9	65.9	0.9	1697.403 (.000)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25.6	1.3	1.0	6.6	2.2	60.0	3.2	
무급가족종사자	26.9	0.0	3.8	3.8	0.0	57.7	7.7	
무응답	41.7	8.3	0.0	0.0	8.3	41.7	0.0	
전체	49.5	3.3	1.8	9.2	4.0	28.2	3.7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코로나19 초기인 1년전과 비교하여 전체 응답자의 33.9%가 소득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자영자와 일용근로자의 소득감소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1년 전과 비교한 소득변화(부채 있는 사람만)

(총 응답자 수: 4,360명, 단위 : %)

구분		소득증감						Chi-square
		크게 증가	약간 증가	동일	약간 감소	크게 감소	무응답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3	27.7	50.7	16.3	3.8	0.2	
	임시근로자	0.9	14.2	48.4	24.2	12.3	0.0	
	일용근로자	2.5	10.5	33.0	37.0	17.0	0.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9	8.7	33.4	38.4	18.6	0.0	527.879 (.000)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1.6	9.7	40.6	33.6	14.4	0.1	
	무급가족 종사자	0.0	7.7	53.8	15.4	23.1	0.0	
	무응답자	0.0	16.7	50.0	25.0	8.3	0.0	
전체		1.4	19.1	45.4	24.6	9.3	0.2	100.0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부채증감에서도 응답자의 28.0%가 증가하였으며, 상용근로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모두 다른 직업군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3-9> 1년 전과 비교한 부채변화(부채 있는 사람만)

(총 응답자 수: 4,360명, 단위 : %)

구분		부채증감						Chi-square
		크게 증가	약간 증가	동일	약간 감소	크게 감소	무응답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0.2	20.2	37.2	30.7	1.0	0.6	67.219 (.000)
	임시근로자	12.8	24.2	42.9	18.3	0.9	0.9	
	일용근로자	9.5	27.0	39.0	22.5	1.0	1.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5	24.1	41.8	22.3	0.0	0.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6.9	21.5	45.3	24.7	1.0	0.6	
	무급가족 종사자	11.5	23.1	50.0	15.4	0.0	0.0	
	무응답자	8.3	33.3	33.3	25.0	0.0	0.0	
전체		9.4	21.5	40.5	27.1	0.9	0.6	100.0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1)

3. 코로나19가 도민생활에 주는 영향분석

1) 지역별 차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불안감과 소득의 변화가 집단 간 어떻게 상이한지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한 순서형 로짓모형(ordinal logistic regression)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3-10>과 같으며, 집단을 구분하는 대부분의 속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일자리 불안감은 거주하는 시군을 기준으로 천안시의 경우가 다른 시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충남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도시보다는 어촌에서, 주택점유형태에서 자가보다는 차가에서 일자리 불안감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소득의 변화는 일자리 불안감의 변화와 반대-즉, 어촌보다 도시에서 그리고 차가보다 자가의 주택점유에서 소득의 증가가 큼-의 경향을 나타내나 거주하는 시군 간 차이는 획일적이지 않다.

<표 3-10> 코로나19가 일자리불안과 소득변화에 주는 영향(지역 및 거주 특성)

구분	세부항목	일자리불안감		소득변화	
시군 (천안시)	공주시	-0.630**	-7.520	-0.185*	-2.440
	보령시	-0.570**	-8.220	0.255**	3.720
	아산시	-0.157*	-2.480	-0.163*	-2.440
	서산시	-0.611**	-8.420	-0.377**	-5.720
	논산시	-0.230**	-3.270	0.061	0.850
	계룡시	-0.643**	-7.120	0.378**	3.950
	당진시	-0.403**	-5.920	-0.109	-1.590
	금산군	-0.034	-0.370	-0.407**	-4.630
	부여군	-0.468**	-5.820	-0.041	-0.520
	서천군	-0.483**	-7.100	0.451**	6.220
	청양군	-0.556**	-7.510	0.047	0.640
	홍성군	-0.611**	-9.350	0.248**	3.540
	예산군	-0.437**	-5.600	0.077	1.070
	태안군	-0.793**	-8.710	-0.539**	-5.990
거주지역 (동부)	읍부	-0.015	-0.310	0.225**	4.490
	면부	0.004	0.070	0.124*	2.360
거주특성 (도시)	농촌	-0.018	-0.340	0.080	1.560
	어촌	0.622**	4.250	-0.571**	-3.790
주택유형 (단독)	아파트	0.021	0.490	0.026	0.610
	연립/다세대	0.009	0.130	0.068	1.090
	기타	0.061	0.610	-0.176+	-1.830
주택점유형태 (자가)	전세	0.104+	1.680	-0.163**	-2.610
	월세/기타	0.244**	5.150	-0.122**	-2.630
거주기간 (5년미만)	5~10년 미만	0.067	0.930	-0.125+	-1.670
	10~15년 미만	0.019	0.250	-0.086	-1.150
	15~20년 미만	-0.036	-0.450	-0.150+	-1.770
	20년 이상	0.012	0.210	-0.104+	-1.780
/cut1		-3.576**	-16.030	-3.035**	-11.970
/cut2		-2.655**	-12.000	-1.566**	-6.210
/cut3		0.102	0.460	1.828**	7.230
/cut4		1.344**	6.090	2.879**	11.270
Observations		17,795		19,705	
Pseudo R-squared		0.0253		0.0602	

Robust z-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 : 구분에서의 '( )'는 각 집단에서의 기준변수임(이하 동일)
지역 관련변수 외 세부변수는 지면관계 상 표시하지 않았으며, 세부내용은 <부록1> 참조(이하 동일)

코로나19로 인한 여가활동과 모임횟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1>과 같다. 여가활동의 변화를 천안시 기준으로 보면 태안군만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높게 분석되었다. 특히 보령시와 서천군, 부여군 등 농촌이나 관광 중심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모임횟수의 변화도 전반적으로는 여가활동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15개 시군별로는 금산과 서산이 상대적으로 모임횟수가 감소하였고,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1> 코로나19가 여가활동과 모임횟수에 주는 영향(지역 및 거주 특성)

구분	세부항목	여가활동		모임횟수	
시군 (천안시)	공주시	0.280**	4.690	0.444**	7.360
	보령시	0.779**	13.460	0.705**	11.770
	아산시	0.153**	2.810	0.220**	3.830
	서산시	-0.001	-0.020	-0.222**	-3.680
	논산시	0.261**	4.370	0.167*	2.560
	계룡시	0.623**	7.700	0.549**	6.560
	당진시	0.099+	1.810	0.089	1.540
	금산군	-0.250**	-3.480	-0.279**	-3.770
	부여군	0.577**	8.880	0.494**	7.010
	서천군	0.671**	11.980	0.649**	11.210
	청양군	0.189**	3.040	0.075	1.120
	홍성군	0.364**	6.190	0.378**	5.970
	예산군	0.189**	2.920	0.048	0.710
	태안군	-0.313**	-4.390	-0.054	-0.740
거주지역 (동부)	읍부	0.171**	4.220	0.153**	3.470
	면부	-0.047	-1.060	0.065	1.350
거주특성 (도시)	농촌	-0.080+	-1.910	-0.219**	-4.950
	어촌	0.018	0.160	0.011	0.100
주택유형 (단독)	아파트	-0.146**	-4.230	-0.138**	-3.780
	연립/다세대 주택	0.092+	1.830	0.154**	2.920
	기타	-0.005	-0.060	0.147+	1.770
주택점유형태 (자가)	전세	0.009	0.170	0.012	0.200
	월세/기타	0.031	0.850	0.041	1.040
거주기간 (5년미만)	5~10년 미만	0.036	0.570	0.068	1.020
	10~15년 미만	0.003	0.050	0.014	0.210
	15~20년 미만	0.086	1.240	0.124+	1.690
	20년 이상	0.073	1.510	0.022	0.420
/cut1		-3.576**	-16.030	-3.035**	-11.970
/cut2		-2.655**	-12.000	-1.566**	-6.210
/cut3		0.102	0.460	1.828**	7.230
/cut4		1.344**	6.090	2.879**	11.270
Observations		17,795		19,705	
Pseudo R-squared		0.0253		0.0602	

Robust z-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쇼핑횟수와 배달음식주문횟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2>와 같다. 온라인 쇼핑이용 횟수증가에서는 천안시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은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음식주문 횟수 역시 시군별로, 도시와 농촌의 거주지역에 따라, 거주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3-12> 코로나19가 온라인쇼핑이용횟수와 배달음식주문횟수에 주는 영향(지역 및 거주 특성)

구분	세부항목	온라인쇼핑이용횟수		배달음식주문횟수	
시군 (천안시)	공주시	-0.497**	-7.790	-0.876**	-13.200
	보령시	-0.397**	-6.500	-0.559**	-8.940
	아산시	-0.265**	-4.690	-0.252**	-4.460
	서산시	0.049	0.840	-0.048	-0.840
	논산시	-0.130*	-2.100	-0.370**	-6.020
	계룡시	-0.455**	-5.020	-0.478**	-5.560
	당진시	-0.533**	-8.940	-0.457**	-7.600
	금산군	-0.063	-0.890	-0.329**	-4.670
	부여군	-0.311**	-4.770	-0.508**	-7.730
	서천군	-0.790**	-11.990	-0.921**	-13.320
	청양군	-0.148*	-2.290	-0.407**	-5.780
	홍성군	-0.314**	-5.390	-0.514**	-8.520
	예산군	-0.673**	-9.350	-0.945**	-12.910
	태안군	-0.545**	-6.920	-0.768**	-9.700
거주지역 (동부)	읍부	-0.039	-0.860	-0.161**	-3.470
	면부	-0.121*	-2.490	-0.332**	-6.630
거주특성 (도시)	농촌	0.120**	2.580	-0.090+	-1.860
	어촌	0.103	0.930	-0.261*	-2.300
주택유형 (단독)	아파트	0.060	1.600	0.286**	7.360
	연립/다세대 주택	-0.103+	-1.880	0.098+	1.720
	기타	0.053	0.610	0.241**	2.610
주택점유형태 (자가)	전세	0.073	1.280	0.078	1.380
	월세/기타	0.018	0.440	0.093*	2.240
거주기간 (5년미만)	5~10년 미만	-0.118+	-1.700	-0.078	-1.130
	10~15년 미만	-0.165*	-2.410	-0.060	-0.870
	15~20년 미만	-0.245**	-3.250	-0.035	-0.460
	20년 이상	-0.257**	-4.810	-0.079	-1.480
/cut1		-3.576**	-16.030	-3.035**	-11.970
/cut2		-2.655**	-12.000	-1.566**	-6.210
/cut3		0.102	0.460	1.828**	7.230
/cut4		1.344**	6.090	2.879**	11.270
Observations		17,795		19,705	
Pseudo R-squared		0.0253		0.0602	

Robust z-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개인 및 가족속성별 차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불안감과 소득 변화가 개인 및 가족의 속성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를 보여주는 순서형 로짓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3-13>과 같다.

일자리 불안감은 60세 미만, 대학 이상, 무직 혹은 서비스/판매직 종사, 일용직 근로, 저소득자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득은 여성, 고령, 고졸의 학력, 자영업자, 저소득자, 가계지출이 많은 사람에서 증가하였다.

<표 3-13> 코로나19가 일자리불안과 소득변화의 집단 간 차이(개인 및 가족속성)

구분	세부항목	일자리불안감		소득변화	
성별 (남성)	여성	0.057	1.360	0.084*	2.020
연령 (20세미만)	20대	0.206	1.500	-0.377*	-2.000
	30대	-0.080	-0.550	-0.735**	-3.810
	40대	-0.025	-0.170	-0.947**	-4.900
	50대	-0.093	-0.620	-1.203**	-6.140
	60세 이상	-0.310*	-2.010	-1.009**	-5.110
학력 (초졸 이하)	중졸 이하	0.074	1.390	-0.220**	-4.510
	고졸 이하	0.078	1.450	-0.323**	-6.660
	대학 이상	0.207**	3.340	-0.183**	-3.150
직업 (전문/관리)	사무	-0.143*	-2.400	0.122+	1.830
	서비스/판매	0.142*	2.260	-0.413**	-6.280
	농어업	-0.465**	-6.000	0.852**	11.050
	기능/노무 등	-0.036	-0.640	-0.119*	-1.970
	직업 없음	0.292**	4.570	-0.520**	-7.750
근로 형태 (상용 근로자)	임시근로자	0.407**	6.440	-0.492**	-7.380
	일용근로자	0.490**	5.360	-1.007**	-12.750
	고용원있는자영업자	0.229*	2.510	-1.435**	-16.560
	고용원없는자영업자	0.341**	5.770	-1.511**	-26.810
	무급가족종사자	0.390**	5.010	-1.370**	-17.110
소득 (50만원미만)	50~100만원 미만	-0.170+	-1.690	0.306**	3.770
	100~200만원 미만	-0.089	-0.810	0.175+	1.870
	200~300만원 미만	-0.211+	-1.840	0.323**	3.230
	300~400만원 미만	-0.251*	-2.110	0.538**	5.050
	400~500만원 미만	-0.377**	-3.050	0.691**	6.150
	500~600만원 미만	-0.336**	-2.610	0.872**	7.300
	600~700만원 미만	-0.487**	-3.590	0.916**	7.100
	700~800만원 미만	-0.386**	-2.680	1.027**	7.240
	800만원 이상	-0.438**	-3.150	1.226**	9.160

구분	세부항목	일자리불안감		소득변화	
지출 (50만원미만)	50~100만원 미만	0.062	0.750	-0.205**	-2.920
	100~200만원 미만	0.049	0.540	-0.284**	-3.450
	200~300만원 미만	0.104	1.050	-0.255**	-2.810
	300~400만원 미만	0.162	1.530	-0.482**	-4.950
	400~500만원 미만	0.047	0.420	-0.412**	-3.750
	500~600만원 미만	0.050	0.370	-0.449**	-3.460
	600~700만원 미만	-0.014	-0.100	-0.383**	-2.640
	700~800만원 미만	-0.036	-0.190	-0.457*	-2.050
	800만원 이상	-0.066	-0.360	-0.645**	-3.610
결혼 여부 (미혼)	배우자 있음	-0.016	-0.210	0.172*	2.310
	사별	-0.167+	-1.860	0.364**	4.250
	이혼	0.150	1.630	0.044	0.490
가구 주와 관계 (본인)	배우자	-0.095+	-1.870	-0.061	-1.220
	미혼 자녀	0.108	1.180	-0.155	-1.500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0.123	-0.800	-0.311*	-1.990
	손자녀 및 그 배우자	-0.382	-0.880	0.149	0.420
	부모(배우자 쪽 포함)	-0.137	-1.050	0.102	0.850
	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0.014	0.010	-0.784	-0.990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	-0.166	-0.540	0.241	0.780
	기타 친인척	1.321*	2.380	0.137	0.140
	기타 동거인	0.203	0.680	-0.318	-1.120
가구유형 (1인가구)	2인가구이상	0.047*	2.540	-0.033+	-1.710
다문화가족 (있음)	없음	0.004	0.040	0.149	1.540
가구부채 (있음)	없음	-0.172**	-5.250	0.383**	11.620
/cut1		-3.576**	-16.030	-3.035**	-11.970
/cut2		-2.655**	-12.000	-1.566**	-6.210
/cut3		0.102	0.460	1.828**	7.230
/cut4		1.344**	6.090	2.879**	11.270
Observations		17,795		19,705	
Pseudo R-squared		0.0253		0.0602	

Robust z-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여가활동의 변화는 여성, 30대, 고학력, 서비스/판매조사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 감소가 뚜렷하고, 소득과 지출, 가족속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모임횟수의 변화 역시 전반적으로 여가활동과 유사하며, 소득보다는 지출에 더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가활동은 소득과 지출 모두에 민감하고, 모임횟수는 소득보다는 지출에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4> 코로나19가 여가활동과 모임회수의 집단 간 차이(개인 및 가족속성)

구분	세부항목	여가활동		모임횟수	
성별 (남성)	여성	-0.124**	-3.600	-0.108**	-2.960
연령 (20세미만)	20대	-0.095	-0.870	-0.136	-1.230
	30대	-0.294*	-2.510	-0.235+	-1.910
	40대	-0.126	-1.080	-0.267*	-2.170
	50대	-0.002	-0.020	-0.151	-1.200
	60세 이상	0.100	0.820	-0.143	-1.120
학력 (초졸 이하)	중졸 이하	-0.273**	-6.530	-0.377**	-8.820
	고졸 이하	-0.394**	-9.800	-0.516**	-12.300
	대학 이상	-0.592**	-12.190	-0.732**	-14.240
직업 (전문/관리)	사무	-0.020	-0.300	0.092	1.250
	서비스/판매	-0.103+	-1.720	-0.059	-0.880
	농어업	0.184**	2.700	0.159*	2.110
	기능/노무 등	0.019	0.350	0.069	1.130
	직업 없음	0.123*	2.210	0.381**	6.190
근로 형태 (상용 근로자)	임시근로자	0.004	0.070	0.026	0.420
	일용근로자	0.064	0.850	0.073	0.950
	고용원있는자영업자	0.019	0.240	0.126	1.450
	고용원없는자영업자	-0.155**	-3.150	-0.047	-0.880
	무급가족종사자	-0.040	-0.570	-0.014	-0.190
소득 (50만원미만)	50~100만원 미만	0.198**	3.070	0.259**	3.920
	100~200만원 미만	0.226**	3.080	0.107	1.430
	200~300만원 미만	0.225**	2.830	0.066	0.830
	300~400만원 미만	0.284**	3.380	0.054	0.640
	400~500만원 미만	0.278**	3.100	-0.032	-0.350
	500~600만원 미만	0.203*	2.090	-0.111	-1.140
	600~700만원 미만	0.239*	2.240	-0.067	-0.610
	700~800만원 미만	0.217+	1.910	-0.171	-1.430
	800만원 이상	0.202+	1.840	-0.199+	-1.750
지출 (50만원미만)	50~100만원 미만	-0.349**	-6.100	-0.308**	-5.280
	100~200만원 미만	-0.624**	-9.240	-0.495**	-7.320
	200~300만원 미만	-0.723**	-9.780	-0.487**	-6.580
	300~400만원 미만	-0.691**	-8.550	-0.499**	-6.170
	400~500만원 미만	-0.658**	-7.180	-0.458**	-4.960
	500~600만원 미만	-0.631**	-5.740	-0.553**	-4.870
	600~700만원 미만	-0.826**	-6.420	-0.656**	-4.680
	700~800만원 미만	-0.879**	-4.820	-0.714**	-3.620
	800만원 이상	-1.013**	-6.650	-0.721**	-4.390
결혼 여부 (미혼)	배우자 있음	-0.125*	-2.000	-0.140*	-2.090
	사별	0.033	0.460	0.118	1.550
	이혼	0.018	0.240	0.079	1.000

구분	세부항목	여가활동		모임횟수	
가구 주와 관계 (본인)	배우자	-0.011	-0.250	0.034	0.780
	미혼 자녀	0.008	0.100	0.108	1.210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0.154	-1.180	0.057	0.420
	손자녀 및 그 배우자	0.209	0.870	0.702**	3.200
	부모(배우자 쪽 포함)	0.317**	3.770	0.482**	5.290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0.411	0.720	0.874*	1.980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0.041	-0.210	0.275	1.340
	기타 친인척	-0.409	-0.540	0.119	0.200
	기타 동거인	0.242	0.640	-0.379	-0.950
가구유형 (1인가구)	2인가구이상	0.042**	2.620	0.010	0.610
다문화가족 (있음)	없음	-0.217**	-2.680	-0.336**	-3.930
가구부채 (있음)	없음	0.115**	4.200	0.166**	5.700
/cut1		-1.470**	-8.300	-0.901**	-4.850
/cut2		0.195	1.100	0.694**	3.730
/cut3		2.880**	16.060	3.059**	16.070
/cut4		3.739**	20.310	3.552**	18.400
Observations		24,852		24,863	
Pseudo R-squared		0.0414		0.0567	

Robust z-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쇼핑 이용횟수의 변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20대, 전문/관리업 종사자, 상용근로자의 증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소득과 부채유무의 차이에 따라 뚜렷하다. 배달음식 주문횟수의 증감 역시 전반적인 경향은 온라인쇼핑 이용횟수와 비슷하지만 집단 간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표 3-15> 코로나19가 일자리불안과 소득변화의 집단 간 차이(개인 및 가족속성)

구분	세부항목	온라인쇼핑이용횟수		배달음식주문횟수	
성별(남성)	여성	0.461**	12.710	0.302**	8.120
연령 (20세미만)	20대	0.322**	2.980	0.121	1.080
	30대	0.163	1.350	-0.330**	-2.660
	40대	-0.197	-1.640	-0.825**	-6.650
	50대	-0.725**	-5.850	-1.573**	-12.320
	60세 이상	-1.161**	-9.200	-2.062**	-15.790
학력 (초졸 이하)	중졸 이하	-0.053	-1.240	-0.150**	-3.290
	고졸 이하	0.275**	6.350	0.189**	4.160
	대학 이상	0.680**	12.880	0.567**	10.650
직업 (전문/관리)	사무	-0.138*	-1.990	-0.023	-0.330
	서비스/판매	-0.230**	-3.510	-0.230**	-3.550
	농어업	-0.164*	-2.250	-0.091	-1.220
	기능/노무 등	-0.177**	-3.000	-0.094	-1.590
	직업 없음	-0.264**	-4.430	-0.297**	-4.930

구분	세부항목	온라인쇼핑이용횟수		배달음식주문횟수	
근로형태 (상용 근로자)	임시근로자	-0.021	-0.320	-0.064	-1.000
	일용근로자	-0.292**	-3.450	-0.223**	-2.600
	고용원있는자영업자	-0.125	-1.380	-0.035	-0.400
	고용원없는자영업자	-0.070	-1.230	-0.124*	-2.210
	무급가족종사자	-0.238**	-3.100	-0.338**	-4.340
소득 (50만원미만)	50~100만원 미만	0.056	0.970	0.072	1.140
	100~200만원 미만	0.168*	2.360	0.252**	3.290
	200~300만원 미만	0.157*	1.970	0.219*	2.580
	300~400만원 미만	0.285**	3.300	0.335**	3.690
	400~500만원 미만	0.359**	3.860	0.430**	4.460
	500~600만원 미만	0.391**	3.900	0.489**	4.740
	600~700만원 미만	0.320**	2.930	0.324**	2.850
	700~800만원 미만	0.535**	4.360	0.662**	5.360
	800만원 이상	0.645**	5.670	0.583**	4.960
지출 (50만원미만)	50~100만원 미만	-0.040	-0.800	-0.092+	-1.660
	100~200만원 미만	0.097	1.520	-0.015	-0.220
	200~300만원 미만	0.114	1.560	0.024	0.310
	300~400만원 미만	0.205*	2.530	0.114	1.360
	400~500만원 미만	0.198*	2.160	0.220*	2.330
	500~600만원 미만	0.157	1.410	0.093	0.830
	600~700만원 미만	0.180	1.250	0.087	0.620
	700~800만원 미만	-0.001	0.000	-0.126	-0.660
	800만원 이상	0.021	0.120	-0.009	-0.050
결혼여부 (미혼)	배우자 있음	0.086	1.250	0.034	0.490
	사별	-0.062	-0.840	0.003	0.040
	이혼	-0.089	-1.060	-0.033	-0.390
가구주와 관계 (본인)	배우자	-0.103*	-2.320	-0.137**	-3.020
	미혼 자녀	-0.309**	-3.490	-0.895**	-9.930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0.339*	-2.000	-0.723**	-4.150
	손자녀 및 그 배우자	-0.705*	-2.160	-0.728*	-2.280
	부모(배우자 쪽 포함)	-0.316**	-4.040	-0.298**	-3.260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0.750*	-1.990	-0.517**	-2.710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0.315	-1.600	-0.471*	-2.400
	기타 친인척	-0.337	-0.840	-0.966+	-1.650
	기타 동거인	0.381	1.170	0.671*	1.970
가구유형 (1인가구)	2인가구이상	0.035*	1.970	0.117**	6.540
다문화가족 (있음)	없음	0.093	1.040	0.347**	3.710
가구부채 (있음)	없음	-0.111**	-3.660	-0.136**	-4.470
/cut1		-4.007**	-21.360	-5.086**	-26.010
/cut2		-3.188**	-17.150	-4.390**	-22.610
/cut3		0.300	1.630	-0.453*	-2.360
/cut4		2.063**	11.140	1.421**	7.400
Observations		24,855		24,857	
Pseudo R-squared		0.1033		0.1643	

Robust z-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4. 코로나19가 도민의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3개 분야 6개 조사항목이 실제 도민의 삶의 만족감, 행복감, 우울감 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16>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소득이다. 특이한 점은 모임변수의 경우 삶의 만족, 생활만족, 행복에 오히려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걱정과 우울의 부정적 감정에는 양(+)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코로나19상황에서 모임을 회피하는 현상이나 우울한 사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임에 참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모임목적을 분명히 알 수 없으므로 향후 조사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3-16>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불안 등의 변화가 삶의 만족도 등에 주는 영향(회귀분석 결과 : 종합표)

구분	삶의 만족	생활만족	행복	걱정	우울
일자리불안감	-0.061**	-0.043**	-0.080**	0.100**	0.092**
	(-3.80)	(-2.66)	(-5.08)	(6.30)	(5.67)
소득변화	0.227**	0.207**	0.189**	-0.147**	-0.163**
	(11.73)	(10.86)	(9.95)	(-7.80)	(-8.76)
여가활동	0.041+	0.034	0.042+	-0.013	-0.025
	(1.89)	(1.54)	(1.94)	(-0.62)	(-1.16)
모임횟수	-0.138**	-0.124**	-0.127**	0.075**	0.117**
	(-6.11)	(-5.54)	(-5.61)	(3.36)	(5.23)
온라인쇼핑이용횟수	0.117**	0.046*	0.099**	-0.022	-0.047*
	(5.45)	(2.07)	(4.60)	(-1.00)	(-2.14)
배달음식주문횟수	-0.046*	-0.066**	-0.006	0.065**	0.040+
	(-2.01)	(-2.75)	(-0.27)	(2.80)	(1.72)
Observations	17,388	17,387	17,387	17,388	17,380
Pseudo R-squared	0.0283	0.0173	0.0255	0.0154	0.0175

Robust z-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주 : 지역 관련 변수 외 세부변수는 지면관계 상 표시하지 않았으며, 세부내용은 <부록1> 참조



5. 결론 및 정책 제언

2021년 충남사회지표조사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3개 분야 6개 조사항목이 있다. 제한적이지만 이들 항목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코로나19의 취약계층 선정 및 대응전략 마련

6개 조사항목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취약계층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언급한 자영업자와 청년이었다. 특히, 같은 자영업자라도 고용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다 세밀한 접근이 요구되며, 청년은 지역사회 활력 유지·강화 등을 위해 중요한 인적 자본이므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사회에서의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 등 상업 환경의 특징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자영업자와 창업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충남도의 실천 대책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코로나19의 취약지역 선정 및 대응전략 마련

취약계층 선정과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19 취약지역을 분석한 결과,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집중된 도시였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질적 개선과 더 나아가 건강한 도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즉, 도시의 양적성장 못지않게 팬데믹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한 도시 공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실증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 코로나19로 본 충남의 도시정책 과제

코로나19에 과밀지역은 취약하고, 인구감소가 심한 농촌(인구감소)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지역 매력을 높이는 특화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인구가 적고 밀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팬데믹에

안전하지만, 한 번 타격을 받으면 큰 상처를 받고 회복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인구 감소가 지역경제와 활력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주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사람과 활동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활동인구까지 감소된다면 그야말로 지방소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를 바라보는 정책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도시의 성장 못지않게, 팬데믹에 강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복지 개념의 마을만들기, 공간복지[3] 개념의 생활SOC재편 등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재편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 코로나19가 주는 긍정적 변화와 지역정책 기본방향

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주는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발전은 전염병의 역사이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 기술발전을 앞당길 것이며, 그 결과 우리에게 더 편리함을 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계층간·지역간 격차가 심화될 우려된다.

코로나19의 피해계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진입장벽은 낮고, 출구전략은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도시 내에 상업지역, 상업용지가 과다하다. 수요가 감소하고 쇠퇴하는 도시도 상업용 토지는 늘어난다. 이는 도시재생과 신개발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 도시규모에 따른 상업용 토지의 총량과 입지가 적절한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상업공간의 질을 높여 매력적인 상업공간 만들기에 집중하여야 한다. 즉, 적정규모의 도시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가 우리의 도시공간에 주는 최대 시사점은 도시 내 3밀 공간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정책적 관점에서의 핵심은 대도시의 위기와 지방도시의 기회, 오픈스페이스의 중요성, 대중교통의 역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3) 국회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에 필요한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공간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가 고루 갖춰진 공간복지 설계를 위한 개별 사업법과 예산과 소관부처까지 모두 달라 시설 및 기능의 중복성 우려가 높은 한계점에 따라 본 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공간복지시설의 계획적 공급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출처: 「공간복지기본법」 대표발의, 작성자 국회의원 윤관석(2021.09.13.)).



▶ 충남 민선8기의 양극화 대책 기본방향

민선7기 충남도는 저출생 양극화 정책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기술발전, 인구감소로 양극화·격차 문제는 더욱 가속화·심화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이에 민선8기에는 양극화 정책을 보다 다양화·체계화·지역화하여야 할 것이다.

양극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남의 계층적·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책개발과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충남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성장하는 지역과 쇠퇴하는 지역이 공존하고, 도시와 농산어촌이 함께하고, 지역 간 격차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심하다. 이러한 충남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정책을 실험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사업 사례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이다. 꿈비채 주택공급사업의 성공과 과제 그리고 시사점은 전국적 확산의 가능성과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도 함께 표출하였다. 즉, 지역의 문제해결 방식이 국가에 주는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도적 시도와 더불어 충남도의 양극화 정책은 지역특색을 살리고 도민의 실질적인 삶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화·체계화·지역화되어야 한다.

▶ 코로나19와 연계한 2022년 충남사회지표조사 필요

코로나19를 경험한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분야, 많은 조사·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해 실험적·실증적 조사·분석이 이루어 졌다. 충청남도 역시 충남사회지표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를 조사하였지만 지표선정과 조사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의 더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영향과 대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2022년 충남사회지표조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사회지표와 연계한 기초적으로는 조사항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된 조사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남지역의 특색을 살린 코로나19 관련 조사항목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2022년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민선8기가 시작되는 해로 새로운 많은 정책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조사항목이 보완 될 경우 충남사회지표조사의 정책적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보도자료

충청남도(2021). 충남 사회조사(원자료)

매일노동뉴스(2021.12.11.). [한국노총 조합원 3천명에게 물었더니]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감소, 빈부격차 심화" 언론기사

유현아(2021). 코로나19 이후 대도시 집중-분산 이슈 탐색, 국토연구원

한국노총(2021). 코로나19 노동환경 변화 의식조사 결과(매일노동뉴스(2021.12.11.)

OECD(2020).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Paris: OECD. Relph, E. 2020. Further Comments and Sources on the Future of Places 2: Urbanization

<부록 1> 코로나19가 일자리불안 등에 주는 영향(회귀분석 결과 : 종합표)

구분	세부항목	일자리불안감		소득변화		여가활동		모임횟수		온라인쇼핑이용횟수		배달음식주문횟수	
시군 (천안시)	공주시	-0.630**	-7.520	-0.185*	-2.440	0.280**	4.690	0.444**	7.360	-0.497**	-7.790	-0.876**	-13.200
	보령시	-0.570**	-8.220	0.255**	3.720	0.779**	13.460	0.705**	11.770	-0.397**	-6.500	-0.559**	-8.940
	아산시	-0.157*	-2.480	-0.163*	-2.440	0.153**	2.810	0.220**	3.830	-0.265**	-4.690	-0.252**	-4.460
	서산시	-0.611**	-8.420	-0.377**	-5.720	-0.001	-0.020	-0.222**	-3.680	0.049	0.840	-0.048	-0.840
	논산시	-0.230**	-3.270	0.061	0.850	0.261**	4.370	0.167*	2.560	-0.130*	-2.100	-0.370**	-6.020
	계룡시	-0.643**	-7.120	0.378**	3.950	0.623**	7.700	0.549**	6.560	-0.455**	-5.020	-0.478**	-5.560
	당진시	-0.403**	-5.920	-0.109	-1.590	0.099+	1.810	0.089	1.540	-0.533**	-8.940	-0.457**	-7.600
	금산군	-0.034	-0.370	-0.407**	-4.630	-0.250**	-3.480	-0.279**	-3.770	-0.063	-0.890	-0.329**	-4.670
	부여군	-0.468**	-5.820	-0.041	-0.520	0.577**	8.880	0.494**	7.010	-0.311**	-4.770	-0.508**	-7.730
	서천군	-0.483**	-7.100	0.451**	6.220	0.671**	11.980	0.649**	11.210	-0.790**	-11.990	-0.921**	-13.320
	청양군	-0.556**	-7.510	0.047	0.640	0.189**	3.040	0.075	1.120	-0.148*	-2.290	-0.407**	-5.780
	홍성군	-0.611**	-9.350	0.248**	3.540	0.364**	6.190	0.378**	5.970	-0.314**	-5.390	-0.514**	-8.520
	예산군	-0.437**	-5.600	0.077	1.070	0.189**	2.920	0.048	0.710	-0.673**	-9.350	-0.945**	-12.910
	태안군	-0.793**	-8.710	-0.539**	-5.990	-0.313**	-4.390	-0.054	-0.740	-0.545**	-6.920	-0.768**	-9.700
거주 지역 (동부)	읍부	-0.015	-0.310	0.225**	4.490	0.171**	4.220	0.153**	3.470	-0.039	-0.860	-0.161**	-3.470
	면부	0.004	0.070	0.124*	2.360	-0.047	-1.060	0.065	1.350	-0.121*	-2.490	-0.332**	-6.630
거주 특성 (도시)	농촌	-0.018	-0.340	0.080	1.560	-0.080+	-1.910	-0.219**	-4.950	0.120**	2.580	-0.090+	-1.860
	어촌	0.622**	4.250	-0.571**	-3.790	0.018	0.160	0.011	0.100	0.103	0.930	-0.261*	-2.300
주택 유형 (단독)	아파트	0.021	0.490	0.026	0.610	-0.146**	-4.230	-0.138**	-3.780	0.060	1.600	0.286**	7.360
	연립/다세대 주택	0.009	0.130	0.068	1.090	0.092+	1.830	0.154**	2.920	-0.103+	-1.880	0.098+	1.720
	기타	0.061	0.610	-0.176+	-1.830	-0.005	-0.060	0.147+	1.770	0.053	0.610	0.241**	2.61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전세	0.104+	1.680	-0.163**	-2.610	0.009	0.170	0.012	0.200	0.073	1.280	0.078	1.380
	월세/기타	0.244**	5.150	-0.122**	-2.630	0.031	0.850	0.041	1.040	0.018	0.440	0.093*	2.240
거주 기간 (5년 미만)	5~10년 미만	0.067	0.930	-0.125+	-1.670	0.036	0.570	0.068	1.020	-0.118+	-1.700	-0.078	-1.130
	10~15년 미만	0.019	0.250	-0.086	-1.150	0.003	0.050	0.014	0.210	-0.165*	-2.410	-0.060	-0.870
	15~20년 미만	-0.036	-0.450	-0.150+	-1.770	0.086	1.240	0.124+	1.690	-0.245**	-3.250	-0.035	-0.460
	20년 이상	0.012	0.210	-0.104+	-1.780	0.073	1.510	0.022	0.420	-0.257**	-4.810	-0.079	-1.480
성별 (남성)	여성	0.057	1.360	0.084*	2.020	-0.124**	-3.600	-0.108**	-2.960	0.461**	12.710	0.302**	8.120
연령 (20세미만)	20대	0.206	1.500	-0.377*	-2.000	-0.095	-0.870	-0.136	-1.230	0.322**	2.980	0.121	1.080
	30대	-0.080	-0.550	-0.735**	-3.810	-0.294*	-2.510	-0.235+	-1.910	0.163	1.350	-0.330**	-2.660
	40대	-0.025	-0.170	-0.947**	-4.900	-0.126	-1.080	-0.267*	-2.170	-0.197	-1.640	-0.825**	-6.650
	50대	-0.093	-0.620	-1.203**	-6.140	-0.002	-0.020	-0.151	-1.200	-0.725**	-5.850	-1.573**	-12.320
	60세 이상	-0.310*	-2.010	-1.009**	-5.110	0.100	0.820	-0.143	-1.120	-1.161**	-9.200	-2.062**	-15.790
학력 (초졸 이하)	중졸 이하	0.074	1.390	-0.220**	-4.510	-0.273**	-6.530	-0.377**	-8.820	-0.053	-1.240	-0.150**	-3.290
	고졸 이하	0.078	1.450	-0.323**	-6.660	-0.394**	-9.800	-0.516**	-12.300	0.275**	6.350	0.189**	4.160
	대학 이상	0.207**	3.340	-0.183**	-3.150	-0.592**	-12.190	-0.732**	-14.240	0.680**	12.880	0.567**	10.650
직업 (전문/관리)	사무	-0.143*	-2.400	0.122+	1.830	-0.020	-0.300	0.092	1.250	-0.138*	-1.990	-0.023	-0.330
	서비스/판매	0.142*	2.260	-0.413**	-6.280	-0.103+	-1.720	-0.059	-0.880	-0.230**	-3.510	-0.230**	-3.550
	농어업	-0.465**	-6.000	0.852**	11.050	0.184**	2.700	0.159*	2.110	-0.164*	-2.250	-0.091	-1.220
	기능/ 노무 등	-0.036	-0.640	-0.119*	-1.970	0.019	0.350	0.069	1.130	-0.177**	-3.000	-0.094	-1.590
	직업 없음	0.292**	4.570	-0.520**	-7.750	0.123*	2.210	0.381**	6.190	-0.264**	-4.430	-0.297**	-4.930

구분	세부항목	일자리불안감		소득변화		여가활동		모임횟수		온라인쇼핑이용횟수		배달음식주문횟수	
근로 형태 (상용 근로자)	임시근로자	0.407**	6.440	-0.492**	-7.380	0.004	0.070	0.026	0.420	-0.021	-0.320	-0.064	-1.000
	일용근로자	0.490**	5.360	-1.007**	-12.750	0.064	0.850	0.073	0.950	-0.292**	-3.450	-0.223**	-2.600
	고용원이있는 자영업자	0.229*	2.510	-1.435**	-16.560	0.019	0.240	0.126	1.450	-0.125	-1.380	-0.035	-0.400
	고용원이없는 자영업자	0.341**	5.770	-1.511**	-26.810	-0.155**	-3.150	-0.047	-0.880	-0.070	-1.230	-0.124*	-2.210
	무급가족종사자	0.390**	5.010	-1.370**	-17.110	-0.040	-0.570	-0.014	-0.190	-0.238**	-3.100	-0.338**	-4.340
소득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170+	-1.690	0.306**	3.770	0.198**	3.070	0.259**	3.920	0.056	0.970	0.072	1.140
	100~200만원 미만	-0.089	-0.810	0.175+	1.870	0.226**	3.080	0.107	1.430	0.168*	2.360	0.252**	3.290
	200~300만원 미만	-0.211+	-1.840	0.323**	3.230	0.225**	2.830	0.066	0.830	0.157*	1.970	0.219*	2.580
	300~400만원 미만	-0.251*	-2.110	0.538**	5.050	0.284**	3.380	0.054	0.640	0.285**	3.300	0.335**	3.690
	400~500만원 미만	-0.377**	-3.050	0.691**	6.150	0.278**	3.100	-0.032	-0.350	0.359**	3.860	0.430**	4.460
	500~600만원 미만	-0.336**	-2.610	0.872**	7.300	0.203*	2.090	-0.111	-1.140	0.391**	3.900	0.489**	4.740
	600~700만원 미만	-0.487**	-3.590	0.916**	7.100	0.239*	2.240	-0.067	-0.610	0.320**	2.930	0.324**	2.850
	700~800만원 미만	-0.386**	-2.680	1.027**	7.240	0.217+	1.910	-0.171	-1.430	0.535**	4.360	0.662**	5.360
	800만원 이상	-0.438**	-3.150	1.226**	9.160	0.202+	1.840	-0.199+	-1.750	0.645**	5.670	0.583**	4.960
지출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062	0.750	-0.205**	-2.920	-0.349**	-6.100	-0.308**	-5.280	-0.040	-0.800	-0.092+	-1.660
	100~200만원 미만	0.049	0.540	-0.284**	-3.450	-0.624**	-9.240	-0.495**	-7.320	0.097	1.520	-0.015	-0.220
	200~300만원 미만	0.104	1.050	-0.255**	-2.810	-0.723**	-9.780	-0.487**	-6.580	0.114	1.560	0.024	0.310
	300~400만원 미만	0.162	1.530	-0.482**	-4.950	-0.691**	-8.550	-0.499**	-6.170	0.205*	2.530	0.114	1.360
	400~500만원 미만	0.047	0.420	-0.412**	-3.750	-0.658**	-7.180	-0.458**	-4.960	0.198*	2.160	0.220*	2.330
	500~600만원 미만	0.050	0.370	-0.449**	-3.460	-0.631**	-5.740	-0.553**	-4.870	0.157	1.410	0.093	0.830
	600~700만원 미만	-0.014	-0.100	-0.383**	-2.640	-0.826**	-6.420	-0.656**	-4.680	0.180	1.250	0.087	0.620
	700~800만원 미만	-0.036	-0.190	-0.457*	-2.050	-0.879**	-4.820	-0.714**	-3.620	-0.001	0.000	-0.126	-0.660
	800만원 이상	-0.066	-0.360	-0.645**	-3.610	-1.013**	-6.650	-0.721**	-4.390	0.021	0.120	-0.009	-0.050
결혼 여부 (미혼)	배우자 있음	-0.016	-0.210	0.172*	2.310	-0.125*	-2.000	-0.140*	-2.090	0.086	1.250	0.034	0.490
	사별	-0.167+	-1.860	0.364**	4.250	0.033	0.460	0.118	1.550	-0.062	-0.840	0.003	0.040
	이혼	0.150	1.630	0.044	0.490	0.018	0.240	0.079	1.000	-0.089	-1.060	-0.033	-0.390



구분	세부항목	일자리불안감		소득변화		여가활동		모임횟수		온라인쇼핑이용횟수		배달음식주문횟수	
가구 주와 관계 (본인)	배우자	-0.095+	-1.870	-0.061	-1.220	-0.011	-0.250	0.034	0.780	-0.103*	-2.320	-0.137**	-3.020
	미혼 자녀	0.108	1.180	-0.155	-1.500	0.008	0.100	0.108	1.210	-0.309**	-3.490	-0.895**	-9.930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0.123	-0.800	-0.311*	-1.990	-0.154	-1.180	0.057	0.420	-0.339*	-2.000	-0.723**	-4.150
	손자녀 및 그 배우자	-0.382	-0.880	0.149	0.420	0.209	0.870	0.702**	3.200	-0.705*	-2.160	-0.728*	-2.280
	부모 (배우자 쪽 포함)	-0.137	-1.050	0.102	0.850	0.317**	3.770	0.482**	5.290	-0.316**	-4.040	-0.298**	-3.260
	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	0.014	0.010	-0.784	-0.990	0.411	0.720	0.874*	1.980	-0.750*	-1.990	-0.517**	-2.710
	형제자매 (배우자 쪽 포함)	-0.166	-0.540	0.241	0.780	-0.041	-0.210	0.275	1.340	-0.315	-1.600	-0.471*	-2.400
	기타 친인척	1.321*	2.380	0.137	0.140	-0.409	-0.540	0.119	0.200	-0.337	-0.840	-0.966+	-1.650
	기타 동거인	0.203	0.680	-0.318	-1.120	0.242	0.640	-0.379	-0.950	0.381	1.170	0.671*	1.970
가구 유형 (1인 가구)	2인가구 이상	0.047*	2.540	-0.033+	-1.710	0.042**	2.620	0.010	0.610	0.035*	1.970	0.117**	6.540
다문화 가족 (있음)	없음	0.004	0.040	0.149	1.540	-0.217**	-2.680	-0.336**	-3.930	0.093	1.040	0.347**	3.710
가구 부채 (있음)	없음	-0.172**	-5.250	0.383**	11.620	0.115**	4.200	0.166**	5.700	-0.111**	-3.660	-0.136**	-4.470
/cut1		-3.576**	-16.030	-3.035**	-11.970	-1.470**	-8.300	-0.901**	-4.850	-4.007**	-21.360	-5.086**	-26.010
/cut2		-2.655**	-12.000	-1.566**	-6.210	0.195	1.100	0.694**	3.730	-3.188**	-17.150	-4.390**	-22.610
/cut3		0.102	0.460	1.828**	7.230	2.880**	16.060	3.059**	16.070	0.300	1.630	-0.453*	-2.360
/cut4		1.344**	6.090	2.879**	11.270	3.739**	20.310	3.552**	18.400	2.063**	11.140	1.421**	7.400
Observations		17,795		19,705		24,852		24,863		24,855		24,857	
Pseudo R-squared		0.0253		0.0602		0.0414		0.0567		0.1033		0.1643	

Robust z-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록 2>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불안 등의 변화가 삶의 만족도 등에 주는 영향(회귀분석 결과 : 종합표)

구분	세부항목	q1_1_1	삶의 만족	q1_1_2	생활 만족	q1_2_1	행복	q1_2_2	걱정	q1_2_3	우울
일자리불안감		-0.061**	(-3.80)	-0.043**	(-2.66)	-0.080**	(-5.08)	0.100**	(6.30)	0.092**	(5.67)
소득변화		0.227**	(11.73)	0.207**	(10.86)	0.189**	(9.95)	-0.147**	(-7.80)	-0.163**	(-8.76)
여가활동		0.041+	(1.89)	0.034	(1.54)	0.042+	(1.94)	-0.013	(-0.62)	-0.025	(-1.16)
모임횟수		-0.138**	(-6.11)	-0.124**	(-5.54)	-0.127**	(-5.61)	0.075**	(3.36)	0.117**	(5.23)
온라인쇼핑이용횟수		0.117**	(5.45)	0.046*	(2.07)	0.099**	(4.60)	-0.022	(-1.00)	-0.047*	(-2.14)
배달음식주문횟수		-0.046*	(-2.01)	-0.066**	(-2.75)	-0.006	(-0.27)	0.065**	(2.80)	0.040+	(1.72)
시군 (천안시)	공주시	-0.129+	(-1.89)	-0.228**	(-3.31)	-0.150*	(-2.27)	0.033	(0.52)	0.320**	(4.88)
	보령시	-0.105	(-1.53)	-0.178**	(-2.58)	-0.093	(-1.40)	0.221**	(3.19)	-0.093	(-1.35)
	아산시	-0.037	(-0.62)	0.110+	(1.87)	-0.037	(-0.65)	0.048	(0.83)	0.032	(0.53)
	서산시	-0.222**	(-3.72)	-0.151*	(-2.52)	-0.198**	(-3.33)	-0.035	(-0.58)	0.100+	(1.68)
	논산시	-0.027	(-0.38)	-0.115+	(-1.70)	0.039	(0.57)	-0.061	(-0.88)	0.004	(0.06)
	계룡시	0.126	(1.54)	0.231**	(2.89)	0.284**	(3.54)	0.000	(0.00)	-0.037	(-0.46)
	당진시	-0.101	(-1.58)	-0.333**	(-4.96)	-0.159*	(-2.52)	-0.026	(-0.43)	0.039	(0.66)
	금산군	0.374**	(4.24)	0.423**	(4.90)	0.363**	(4.15)	-0.089	(-0.94)	-0.062	(-0.69)
	부여군	0.112	(1.39)	0.097	(1.19)	0.050	(0.67)	-0.237**	(-3.06)	-0.346**	(-4.60)
	서천군	0.489**	(7.22)	0.312**	(4.46)	0.481**	(6.58)	-0.947**	(-11.74)	-0.910**	(-11.71)
	청양군	0.319**	(4.23)	0.255**	(3.44)	0.229**	(3.06)	-0.466**	(-6.41)	-0.526**	(-7.48)
	홍성군	0.136+	(1.82)	0.116	(1.58)	0.184**	(2.58)	-0.211**	(-2.82)	-0.042	(-0.58)
	예산군	0.052	(0.68)	-0.020	(-0.27)	-0.055	(-0.73)	-0.131+	(-1.80)	-0.090	(-1.17)
	태안군	0.131	(1.51)	0.185*	(2.10)	0.387**	(4.43)	-0.216*	(-2.44)	-0.256**	(-3.06)
거주 지역 (동부)	읍부	0.075	(1.56)	-0.004	(-0.07)	0.000	(0.01)	0.032	(0.65)	-0.112*	(-2.37)
	면부	0.113*	(2.20)	-0.056	(-1.10)	0.034	(0.68)	-0.066	(-1.36)	-0.121*	(-2.52)
거주 특성 (도시)	농촌	-0.014	(-0.27)	0.036	(0.71)	-0.016	(-0.32)	-0.040	(-0.80)	-0.028	(-0.57)
	어촌	-0.155	(-1.05)	-0.034	(-0.23)	-0.132	(-0.85)	0.092	(0.56)	-0.103	(-0.69)
주택 유형 (단독)	아파트	0.008	(0.21)	-0.036	(-0.91)	0.019	(0.49)	0.020	(0.51)	-0.017	(-0.42)
	연립/다세대 주택	0.117*	(2.02)	0.043	(0.75)	0.000	(0.00)	0.098+	(1.67)	0.063	(1.10)
	기타	0.045	(0.44)	-0.084	(-0.85)	0.032	(0.34)	0.028	(0.30)	0.072	(0.80)
주택 점유 형태 (자가)	전세	-0.140*	(-2.48)	-0.120*	(-2.06)	-0.122*	(-2.23)	0.157**	(2.76)	0.129*	(2.25)
	월세/기타	-0.195**	(-4.36)	-0.129**	(-3.02)	-0.215**	(-4.86)	0.175**	(4.04)	0.199**	(4.61)
거주 기간 (5년 미만)	5~10년 미만	-0.046	(-0.68)	-0.038	(-0.54)	-0.029	(-0.43)	0.061	(0.93)	0.017	(0.26)
	10~15년 미만	-0.010	(-0.14)	0.040	(0.59)	0.006	(0.10)	-0.003	(-0.04)	0.007	(0.11)
	15~20년 미만	-0.106	(-1.40)	-0.023	(-0.29)	-0.115	(-1.53)	0.141+	(1.86)	0.127+	(1.66)
	20년 이상	-0.133*	(-2.47)	0.012	(0.21)	-0.117*	(-2.27)	0.167**	(3.21)	0.130*	(2.51)
성별 (남성)	여성	0.081*	(2.05)	-0.004	(-0.11)	0.125**	(3.26)	0.072+	(1.86)	0.051	(1.34)
연령 (20세미만)	20대	-0.493**	(-3.32)	-0.152	(-1.01)	-0.325*	(-2.18)	0.183	(1.23)	0.255+	(1.74)
	30대	-0.813**	(-5.28)	-0.370*	(-2.37)	-0.662**	(-4.35)	0.315*	(2.06)	0.507**	(3.36)
	40대	-1.044**	(-6.76)	-0.457**	(-2.92)	-0.933**	(-6.10)	0.437**	(2.84)	0.693**	(4.58)
	50대	-1.092**	(-6.88)	-0.415**	(-2.59)	-0.932**	(-5.93)	0.423**	(2.69)	0.691**	(4.46)
	60세 이상	-0.911**	(-5.62)	-0.155	(-0.95)	-0.828**	(-5.18)	0.151	(0.94)	0.526**	(3.33)
학력 (초졸 이하)	중졸 이하	-0.005	(-0.10)	-0.078	(-1.49)	0.085	(1.58)	0.010	(0.18)	0.094+	(1.75)
	고졸 이하	-0.005	(-0.10)	-0.117*	(-2.35)	0.107*	(2.07)	-0.039	(-0.74)	-0.027	(-0.53)
	대학 이상	0.310**	(5.23)	0.109+	(1.87)	0.387**	(6.53)	-0.090	(-1.52)	-0.093	(-1.60)
직업 (전문/관리)	사무	-0.062	(-1.01)	-0.043	(-0.67)	-0.127*	(-2.10)	0.060	(0.96)	0.105+	(1.73)
	서비스/판매	-0.290**	(-5.01)	-0.195**	(-3.31)	-0.273**	(-4.78)	0.112+	(1.96)	0.079	(1.38)
	농어업	-0.235**	(-3.30)	-0.142*	(-1.98)	-0.165*	(-2.31)	0.069	(0.96)	0.028	(0.39)
	기능/노무 등	-0.242**	(-4.59)	-0.188**	(-3.44)	-0.240**	(-4.57)	0.085	(1.60)	0.006	(0.12)
	직업 없음	-0.349**	(-5.88)	-0.203**	(-3.34)	-0.254**	(-4.35)	0.218**	(3.72)	0.259**	(4.50)



구분	세부항목	q1_1_1	삶의 만족	q1_1_2	생활 만족	q1_2_1	행복	q1_2_2	걱정	q1_2_3	우울
근로 형태 (상용 근로자)	임시근로자	-0.070	(-1.20)	0.003	(0.05)	-0.016	(-0.28)	0.066	(1.13)	0.123*	(2.10)
	일용근로자	-0.222**	(-2.90)	-0.070	(-0.95)	-0.067	(-0.91)	0.133+	(1.79)	0.106	(1.40)
	고용원이있는 자영업자	0.038	(0.50)	0.097	(1.27)	-0.004	(-0.06)	0.090	(1.11)	0.112	(1.44)
	고용원이없는 자영업자	0.049	(0.96)	0.083+	(1.65)	-0.025	(-0.51)	0.134**	(2.68)	0.105*	(2.11)
	무급가족종사자	-0.054	(-0.72)	0.018	(0.24)	-0.116	(-1.53)	0.212**	(2.81)	0.179*	(2.39)
소득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152	(1.60)	0.088	(0.95)	0.287**	(2.92)	0.036	(0.38)	0.138	(1.54)
	100~200만원 미만	0.307**	(3.14)	0.194*	(2.02)	0.344**	(3.37)	-0.057	(-0.58)	-0.081	(-0.87)
	200~300만원 미만	0.560**	(5.53)	0.402**	(4.05)	0.576**	(5.48)	-0.109	(-1.06)	-0.132	(-1.37)
	300~400만원 미만	0.766**	(7.29)	0.563**	(5.43)	0.772**	(7.15)	-0.353**	(-3.30)	-0.302**	(-3.01)
	400~500만원 미만	0.809**	(7.32)	0.540**	(4.98)	0.807**	(7.16)	-0.409**	(-3.65)	-0.368**	(-3.47)
	500~600만원 미만	0.997**	(8.63)	0.768**	(6.76)	0.956**	(8.14)	-0.539**	(-4.61)	-0.444**	(-4.03)
	600~700만원 미만	1.219**	(9.91)	0.896**	(7.33)	1.116**	(9.04)	-0.664**	(-5.25)	-0.701**	(-5.83)
	700~800만원 미만	1.211**	(9.06)	0.924**	(6.96)	1.229**	(9.41)	-0.593**	(-4.39)	-0.698**	(-5.39)
	800만원 이상	1.435**	(11.41)	1.040**	(8.27)	1.319**	(10.41)	-0.521**	(-4.04)	-0.666**	(-5.47)
지출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0.156+	(1.95)	0.183*	(2.34)	0.084	(1.01)	-0.235**	(-2.99)	-0.247**	(-3.25)
	100~200만원 미만	0.147+	(1.74)	0.159+	(1.91)	0.052	(0.60)	-0.197*	(-2.32)	-0.155+	(-1.90)
	200~300만원 미만	0.100	(1.10)	0.161+	(1.82)	-0.044	(-0.48)	-0.134	(-1.47)	-0.182*	(-2.07)
	300~400만원 미만	0.124	(1.31)	0.172+	(1.84)	-0.005	(-0.05)	-0.151	(-1.58)	-0.160+	(-1.72)
	400~500만원 미만	-0.042	(-0.41)	0.071	(0.69)	-0.121	(-1.17)	-0.088	(-0.84)	-0.089	(-0.87)
	500~600만원 미만	-0.111	(-0.89)	-0.084	(-0.67)	-0.175	(-1.45)	-0.000	(-0.00)	-0.149	(-1.22)
	600~700만원 미만	-0.035	(-0.26)	0.186	(1.35)	-0.176	(-1.32)	-0.065	(-0.46)	0.121	(0.89)
	700~800만원 미만	0.237	(1.43)	0.155	(0.91)	0.092	(0.54)	-0.207	(-0.98)	-0.387+	(-1.84)
	800만원 이상	-0.438**	(-2.71)	-0.346*	(-2.16)	-0.344*	(-2.13)	0.102	(0.65)	0.096	(0.60)
결혼 여부 (미혼)	배우자 있음	0.432**	(6.53)	0.208**	(3.20)	0.458**	(6.94)	-0.122+	(-1.86)	-0.207**	(-3.21)
	사별	0.306**	(3.57)	0.144+	(1.75)	0.292**	(3.41)	-0.056	(-0.67)	-0.024	(-0.29)
	이혼	-0.018	(-0.22)	-0.099	(-1.26)	-0.065	(-0.82)	0.148+	(1.88)	0.216**	(2.66)
가구 주와 관계 (본인)	배우자	0.021	(0.45)	0.014	(0.30)	-0.020	(-0.44)	-0.127**	(-2.75)	-0.036	(-0.79)
	미혼 자녀	-0.344**	(-3.83)	-0.244**	(-2.68)	-0.367**	(-4.21)	0.128	(1.47)	0.253**	(2.84)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0.700**	(-4.87)	-0.523**	(-3.55)	-0.580**	(-4.21)	0.348*	(2.55)	0.367**	(2.68)
	손자녀 및 그 배우자	0.285	(0.72)	0.279	(0.81)	-0.146	(-0.40)	0.133	(0.43)	0.296	(0.90)
	부모(배우자 쪽 포함)	-0.279*	(-2.12)	-0.209+	(-1.68)	-0.280*	(-2.20)	0.167	(1.22)	0.167	(1.22)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0.153	(-0.17)	0.793	(1.09)	-0.315	(-1.01)	0.602	(0.59)	0.341	(1.18)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0.142	(-0.59)	0.036	(0.16)	-0.155	(-0.80)	0.154	(0.69)	0.191	(0.91)
	기타 친인척	0.115	(0.15)	-0.273	(-0.51)	0.271	(0.39)	-0.694	(-0.75)	0.009	(0.01)
	기타 동거인	-0.065	(-0.27)	0.262	(1.15)	0.099	(0.42)	0.150	(0.57)	0.218	(0.96)
가구유형 (1인가구)	2인가구이상	-0.101**	(-5.81)	-0.101**	(-5.72)	-0.036*	(-2.12)	0.100**	(5.73)	0.070**	(4.02)
다문화 가족 (있음)	없음	0.024	(0.25)	-0.182+	(-1.85)	0.126	(1.35)	-0.013	(-0.15)	-0.057	(-0.67)
가구부채 (있음)	없음	0.241**	(8.09)	0.204**	(6.82)	0.122**	(4.10)	-0.306**	(-10.19)	-0.181**	(-6.11)
/cut1		-5.075**	(-19.05)	-5.030**	(-18.83)	-5.070**	(-18.71)	-2.729**	(-11.37)	-1.884**	(-8.01)
/cut2		-4.040**	(-15.93)	-4.046**	(-15.81)	-3.880**	(-15.55)	-1.817**	(-7.62)	-1.035**	(-4.40)
/cut3		-3.334**	(-13.33)	-3.304**	(-13.11)	-2.997**	(-12.24)	-0.944**	(-3.96)	-0.342	(-1.45)
/cut4		-2.502**	(-10.14)	-2.566**	(-10.28)	-2.224**	(-9.15)	-0.313	(-1.32)	0.183	(0.78)
/cut5		-1.949**	(-7.94)	-2.015**	(-8.09)	-1.573**	(-6.51)	0.136	(0.57)	0.575*	(2.45)
/cut6		0.010	(0.04)	-0.134	(-0.54)	0.207	(0.86)	1.330**	(5.59)	1.983**	(8.41)
/cut7		0.565*	(2.31)	0.462+	(1.86)	0.809**	(3.36)	1.867**	(7.83)	2.572**	(10.88)
/cut8		1.349**	(5.50)	1.251**	(5.03)	1.624**	(6.73)	2.657**	(11.09)	3.298**	(13.82)
/cut9		2.378**	(9.67)	2.256**	(9.03)	2.568**	(10.62)	3.612**	(14.94)	4.146**	(17.10)
/cut10		3.269**	(13.20)	3.118**	(12.41)	3.485**	(14.33)	4.486**	(18.20)	5.028**	(20.17)

구분	세부항목	q1_1_1	삶의 만족	q1_1_2	생활 만족	q1_2_1	행복	q1_2_2	걱정	q1_2_3	우울
Observations		17,388		17,387		17,387		17,388		17,380	
Pseudo R-squared		0.0283		0.0173		0.0255		0.0154		0.0175	

Robust z-statistic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록 3> k-평균 군집분석 결과 : 집단분류 결과

구분	구분	군집분석결과		일자리불안감	소득증가	여가활동증가	모임참여증가	온라인쇼핑증가	배달음식주문증가
		해당군집	군집거리						
시군	천안시	1	0.2011	3.63	2.59	1.94	1.61	3.56	3.77
	공주시	2	0.1241	3.26	2.46	2.11	1.82	3.17	3.17
	보령시	2	0.2972	3.33	2.64	2.34	1.95	3.23	3.31
	아산시	1	0.1061	3.55	2.56	1.93	1.62	3.49	3.65
	서산시	1	0.2790	3.28	2.41	1.92	1.52	3.47	3.61
	논산시	2	0.2672	3.47	2.57	2.11	1.75	3.30	3.34
	계룡시	1	0.2852	3.34	2.71	2.10	1.76	3.43	3.63
	당진시	1	0.2759	3.43	2.53	1.98	1.62	3.31	3.50
	금산군	2	0.4135	3.53	2.43	1.95	1.61	3.32	3.28
	부여군	2	0.1937	3.32	2.61	2.29	1.90	3.21	3.20
	서천군	2	0.3952	3.34	2.71	2.36	1.96	2.98	3.03
	청양군	2	0.2095	3.22	2.62	2.12	1.67	3.23	3.17
	홍성군	2	0.3384	3.28	2.73	2.16	1.81	3.34	3.40
	예산군	2	0.2422	3.33	2.65	2.09	1.67	3.08	3.06
	태안군	2	0.4393	3.16	2.27	1.94	1.71	3.03	3.05
거주지역	동부	1	0.0952	3.48	2.53	1.99	1.66	3.48	3.69
	읍부	2	0.3034	3.39	2.61	2.09	1.71	3.32	3.40
	면부	2	0.0841	3.32	2.57	2.11	1.76	3.17	3.16
지역특성	도시	1	0.1124	3.45	2.56	2.01	1.68	3.46	3.65
	농촌	2	0.0983	3.33	2.58	2.12	1.74	3.18	3.16
	어촌	2	0.4279	3.56	2.28	2.24	1.94	3.08	3.02
거주주택유형	단독주택	2	0.0755	3.32	2.55	2.15	1.79	3.14	3.13
	아파트	1	0.0427	3.46	2.60	1.95	1.61	3.52	3.71
	연립/다세대 주택	2	0.2852	3.44	2.55	2.13	1.77	3.28	3.42
	기타	1	0.3182	3.51	2.36	2.04	1.77	3.45	3.58
주택점유형태	자기집	2	0.2092	3.34	2.57	2.08	1.72	3.26	3.32
	전세	1	0.1087	3.50	2.56	1.95	1.64	3.57	3.73
	월세/기타	1	0.2368	3.56	2.54	2.05	1.74	3.42	3.57
거주기간	5년 미만	1	0.1198	3.50	2.64	1.97	1.66	3.59	3.68
	5~10년 미만	1	0.0845	3.48	2.57	1.95	1.65	3.51	3.61
	10~15년 미만	1	0.0972	3.44	2.56	1.95	1.63	3.47	3.60
	15~20년 미만	1	0.1299	3.47	2.58	2.03	1.70	3.47	3.66
	20년 이상	2	0.1376	3.35	2.56	2.11	1.74	3.22	3.28
	무응답	2	0.9570	2.73	2.33	1.87	1.40	2.64	3.29
성별	남	2	0.2926	3.38	2.54	2.05	1.67	3.28	3.39
	여	2	0.2985	3.40	2.59	2.08	1.75	3.34	3.39
연령	15~19세	1	0.4236	3.61	2.80	2.13	1.88	3.50	3.74
	20대	1	0.5383	3.68	2.77	2.02	1.71	3.80	4.00
	30대	1	0.5183	3.50	2.68	1.83	1.56	3.83	4.04
	40대	1	0.2018	3.47	2.57	1.90	1.53	3.63	3.80
	50대	1	0.3771	3.40	2.43	1.98	1.59	3.34	3.38
	60세 이상	2	0.2717	3.26	2.56	2.22	1.85	2.99	3.00
학력	초졸 이하	2	0.4229	3.23	2.64	2.33	2.01	2.96	2.97
	중졸 이하	2	0.2437	3.31	2.46	2.13	1.74	3.01	3.03
	고졸 이하	1	0.3243	3.41	2.46	2.00	1.63	3.34	3.44
	대학 이상	1	0.2634	3.50	2.66	1.90	1.55	3.68	3.83
	무응답	1	0.3389	3.22	2.51	1.89	1.59	3.38	3.51

구분	구분	군집분석결과		일자리불안감	소득증가	여가활동증가	모임참여증가	온라인쇼핑증가	배달음식주문증가
		해당군집	군집거리						
직업	전문/관리	1	0.2951	3.47	2.67	1.89	1.50	3.71	3.83
	사무	1	0.3969	3.39	2.82	1.89	1.52	3.69	3.90
	서비스/판매	1	0.4099	3.50	2.29	1.92	1.56	3.36	3.44
	농어업	2	0.2918	3.15	2.57	2.16	1.72	3.05	3.02
	기능/노무 등	1	0.2382	3.42	2.53	2.00	1.62	3.36	3.50
	직업 없음	2	0.1912	3.43	2.62	2.17	1.88	3.22	3.28
	무응답	1	0.4707	3.17	2.50	2.11	1.44	3.22	3.67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	0.2358	3.40	2.76	1.92	1.53	3.60	3.76
	임시근로자	2	0.3352	3.49	2.55	2.09	1.72	3.32	3.41
	일용근로자	2	0.3279	3.51	2.31	2.09	1.70	3.16	3.27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1	0.4403	3.40	2.21	1.97	1.55	3.37	3.50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2	0.2997	3.30	2.31	2.05	1.64	3.15	3.17
	무급가족종사자	2	0.2388	3.25	2.45	2.11	1.67	3.11	3.06
	무응답	2	0.4115	3.00	2.32	2.11	1.89	3.12	3.23
소득(만원)	50만원 미만	2	0.4170	3.40	2.62	2.33	2.07	2.97	3.01
	50~100만원 미만	2	0.3751	3.31	2.61	2.30	2.03	2.98	3.01
	100~200만원 미만	2	0.1509	3.39	2.42	2.14	1.75	3.11	3.16
	200~300만원 미만	1	0.3516	3.40	2.49	2.00	1.63	3.30	3.41
	300~400만원 미만	1	0.1682	3.42	2.52	1.97	1.59	3.41	3.56
	400~500만원 미만	1	0.1005	3.38	2.57	1.97	1.55	3.49	3.65
	500~600만원 미만	1	0.2172	3.40	2.68	1.89	1.47	3.54	3.78
	600~700만원 미만	1	0.2695	3.35	2.73	1.86	1.48	3.60	3.76
	700~800만원 미만	1	0.3061	3.37	2.75	1.96	1.46	3.62	3.84
	800만원 이상	1	0.2714	3.30	2.72	1.91	1.46	3.61	3.68
	무응답	1	0.3829	3.75	2.50	1.86	1.50	3.50	3.86
소비지출액	50만원 미만	2	0.4889	3.32	2.67	2.40	2.12	2.98	3.02
	50~100만원 미만	2	0.2163	3.33	2.56	2.24	1.90	3.03	3.07
	100~200만원 미만	2	0.2733	3.40	2.48	2.04	1.65	3.26	3.33
	200~300만원 미만	1	0.2130	3.41	2.55	1.95	1.59	3.38	3.52
	300~400만원 미만	1	0.1115	3.42	2.52	1.92	1.53	3.51	3.67
	400~500만원 미만	1	0.1836	3.41	2.61	1.93	1.48	3.56	3.78
	500~600만원 미만	1	0.2145	3.40	2.69	1.96	1.46	3.59	3.75
	600~700만원 미만	1	0.2665	3.31	2.70	1.90	1.47	3.63	3.71
	700~800만원 미만	1	0.3203	3.32	2.63	1.75	1.42	3.51	3.70
	800만원 이상	1	0.2902	3.30	2.49	1.83	1.45	3.54	3.75
	무응답	1	0.3460	3.57	2.45	2.04	1.61	3.57	3.96
혼인상태상세	미혼	1	0.2213	3.57	2.65	2.02	1.72	3.59	3.76
	배우자 있음	2	0.3328	3.36	2.54	2.03	1.64	3.32	3.39
	사별	2	0.4515	3.25	2.68	2.34	2.06	2.96	2.99
	이혼	2	0.2791	3.52	2.38	2.08	1.75	3.18	3.28
	무응답	2	0.3873	3.40	2.80	2.00	1.75	3.25	3.00
가족구성원	가구주(본인)	2	0.2169	3.38	2.55	2.09	1.73	3.25	3.35
	배우자	1	0.3351	3.36	2.56	2.02	1.65	3.36	3.40
	미혼 자녀	1	0.2845	3.61	2.71	2.04	1.74	3.62	3.74
	기혼 자녀 및 그 배우자	1	0.3082	3.39	2.54	1.90	1.61	3.42	3.40
	손자녀 및 그 배우자	2	0.5281	3.33	2.76	2.20	2.07	3.30	3.57
	부모(배우자 쪽 포함)	2	0.4600	3.20	2.68	2.37	2.10	3.00	3.05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	2	0.6758	3.50	2.14	2.33	2.17	2.83	3.08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	1	0.3357	3.42	2.70	1.99	1.78	3.36	3.47
	기타 친인척	1	0.8988	4.31	2.75	2.06	1.82	3.59	3.65
	기타 동거인	1	0.7812	3.70	2.69	2.05	1.55	3.90	4.29



구분	구분	군집분석결과		일자리불안감	소득증가	여가활동증가	모임참여증가	온라인쇼핑증가	배달음식주문증가
		해당군집	군집거리						
가구원수	1인 가구	2	0.1346	3.40	2.58	2.17	1.87	3.19	3.27
	2인 가구	2	0.1089	3.33	2.53	2.10	1.72	3.17	3.18
	3인 가구	1	0.1148	3.42	2.57	1.97	1.63	3.46	3.58
	4인 가구	1	0.2357	3.49	2.62	1.95	1.59	3.65	3.85
	5인 이상 가구	1	0.1290	3.44	2.61	2.02	1.66	3.58	3.74
이주민유무	있다	1	0.3597	3.38	2.43	1.99	1.64	3.36	3.40
	없다	2	0.2139	3.38	2.55	2.09	1.73	3.25	3.35
	무응답	1	0.6651	3.86	2.95	2.15	1.69	3.50	3.35
부채유무	있다	1	0.2029	3.45	2.44	1.96	1.56	3.42	3.58
	없다	2	0.0891	3.34	2.62	2.16	1.82	3.16	3.23
	무응답	1	0.4373	3.20	2.47	1.88	1.53	3.24	3.82

<부록4> k-평균 군집분석 결과 : 통계량

Final Cluster Centers

Cluster	1	2
일자리불안감	3.462247562000000	3.332785619000000
소득증가	2.587782791000000	2.538123029000000
여가활동증가	1.964005113000000	2.151241133000000
모임참여증가	1.598744244000000	1.808039212000000
온라인쇼핑증가	3.506866888000000	3.145191402000000
배달음식주문증가	3.673345079000000	3.199253252000000

Distances between Final Cluster Centers

Cluster	1	2
1		.674
2	.674	

<표 1-1> ANOVA

	Cluster		Error			
	Mean Square	df	Mean Square	df	F	Sig.
일자리불안감	.452	1	.024	107	19.001	.000
소득증가	.067	1	.018	107	3.751	.055
여가활동증가	.946	1	.010	107	99.211	.000
모임참여증가	1.182	1	.016	107	71.634	.000
온라인쇼핑증가	3.528	1	.020	107	177.930	.000
배달음식주문증가	6.062	1	.028	107	218.638	.000

The F tests should be used only for descriptive purposes because the clusters have been chosen to maximize the differences among cases in different clusters. The observed significance levels are not corrected for this and thus cannot be interpreted as tests of the hypothesis that the cluster means are equal.

Number of Cases in each Cluster		
Cluster	1	60.000
	2	49.000
Valid		109.000
Missing		.000

도민의 삶과 정책

보고서 발간에 참가한 사람

연 구 진	홍성효(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임준홍(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 청 남 도	남성연(데이터정책관) 한미라(통계데이터팀장) 백기영(담당자)
(주)글로벌리서치	김태영(글로벌리서치 연구상무) 서현창(글로벌리서치 연구부장) 황소희(글로벌리서치 연구과장) 김상민(글로벌리서치 연구대리) 신지혜(글로벌리서치 연구대리) 이지선(글로벌리서치 연구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371-10)

2021 도민의 삶과 정책

발 행 일　2021년 12월

발 행 인　충청남도지사

발 행 처　충청남도청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041-635-3206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